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권 미 소

2011년 12월



#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연구

지도교수 강 영 봉

권 미 소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권미소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12월



## 목 차

|                          |     |
|--------------------------|-----|
| I. 서론                    |     |
| 1. 연구 목적과 범위 .....       | 1   |
| 2. 연구 방법과 내용 .....       | 5   |
| II.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     |
| 1. 음운 .....              | 7   |
| 2. 문법소 .....             | 19  |
| 3. 어휘 .....              | 34  |
| III. 언어 변이 요인            |     |
| 1. 외부적인 요인 .....         | 65  |
| 2. 내부적인 요인 .....         | 69  |
| IV. 결론 .....             | 71  |
| <참고 문헌> .....            | 75  |
| <부록> .....               | 78  |
| <ABSTRACT> .....         | 153 |

## 표 목 차

|   |    |
|---|----|
| <표 1> 2011년 조사 설화 목록 .....                          | 4  |
| <표 2> ‘사람: 사름’의 출현 빈도 .....                         | 9  |
| <표 3> ‘-들: -덜’의 출현 빈도 .....                         | 11 |
| <표 4> ‘하다: ᄃ다: 허다’의 출현 빈도 .....                     | 12 |
| <표 5> ‘ㄴ’가 포함된 단어의 출현 빈도 .....                      | 14 |
| <표 6> ‘고기: 궤기’의 출현 빈도 .....                         | 16 |
| <표 7> ‘길: 질’의 출현 빈도 .....                           | 17 |
| <표 8> ‘힘: 심’의 출현 빈도 .....                           | 18 |
| <표 9> ‘형제: 성제’의 출현 빈도 .....                         | 19 |
| <표 10> ‘한테, 에게: 안티, 한티, 헌테, 헌티’의 출현 빈도 .....        | 21 |
| <표 11> 보조사 ‘부터: 부떠’의 출현 빈도 .....                    | 24 |
| <표 12> 보조사 ‘까지: 꺄지, 꺄장’ 출현 빈도 .....                 | 26 |
| <표 13> 종결보조사 ‘마쌌’, ‘마쌌’의 출현 빈도 .....                | 27 |
| <표 14> 종결보조사 ‘-게’의 출현 빈도 .....                      | 29 |
| <표 15> 연결어미 ‘-라고, -고: -이엔, -엔, -이엿, -엿’ 출현 빈도 ..... | 31 |
| <표 16> 연결어미 ‘-는데, -데: -는디, -디’의 출현 빈도 .....         | 34 |
| <표 17> 신체 어휘 .....                                  | 35 |
| <표 18> 친족 어휘 .....                                  | 38 |
| <표 19> 천문 어휘 .....                                  | 40 |
| <표 20> 지리 어휘 .....                                  | 41 |
| <표 21> 의·식·주 어휘 .....                               | 44 |
| <표 22> 공간 어휘 .....                                  | 45 |
| <표 23> 시간 어휘 .....                                  | 47 |
| <표 24> 동·식물 어휘 .....                                | 48 |
| <표 25> 수량 어휘 .....                                  | 49 |
| <표 26> 대명사 어휘 .....                                 | 50 |
| <표 27> 기타 어휘 .....                                  | 52 |
| <표 28> 동사 어휘 .....                                  | 53 |
| <표 29> 형용사 어휘 .....                                 | 60 |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범위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100년 전의 말과 현재의 말은 결코 같을 수 없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는 외국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현대국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언어가 알게 모르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온 결과이다.

언어 변화는 사회적 배경과 그 복잡성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를 진행 중에 있는 변화의 관찰에 기초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언어공동체를 연구하고 나서 최소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어떤 변화를 찾고자 하여 3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언어 변화 연구는 대다수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세대별 구어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언어 변화의 결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30년을 기다린 자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다 속에서 진주를 찾은 것에 비견할 만큼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을 살피고 그 변이 요인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방언 연구에서 ‘실재시간’(real time)이란 언어의 변이나 변화를 관찰할 때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정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변이나 변화를 관찰할 때의 시간적 거리를 말한다.<sup>1)</sup>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세대간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변화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곧 ‘현장시간’(apparent time)을 통한 조사 연구 방법과는 다르다. 언어에 대한 ‘실재시간’ 조사, 연구는 예컨대 30년 동안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진행된 언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30년을 기다리고,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전의 동일한 조사 지역, 동

1)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251쪽.

일한 조사 방법,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나아가 상이한 연령 집단 간에 나타나는 언어 행위의 차이를 언어 변화의 결과로 간주하는 ‘현장시간’에 입각한 조사 방법이 지닌 약점인 정확성과 신뢰도의 결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이 조사 방법은 진행 중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예전의 조사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와 제약이 작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어디까지나 실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구술 발화의 변이 양상을 살필 것이다. 한 방언을 사용하는 방언 화자들 개인의 개인어가 모여 여러 가지 말씨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말씨들이 개별 방언을 구성한다. 따라서 개인어는 어느 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언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에서의 개인어(idiolect)<sup>2)</sup>인 셈이다. 결국, 이 연구는 실제시간 30년 동안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개인의 구술 발화를 동일 지점, 동일 환경, 동일 제보자를 통해 현장 조사 방법을 취하고 실제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어의 변이 양상과 그 변이의 요인을 밝히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언 연구 자료는 구비문학자료<sup>3)</sup>, 방언자료집<sup>4)</sup>, 구술 자료집<sup>5)</sup>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와 함께 1985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설화집성』(1)이 원용될 것이다. 『제주설화집성』(1)은 제주도 일원을 조사 지역 대상으로 하여 3명의 조사위원과 5명의 조사보조원에 따라 제주도의 전설·민담·신화를 조사,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구

2) 이상규, 『국어방언학』, 학연사, 2003, 23쪽.

3) 대표적인 구비문학 자료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9-1(북제주군편), 9-2(제주시편), 9-3(서귀포시·남제주군편)과 신(神)의 내력담인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등이 있다.

4) 방언 자료집이란 제주도방언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에 따라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1947)을 비롯하여 박용후의 『제주도방언연구』(1960),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 제1집 자료편』(1962), 제주도의 『개정정보 제주어사전』(1995/2009), 송상조의 『제주말근사전』(2007) 등을 들 수 있다.

5) 구술자료집으로는 생애 구술이 있다. 대표적인 구술 생애 자료로는 오성찬의 『삼삼사태로 만 죽었어, 반!』(1991),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 만나는 제주 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2004),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강영봉의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김순자의 『나, 육십육 년 물결처럼 이제도록 살안』(2008), 김미진의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2009) 등을 들 수 있다.

비문학적인 가치는 물론이요, 제보자가 구술한 구어 내용을 채록, 전사한 자료로 방언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3명의 조사자에 따른 전사 표기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료 표기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만들어 전사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 자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이 논의에서는 『제주설화집성』(1)중에서 제보자 오문복(吳文福)(1938년생·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신흥리)의 구술 설화 19편과 연구자가 2011년 동일 제보자에게서 채록한 설화 19편만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조사는 실제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총 3회 이루어졌는데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가 2011년 9월 7일 제보자의 새로운 거주지인 제주시에서 이루어졌다. 제보자 오문복은 3일(월, 화, 수)은 제주시 집에 거주하며 후학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나머지 4일(목, 금, 토, 일)은 고향인 성산읍 신흥리에 거주하며 역시 한문을 가르치며 살고 있다. 예비 조사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보자에게 1983년 구술했던 자료를 미리 읽고 조사에 응하면 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자료를 보지 말아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행히도 제보자는 조사 당시 자료집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예비 조사에서는 1983년 현용준·고광민 조사위원이 『제주설화집성』(1)의 내용을 조사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제보자의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보자에게 어떻게 하여 제주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1983년 조사에서의 동일한 구술과 동일 환경을 재연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8일 1차 조사와 9월 29일 2차 조사가 제보자가 주로 거주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제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제보자의 집은 ‘안팎거리’ 곧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다. 1983년 조사가 바깥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 장소인 바깥채를 활용하였다. 조사 시간도 1983년 조사 당시 오후 시간을 활용한 것처럼 2011년 조사도 오후에 이루어졌다. 2차에 걸쳐 조사한 설화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1년 조사 설화 목록

| 번호 | 1차 조사                 | 번호 | 2차 조사                  |
|----|-----------------------|----|------------------------|
| 1  | 용궁올레(-) <sup>6)</sup> | 1  | 들음돌 내던져 버린 할머니(+)      |
| 2  |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2  |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
| 3  | 당팻당장(+)               | 3  | 난산리 김씨(+)              |
| 4  | 벙인태(邊仁泰)(-)           | 4  | 김관사(+)                 |
| 5  | 고성 홍효자(+)             | 5  | 영산이골(-)                |
| 6  | 개불 홍씨(-)              | 6  | 원당할망(-)                |
| 7  | 삭달제장과 삼등매(+)          | 7  | 술할망(-)                 |
| 8  | 오훈장과 그의 계모(-)         | 8  | 곱은소(+)                 |
| 9  | 자운당(-)                | 9  | 용왕아들 삼형제(-)            |
|    |                       | 10 | 제주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
|    | 총 9편                  |    | 총 10편                  |

제보자 오문복은 『제주설화집성』(1)의 40명 제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편의 설화 자료를 제공하였다. 총 23편 가운데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을 알아보고자 재조사한 자료는 모두 20편이다. 1983년에 조사되었던 「안남택과 구렁뿔 당신(堂神)」, 「항하르방」, 「얼쭈」 등 3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여러 차례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으나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제보자의 발화를 끌어내는 것은 연구 결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3편의 설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현유학」 설화인 경우는 예비 조사 때에 이미 채록했으나 조사 장소가 1983년 조사 당시의 장소와 다른 제주시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일 장소, 동일 환경’에서 조사하여 비교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 때 다시 조사하였다. 그러나 1983년 조사 당시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그때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며 재조사를 하였으나 예비 조사 때 구술했다

6) 여기서 (+), (-) 표시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서 구술 발화 내용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는 2011년 조사 내용이 늘어났다는 표시이고, (-)는 줄어들었다는 표시이다. 구술 발화 내용은 부록 참조.

는 점을 염두에 두어선지 예비 조사에서 빠뜨렸던 내용만 구술하여 그 내용 또한 완벽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19편의 설화 중 「벙인태」 설화인 경우 1983년에 2번에 걸쳐 채록<sup>7)</sup>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조사 때에도 같은 연구 범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벙인태」 설화는 2차에 걸쳐 조사하여 연구 범위를 맞추었다.

모든 설화의 채록은 1983년 자료에서 조사자가 질문했던 형식과 질문 내용과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1983년 조사자는 남성이었는데 2011년 연구자는 여성이어서 조사자의 성별에 따른 제보자의 언어가 달라질까 염려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여성임을 밝히는 언어나 여성 화자 특유의 말투는 자제하였다. 1983년 자료를 보면 조사자는 제보자의 이야기에 맞장구치는 정도로만 개입하였다. 가끔 제보자가 구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묻는 방식만 취했을 뿐 그 외에는 이야기의 모든 부분은 제보자에게 맡겼다. 따라서 2011년 조사 때에도 가급적이면 제보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정도로만 대화에 개입하여 동일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실제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1983년 자료는 문헌 조사, 2011년 자료 수집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조사는 가급적 30년의 조사 장소, 조사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집된 구술 자료들은 1983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어절 단위로 재정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상 자료를 계량 처리하여 분석, 해석하는 통계적 방법은 언어 변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일반화시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언어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수집

7) 여기의 이야기는 한 제보자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채록한 것인데, 편의상 한데 묶기로 한다. 김영돈·현용준·현길인, 『제주설화집성』(1), 1985,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781쪽.

한 언어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신뢰도의 문제를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설화집성』(1)의 19편의 설화와 2011년 연구자가 재조사한 19편의 설화를 음운, 문법소, 어휘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그 변이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먼저 음운인 경우 모습과 자음을 살펴볼 것이다. 모습은 제주도방언의 음운의 특징 중 ‘·’와 ‘…’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외의 모습 변이 양상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음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변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제보자 발화 자료의 문법소 변이 양상을 다룰 것이다. 방언의 문법 연구는 발화 자료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발화를 조사와 어미의 향으로 나누어 변이 양상을 살펴려 한다. 조사인 경우 격조사, 보조사, 종결보조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고 어미인 경우는 연결 어미의 변이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어휘 변이의 양상은 어휘 선정 기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김종학의 『한국어 기초어휘론』에 제시된 349개의 기초 어휘를 토대로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해 제보자의 어휘의 변이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의 발화에서 음운, 문법소, 어휘들의 언어 변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Ⅱ. 실재시간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Ⅱ장에서 제보자 오문복이 구술한 19편을 대상으로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30년이라는 실재시간의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의 대상은 국어학의 하위 영역인 음운, 문법소, 어휘가 된다.

### 1. 음운

제주도방언에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주도방언은 국어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sup>8)</sup> 제보자의 언어에도 ‘·’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가 실재시간의 거리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의 변이 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외의 다른 모음에서도 변이 양상은 어떠한지와 자음에서도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1. ‘·’의 변이 양상

제주도방언은 語頭音節(어두음절)에서 대체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다. 語頭音節(어두음절)의 아래아는 대체로 ‘ㅏ’나 ‘ㅑ’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제주도방언은 15세기 문헌어의 非語頭音節(비어두음절)의 ‘·’에 대하여서는 ‘ㅡ’로의 대응을 보이는바 이로부터 제주도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는 대체로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ㅡ’로 변화하였다.<sup>9)</sup>

8) 정승철,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1995, 17쪽.

9) 정승철, 위의 책, 41쪽.

후설저모음인 ‘·’는 1983년 자료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 ‘ㅏ’나 ‘ㅑ’, ‘ㅡ’로 변하기도 하지만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ㅑ’로 변하기도 하였다.

1) ·>ㅏ

어휘 ‘사람’은 ‘살다’의 어간 ‘살-’에 접미사 ‘-음’이 연결된 ‘살--음’ 구성으로, 표준어에서는 ‘살+ 음>사름>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에서는 표준어와는 달리 ‘살+-음>사름>사름’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곧 표준어에서는 ‘으>아’로 변하나, 제주도방언에서는 ‘으>으’로 변한 경우<sup>10)</sup>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의 1983년과 2011년의 발화 자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제보자는 1983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사람’은 1번 사용한 반면, 방언형인 ‘사름’은 87번 발화하였다.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사람’은 65번 쓰여 높은 빈도수를 보였지만 방언형인 ‘사름’은 30번 나타나 1983년 자료에 비해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다음은 1983년 자료에서 ‘사름’이 사용된 문장과 2011년 자료에서 ‘사람’이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문장들은 1983년과 2011년 자료의 같은 설화를 비교하였다.

<1983년 자료>

- 그 **사름** 이야기는 만합니다. 시방 그 **사름** 주순덜토 만해부니까.(삭달제장과 삼등매)
- 하도 그 **사름**은 거짓말은, 거짓말은 잘흐는디(뱅인태)
- 나 므시 ㄹ꾸레 텅기단 그자 **사름** 문엄직흐 디, 뜻뜻흐 디 흐번 봐 뇌시메(영산이골)
- 이제 그 알자(謁者) 마닷던 **사름**이 흐는 모양이라마썸.(난산리 김씨)
- 청나라 황제도 본래 제주도 **사름**이엔 흐테다.(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2011년 자료>

- 그 이제 옆에 이제 그 **사람** 친구가 흐나 잇었어. 아, 보니까 요 **사람**(삭달제장과 삼등매)
- বাং인태, 그 **사람**은 서귀진의 관논디(뱅인태)
- 그 영산이엔 현 건 **사람** 물 보는 이제 그 머슴 이름이고(영산이골)

10) 강영봉·김동윤·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010, 267쪽.

- 흔 사람 그 김씨가 흔 번은 배당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깐(난산리 김씨)
- 지금 그 이제는 청나라 통천자가 그 사람 아들인 거주.(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제보자는 설화를 구술할 때, 1983년 자료에서 주로 방언형 ‘사름’을 사용하였다면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보다 표준어형인 ‘사람’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제보자의 발화에서 어휘 ‘사람’은 실제시간 경과에 따라 제주도방언의 변화 과정인 ‘·>ㅏ’의 모습을 보이던 중 그 변화 방향이 표준어형의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ㅏ’의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사람: 사름’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사람       | 사름  | 사람       | 사름  |
| 1        | 87  | 65       | 30  |

위에서 예로 든 ‘사람’ 외에도 1983년 자료와 2011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가 ‘ㅏ’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제주도방언의 ‘·’와 ‘ㅏ’의 교체를 통시적 사실로 볼 때 제보자의 언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제보자의 구술 중에서 ‘·>ㅏ’의 변이 현상은 기초어휘에 해당하는 ‘딸>딸’, ‘흐나>하나’ 외에도 ‘스실>사실’, ‘므르다>마르다’ 등의 여러 어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ㅏ’ 아래의 ‘·’가 출현했던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ㅏ’로 변화했는데 이 역시 제주도방언의 음운 변화 현상 중에 하나가 제보자의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2) ·>ㅏ>ㅓ

제주도방언에서 명사의 복수는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덜, -이(의), -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복수화 접미사

의 ‘-덜’을 통해 아래아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미사 ‘-덜’은 독립적으로 표면에 나타날 수 없고 언제나 비어두음절(非語頭音節)에서만 출현한다. 중세국어에서 ‘·’를 가지고 있던 ‘-똥’은 ‘·>ㅓ’의 음운 변화를 바로 겪지 않고 ‘·>ㅓ’로 변화에 먼저 휩쓸려 제주도방언에서 ‘-덜’로 남아있다.

제보자는 1983년 설화를 구술할 때 ‘-덜’을 ‘·’의 1차 변화 즉, ‘·>ㅓ’로 발화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덜’은 또 한 번의 음운 변화를 입어 2011년 설화 구술 시에는 ‘·>ㅓ>ㅓ’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덜’은 총 96번이 사용되었고, ‘-덜’의 표준어형인 ‘-들’은 1번만 출현하였다. 반면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덜’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준어형인 ‘-들’은 총 102번 사용되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덜’이 사용된 문장과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들’이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된 문장들은 1983년과 2011년 같은 설화의 것들이다.

#### <1983년 자료>

- 그 할망 하문더레 궤기덜이 그만 문딱 와르르하게 들어가난(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흐루는, 이제 동네 사름덜이 의논을 해 가지고(당팃당장)
- 그디 간 하간 거 백성덜 못살게 해여네 모두와 논 걸 다 시경 올리젠 하나네(벙인태)
- 투호 투호도 해영 흐곡 흐주마는 아이덜이난 급흐니까 쟁꺼뽀 해여네(개불 흥씨)
- 그 사름 이야기는 만합니다. 시방 그 사름 즈순덜토 만해부니까.(삭달제장과 삼등매)

#### <2011년 자료>

- 십지코지에서부터 바당에 궤기들을 몰아근에 잡아당 먹겐헨에.(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저 돈 안 받았 예전에는 다 동네 사람들이 해줘.(당팃당장)
- 이 조방장이 와근엔 백성들 생각해근엔 좀 잘 해주는 조방장한테는 고분고분 말을 아주 잘 듣 곡(벙인태)
- 마침 훈장은 어디 므실 가비연 없곡 아이들이 막 노는디, 아이들이 이제 원님놀이를 험서.(개불 흥씨)
- 나 이 돌아간 어른 흐고는 뭐 웨가로 진웨가로 진진웨가로 멧 촌이고 허면은 즈식들은 모르니까(삭달제장과 삼등매)

위의 결과로 볼 때 2011년 자료에서 같은 단어에서 쓰인 방언형 ‘-덜’이 모두 표준어형인 ‘-들’로 변화했다는 것은 더 이상 접미사 ‘-덜’이 제보자의 언어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 표준어형이 대체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접미사 ‘-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기초어휘에서 살펴볼 ‘아들>아덜>아들’의 변화도 ‘·’ 변화의 한 형태인 ‘·>ㄴ>ㅡ’를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3> ‘-들: -덜’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들       | -덜  | -들       | -덜  |
| 1        | 96  | 102      | -   |

### 3) ·>ㄴ

동사 ‘하다’는 1983년 자료에서 총 612번 발화되어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어휘다. 그 중 표준어형인 ‘하다’는 259번, 방언형인 ‘ㅎ다’는 353번 사용되어 1983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이 더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1983년 자료에서 조사위원 3명이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내놓음으로써 ‘·’를 의도적으로 표기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2011년 자료에서도 제보자의 언어에서 ‘·’가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 ‘·>ㄴ’의 변이 양상을 살펴려 한다.

2011년 자료에서 동사 ‘하다’는 총 503번 출현하였다. 표준어형인 ‘하다’가 271번, 방언형인 ‘ㅎ다’는 224번 쓰인 반면, ‘·’가 사용된 방언형 ‘ㅎ다’는 8번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ㅎ다’가 사용된 문장과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하다’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983년 자료>

· 또 이제는 풀랑질 흥글흥글 ㅎ면서 오랜 ㅎ는 시흥ㅎ듯 ㅎ니까(용궁올레)

- 이제 어떤 사름덜은 우시게로 흐쟁 흐민 ‘설문대코지’엿도 홀네다.(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술을 해 놓아서 냄새가 마당까지도 막 나는데 술 조살 왓젠 흐니까(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난산리에서는 국제(國祭)를 홀네다. 거긴 소를 잡양 홀주게.(난산리 김씨)
- 식계[祭祀]도 흐지 말양 식겻날마다 (……) 날 대접해 주영 딱로 식계도 흐지 말곡(원당할망)

<2011년 자료>

- 강생이 그 풀랑지 흥글흥글 흐는 것이 따라오렌 흐는 거 그런 것 답안(용궁올레)
- 그냥 좁게 섭지코지, 섭지코지 흐는 거라.(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아, 그 술은 바글바글 켁 냄새가 나는데 술 조사 완에 텅검뎌 흐난.(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난산리는 귀신이 흐 열 으섯이 돼어. 소 잡고 헐니다.(난산리 김씨)
- 그 할망이 경 행 이제 죽어부난에 이젠 그 뭐 즈손들이 제사는 안 흐고(원당할망)

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같은 설화 안에서 동사 ‘하다’의 변이 양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하다’가 많이 사용되었다면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하다’가 쓰일 자리에 방언형 ‘허다’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동사 ‘하다’의 변이 양상은 다음의 표를 보면 더욱 더 명확해진다.

<표 4> ‘하다: 허다: 허다’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 하다       | 하다  | 하다       | 허다  | 허다 |
| 259      | 353 | 271      | 224 | 8  |

단어의 출현 횟수를 비교해 볼 때 1983년의 자료에서 ‘.’가 포함된 ‘하다’는 ‘허다’로 변이하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는 語頭音節(어두음절)에서 ‘ㄱ’나 ‘ㄴ’으로 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제보자의 언어에서 ‘하다’에서 쓰인 ‘.’는 ‘ㄱ’로 모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하다’가 ‘허다’로 변이하는 것은 음성 모음화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보자 오문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에 속한다.

## 1. 2. ‘ㄴ’의 변이 양상

‘ㄴ’은 《훈민정음》 ‘합자해’의 “·一起 ㄴ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ㄴ’모음에서 일어나는 ‘·’나 ‘-’는 국어에는 없고 아동의 말이나 변방의 언어에 혹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음이다. ‘ㄴ’모음에서 일어나는 ‘·’는 곧 ‘ㄴ’와 ‘ㅇ’의 합음(ㄴ+ㅇ)은 변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방이 곧 제주도에 해당하는 셈이다.<sup>11)</sup> 語頭(어두)에서 이중모음 ‘ㄴ’이 실현되는 것은 제주도방언의 특징이다.

1983년 자료에서 ‘ㄴ’은 총 17번 사용되었다. 비교적 여러 단어에서 ‘ㄴ’를 찾아볼 수 있는데 ‘ㄴ’이 사용된 문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3년 자료>

- 우리 씨어머님은 으든 설이고, 우리 씨아바님은 아흔 설이고(용궁울레)
- 건 용궁울레 그 문이고, 그 ؤل의, 이제 ‘칼선드리’엔 혼 돌이 이수다.(용궁울레)
- 아, 경흐면서 그 ؤل의 아진 사름흐고 컷속말로 뭐 소곤소곤흐더니마는(용궁울레)
- 점심 싸민 으춧 말 아니꽈?(당팃당장)
- 그걸 지어 가지고 ؤل으로 탱겨야 담이 안 클어질 건디(당팃당장)
- 문 올아서 이거 받아 가거니라.(벵인태)
- ؤل의서 우막우막 먹언.(벵인태)
- 서귀진서 나올 때는 그자 혼 으나쁜 발쭈 멀쩡이 모성 가단(벵인태)
- 정성흐는 디는 으러 사름 오민 못 씹니다.(벵인태)
- 으놈덜은 성 우의 올라간 메죽메죽해연(벵인태)
- 이제는 관장게서 절을 흐십서. 으라 번 흘수록 좋십니다.(벵인태)
- ؤل의서 구경흐는 놈덜은 게나제나 쉼게기만 먹을 거난게.(벵인태)
- 아, 으세차 나는 날은 난디엇이(벵인태)
- 기왕 경 장기를 으라 번 둘 거 엇이(솔할망)
- 좁으니까 그 ؤل에다가 다시 서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오훈장과 그의 계모)
- 얼론 내려 가지고 ؤل읏 밧디 보리 딱 짤라서(자운당)
- 도비상귀가 그 ؤل의 지나단 보니까(굽은소)

11) 강영봉,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2007, 29쪽.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1983년 자료에서는 ‘으나믄, 으눔, 으라, 으러, 으든, 으솟, 을다, 옷세차, 읍’ 등과 같이 다양한 어휘에서 ‘…’가 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가 2011년 자료에서는 단 1번 나타났다. 2011년 자료에서 ‘…’가 사용된 자료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

· 난산리는 귀신이 흔 열 으솟이 돼어. (난산리 김씨)

1983년 자료에서 총 17번이나 출현하던 ‘…’가 2011년 자료에서 그 빈도수가 줄어 단 1번만 출현했다는 것은 ‘…’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즉 30년에 걸쳐 점차 소실되었거나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1983년 자료 조사 시 조사자가 ‘·’와 마찬가지로 ‘…’를 의도적으로 표기하려 애쓰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으나 실제시간의 거리가 꽤 긴 만큼 ‘…’는 제보자의 발화에서 점점 사라지고 ‘…’ 자리에 모음 ‘ㄷ’가(‘으눔’인 경우만 제외)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가 포함된 단어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가 포함된 단어                            | ‘…’가 포함된 단어 |
| 으나믄, 으눔, 으든, 으라, 으러, 으솟,<br>을다, 옷세차, 읍 | 읍           |
| 17                                     | 1           |

1. 3. 그 외의 모음 변이 양상

‘궤기’는 온갖 동물의 살을 말하는데 표준어 ‘고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방언형인 ‘괴기’는 ‘고기>괴기’ 변화로 ‘ㅣ모음 역행동화’를 거친 결과다. 제주도방언의 모음 ‘외’는 ‘되다→궤다, 쇠[牛]→궤, 쇠[鐵]→궤’처럼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항상 복모음 ‘웨’로 발음된다.<sup>12)</sup> 따라서 그 표기도 ‘웨이’라고 적는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웨이’는 총 27번, 표준어형 ‘고기’는 총 12번 나타났다. 반면,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웨이’는 빈도수가 크게 줄어 총 12번 사용되었다. 하지만 표준어형 ‘고기’는 총 18번 나타나서 2011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 ‘고기’가 방언형 ‘웨이’보다 그 빈도수가 우세했음을 보인다.

다음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웨이’가 사용된 문장과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고기’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1983년 자료>

- 하루는 웨이 잡아서 요기헛젠 흡네다.(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다음부터 웨이 멍심하게 구라. 너 이 웨이 카서 먹어지겟냐?(벙인태)
- 이거 조방장님 말씀대로 불 멀리 웨이 들린 상 시방 웨이 구엄심네다.(벙인태)
- 절대 욕심을 부렁 그 웨이 잡아먹젠을 말아야지 잡아먹젠 흐머는(용왕아들 삼형제)
- 애비, 아덜이 웨이 잡으레 갓단 그만 아방이 광난이(病) 걸려네 이젠 푼들푼들 죽어가난(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2011년 자료>

- 야, 니 무사 그 고기 구웁 아정오켄 헤동 안 가정 오멘?(벙인태)
- 뒤에 인정오름에 방에 부텃는디 고기 그 석쇄에 난 뒷문에 강 영 들렁(벙인태)
- 그 이제 제사 때는 고기를 써야 돼는디 것도 생명 죽이는 거 아니꽈?(고성 홍효자)
- 옛날 어려운 때도 고기 흔 점하고 그거 먹어볼 건 아무것도 아닌디(난산리 김씨)
- 이제 부모 빼만 남으난 잘 이제는 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이제는 그 바당엘 이제는 모성 강은애(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위에서 인용한 자료와 방언형 ‘웨이’, 표준어형 ‘고기’의 출현 빈도수를 정리해보면 제보자의 구술 자료에서 30년이라는 실재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언형 ‘웨이’를 사용하던 자리에 표준어형 ‘고기’가 등장하면서 방언형 ‘웨이’는 표준어형으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고기: 웨이’의 출현 빈도

12) 강영봉·김동윤·김순자, 위의 책, 58쪽.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고기       | 퀘기  | 고기       | 퀘기  |
| 12       | 27  | 18       | 12  |

#### 1. 4. 자음의 변이 양상

제보자의 발화에서 자음의 변이 양상은 모음의 변이 양상보다는 많지 않다. 다만 자음인 경우 1983년 자료에서 구개음화가 실현되었던 몇 단어가 2011년 자료에 와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국어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있지만 다음에서는 제보자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만을 살펴보려 한다.

##### 1) ㄱ-구개음화

ㄱ-구개음화는 방언적인 현상으로 표준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발화 중에서도 ㄱ-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바로 ‘길’이다.

‘길(道)’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질’(3번), 표준어형 ‘길’(3번)이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질’(1번), 표준어형 ‘길’(2번)이 출현하였다. 1983년과 2011년의 두 자료에서 방언형 ‘질’과 표준어형 ‘길’이 사용된 문장을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983년 자료>-1

- 이제는 아, 거 질레에서 죽어서 이섯더라 말입니다.(고성 흥효자)
- 이 골목 돌약, 저 골목 돌약 ㅎ단 보난 질은 점점 뒤…….(벙인태)
- 어제 오단 질도 있어 불고, 밤이 너 고생도 ㅎ고(벙인태)

##### <2011년 자료>-1

- 옛날은 거, 이 질이 요즘 ㄱ치 넙질 안 헤고 좁아부난(당팻당장)

<1983년 자료>-2

- 나가 큰 인심을 썩 보내 줄 테니까는 요 **길**로 해서 혼자 집일 갑센(용궁올레)
- 그 지다리가 **길**레서 죽어서 등골엄서.(고성 홍효자)
- 아이고, 나 같 **길**이 멀고, 마튼 일 하고 해 부니까(삭달제장과 삼등매)

<2011년 자료>-2

- 그 옆에 이제 큰 **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촌 여러 동네 물을 먹는 때문에(곱은소)
- 우리가 따먹는 **길**에 나는 그 딸기 그것만춤 남아부난(용왕아들 삼형제)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질’과 표준어형 ‘길’이 각각 3번씩 사용되어 같은 빈도수를 보였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 ‘길’이 방언형 ‘질’보다 1번 더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ㄱ-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 아직까지 제보자의 발화에서는 ㄱ-구개음화가 실현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7> ‘길: 질’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길        | 질   | 길        | 질   |
| 3        | 3   | 2        | 1   |

2) ㅎ-구개음화

제보자는 1983년 자료에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말할 때 ‘힘이 세다’라는 표현을 ‘ㅎ’이 구개음화된 ‘ㅅ’을 사용하여 ‘심이 세다/썰다’라고 표현하였다. 1983년 자료에서 ‘ㅎ’이 ‘ㅅ’으로 바뀐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3년 자료>

- **실**이 쨍장이 썰여마썰.(당팃당장)
- 원채 **실**이 썰어노니까 일부러 ‘탕’하게 앓이니까(당팃당장)
- 그 분네가 **실**이 썰엇수다.(당팃당장)
- 이제는 양서육서개로육서또가 **실**이 세고(자운당)

2011년 자료에서도 ‘힘’이 구개음화된 ‘심’이 2번 사용되었다. 그 문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

· 웨정 초에까지 살았던 하르방. 심이 아주 췌여. (…….) 그 하르방 손자를 우리가 만나나난에 실지로. 심이 췌디.(당팟당장)

‘심’은 1983년 자료에서 4번, 2011년 자료에서는 2번 출현하여 그 빈도수는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83년 자료에서 ‘심’의 표준어형인 ‘힘’이 총 15번 출현하였고, 2011년 자료에서 ‘힘’이 19번 쓰인 빈도수를 비교해 봤을 때 1983년 자료보다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힘’의 빈도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힘’의 구개음화된 ‘심’은 표준어형 ‘힘’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짐작된다.

<표 8> ‘힘: 심’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힘        | 심   | 힘        | 심   |
| 15       | 4   | 19       | 2   |

제보자의 발화에서 ‘ㅎ’이 ‘ㅅ’으로 구개음화되는 현상은 ‘힘’ 이외의 다른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표준어형 ‘형제’가 방언형 ‘성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1983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형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방언형인 ‘성제’만 2번 사용되었다.

방언형 ‘성제’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3년 자료>

· 그 남해용궁 아덜이 세 성제가 잇었는디(용왕아들 삼형제)

· 그 아덜 세 성제 보냈는디 죽지나 안해영 살암시냐(용왕아들 삼형제)

흥미로운 것은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인 ‘성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인 ‘형제’만 남아 있었다.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인 ‘형제’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

· 그 아마 밑으로 형제는 쪼끔 아마 머리가 씨원치를 못허고(오훈장과 그의 계모)

<표 9> ‘형제: 성제’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형제       | 성제  | 형제       | 성제  |
| -        | 2   | 1        | -   |

결국 ‘심’이 ‘힘’으로, ‘성제’가 ‘형제’가 되는 과정은 제보자가 30년의 시간동안 ‘ㅎ’과 ‘ㅅ’을 교체하며 사용하다 더 이상 ‘ㅎ’에서 구개음화된 ‘ㅅ’을 실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문법소

방언의 문법 연구는 발화 자료가 논의 대상이 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방언문법의 쓰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주로 채록된 구비문학자료들이 된다. 여기에서는 몇 개의 문법소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어떤 변이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2. 1. 조사의 변이 양상

### 1) 격조사 ‘한테, 에게: 안티’, ‘ㄴ라, 고라’, ‘신디’

표준어 ‘한테’, ‘에게’는 ①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조사, ②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③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다. 이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은 ‘한테, 안티, 안티’ 등으로 나타난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안티’는 총 50번 사용되었다. 그런데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안티’는 4번만 나타났고 ‘안티’의 표준어형인 ‘한테’가 9번, 독특한 이형태인 ‘한테’가 7번, ‘한테’ 1번, ‘한테’ 1번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출현하였다.

다음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안티’가 사용된 문장과 2011년 자료에서 ‘안티’, ‘한테’, ‘한테’, ‘한테’, ‘한테’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문장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의 설화가 같다.

#### <1983년 자료>

- “어, 관장안티 와서 어깨를 똑똑 두드리고, 아, 이런 무뎠은 백성이 어디있냐?”고(개불 흥씨)
- “내년부터는 나안티 그 반 가져 오는 법 하지 말라.”고(난산리 김씨)
- 막 슬프게, 슬프게 곡하고 해서 그 상제안티 이제는, “하이고, 내가 망인하고 춤 그만저만흔 처지가 아니다”(삭달제장과 삼등매)
- 하르방이 할망안티 얻어맞일 판이라.(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남해용궁에 들어간 요왕안티 “원, 간 보니 다 험나이나 도와준 사름이 어서서 그디 벨로 경 거시기 흘 땅이 못뉘우덴.”(용왕아들 삼형제)

#### <2011년 자료>-1

- “너 웬일로 훈장을 좇아와가지고 건방지게 말이여, 원님안티 거 그 무례한 짓을 허느냐.”고(개불 흥씨)
- “다시랑 그 포제 넘어나더라도 원님한테 바찌는 고기랑 보내지 말아라.”(난산리 김씨)
- 힘은 할망만이 못하난 맨날 할망한테 지주.(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어떤 사름은 지네 어멍한테 “아, 거기 가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잘 위해주지 안 험에 고생을 많이 하고 해난 귀썸허덴 행”(용왕아들 삼형제)
- 옛날엔 흥씨들한테 잇다가 그 얘기하명 놀리주게.(개불 흥씨)

2011년 자료에서는 1983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한테’의 문어적 표현인 ‘에게’도 2번 출현하였다. ‘에게’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2

- 막 행 슬피슬피 상주에게 너무지게 절혀면서(삿달제장과 삼등매)
- 나쁜 일 헌 사람에게는 터를 안 쥐.(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위의 인용된 문장들과 빈도수를 종합해볼 때, 1983년 자료에서는 ‘한테’의 방언형 ‘안티’만이 남아 있는 반면, 실제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의 모습, 즉 2011년 자료에서는 ‘안티’, ‘한테’, ‘한티’, ‘헌테’, ‘헌티’, ‘에게’ 등으로 다양한 어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한테, 에게: 안티, 한티, 헌테, 헌티’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    |    |    | 2011년 자료 |    |     |    |    |    |
|----------|----|-----|----|----|----|----------|----|-----|----|----|----|
| 표준어형     |    | 방언형 |    |    |    | 표준어형     |    | 방언형 |    |    |    |
| 한테       | 에게 | 안티  | 한티 | 헌테 | 헌티 | 한테       | 에게 | 안티  | 한티 | 헌테 | 헌티 |
| -        | -  | 50  | -  | -  | -  | 9        | 2  | 4   | 7  | 1  | 1  |

위의 격조사 ‘안티: 한티’와 더불어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고라’와 ‘ㄹ라’이다. ‘ㄹ라, 고라’는 표준어의 ‘더러’, ‘에게’에 해당하는 말이며 중세국어 ‘다려, 더러’에서 온 조사로 인칭대명사나 인명에 주로 붙어서 쓰이는 상대격 조사이다. ‘ㄹ라, 고라’는 중세국어 ‘근-(曰)’에서 문법화한 것인데 문법화된 경우에 ‘·>ㄱ’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한 형태다. ‘고라’는 제주도방언의 ‘안티’, ‘안테’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고라’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3년 자료>-1

- 이방을 시켄 이방 노릇을 흐는디, 원님이 갈령 가고 새 원님이 올 건디 그 이방고라(원당할망)
- 날고라 잘못사 가장 갓젠 흘런지 모르난(뽕인태)
- 뽕인태가 이방안티 옛날은 군수고라 성주엔 햇수다.(뽕인태)

1983년 자료에서는 ‘고라’가 총 3번 나타났는데 이는 방언형 ‘안티’(혹은 ‘안티’, ‘안테’)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자료에서 ‘·’가 사용된 ‘ㄹ라’는 1번 쓰였는데 그 의미는 표준어의 ‘더러’에 해당하는 말이다.

<1983년 자료>-2

· 곶곶라 ‘날레’엔 흐는디, 날레 담으레 집더레 돌아완 보니까 담앗거든 말이우다.(오훈장과 그의 계모)

2011년 자료에서 ‘고라’는 나타나지 않고, ‘·’가 사용된 ‘ㄹ라’가 총 8번 출현하였다. 2011년 자료에서 ‘ㄹ라’가 사용된 문장들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

- 경 행 이제 그 섭지할망 ㄹ라 이제 성산허곡(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요걸 간에 뱅정들 ㄹ라 비어오라헨 잠디를 멩글안에 경 행 뱅인테 ㄹ라(뱅인테)
- 이젠 엄막을 두 개 짓언에 뱅인테 부인 ㄹ라(뱅인테)
- 이제 그 삭달제장이 그 장남 ㄹ라(삭달제장과 삼등매)
- 점심 잡쌍갑센 이만이 싸주난 가정오란 그 머심 ㄹ라(삭달제장과 삼등매)
- 그 어른 그 예전에 곶 ㄹ라 이서 잘 쓴텐 허주.(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공문에 강 스령 ㄹ라 나가 이디 이 원님헌티(난산리 김씨)

위의 자료를 보면 ‘ㄹ라’는 ‘에게’의 의미와 ‘더러’ 또는 ‘보고’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디’이다. ‘신디’는 ‘한테’의 의미를 가지는 격조사로 표준어에는 없지만 제주도에서는 흔히 쓰이는 독특한 형태다. 이 제주도방언형인 ‘신디’가 제보자의 발화에서 발견된다.

<1983년 자료>

- 이 할망이 어떻사 똥덜신디만 잘 부터가는지(원당할망)

<2011년 자료>

- 옛날에는 다 경해근영 남신디 곳인 말도 요즘ㄴ치 그저 허는 건 혼놈이교(삭달제장과 삼등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디’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각각 1번씩 출현하였다. 조사 ‘신디’는 제보자의 말에서 단 1번씩밖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태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보조사 ‘부떠: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부떠’, ‘부터’는 제보자의 구술 발화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설화의 특성상 현재 존재하는 대상, 사물 등의 위치나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따라서 단어의 출현 빈도수는 높지 않아도 ‘부떠’, ‘부터’의 쓰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1983년 자료에서 ‘부떠’는 12번, ‘부터’는 총 3번 사용되었다. ‘부떠’와 ‘부터’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3년 자료>-1

- 그 때부떠 이디가 용궁이라 혼 것이 세상사름덜안티 알려져십주.(용궁올레)
- 이제는 상회(鄉會)를 해 가지고는 다음부떠는 삼년 안네 집 짓어똥(당팻당장)
- 이놈 아까부떠 판 디서는 혼 번도 타령을 안했는디(벙인테)
- 지금부떠는 나 말 안 듣는 놈은 다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고(개불 흥씨)
- 그 뒤에부떠는 우리 제주도에는 장령ㄴ지는 베슬을 주엇습니다.(오훈장과 그의 계모)

<1983년 자료>-2

- “(…….) 내년부터는 나안티 그 반 가져 오는 법 하지 말라.”고(난산리 김씨)
- 다음부터 췌기 멩심하게 구라.(벙인테)
- ‘이건 이제 구신이 부턴 왔구나’ 해여네 그날부터 어가라 그 솟을 앓단(술할망)

2011년 자료에서는 ‘부떠’가 4번, ‘부터’가 7번 나타났다. ‘부떠’, ‘부터’가 사용된 문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1

- 그 뒤에**부떠**는 이제 “그디가 이제는 용궁올레 때문에 아무나 그딘 가든 안 된다.” 행(용궁올레)
- 이제는 죽어부니까 경해부니까 그 때**부떠**는 부정해서(곱은소)
- 경하면서 산 때**부떠**도 날랑 죽거든 저 하르방허곡 ㄱ치 상에 밥행 제사하지 말렌(원당할망)
- 예전에**부떠** 이제 바당에 꺼 뒤 좃영 오면은 바당 귀신이 부땡온덴(솔할망)

<2011년 자료>-2

- 그게 옛날**부터** 남해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용궁올레)
- 이젠 그 하르방은 이쪽 이거 섭지코지에서**부터** 바당에 퀘기들을 몰아근예(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불에서**부터** 멀리 들러근영 퀘길 구워사 안 카주.(뱅인태)
- 오훈장은 어린 때**부터** 아주 그 머리가 이제 푹푹해.(오훈장과 그의 계모)
- 옛날**부터** 물도 유벨나게 맑지마는 그 물이 이제 요즘 ㄱ트면은(곱은소)

<표 11> 보조사 ‘부터: 부떠’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부터       | 부떠  | 부터       | 부떠  |
| 3        | 12  | 7        | 4   |

위의 예문들과 빈도수를 비교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1983년 자료에서 ‘부떠’가 사용되었던 자리에 2011년에 와서 표준어형 ‘부터’가 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곧 방언형 ‘부떠’는 표준어형에 그 자리를 내 줌으로써 빈도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다.

3) 보조사 ‘까지: ㄱ지, ㄱ장’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어 미치는 지점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ㄱ지’, ‘ㄱ장’은 1983년 자료에서 총 18번 출현하였다. 중세국어에는 ‘ㄱ지’와 ‘ㅅ지’가 공존했는데 표준어에서는 ‘까지’로 쓰이며, 제주도방언에는 ‘ㄱ지’로 남아있<sup>13)</sup>는 것이 제

13) 문순덕, 『제주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세림, 2003, 80~81쪽.

보자의 발화에도 나타난 것이다. 중세국어인 ‘ㄹ장’(極盡)은 1) ㄹ장(最)>가장(부사)로, 2) ㄹ장(極盡)>ㄹ장(제주도방언)>까지(표준어)로 변화하였다.<sup>14)</sup> 1983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 ‘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언형 ‘ㄹ지’는 총 10번 출현하였고, ‘ㄹ장’도 8번 출현하였다.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의 보조사들만 사용되었다. 보조사 ‘ㄹ지’, ‘ㄹ장’이 사용된 문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83년 자료>

- 공부를 부지런히 했는디, 그 때ㄹ지만 해도 우리 제주도를 변방이라고 해서(오훈장과 그의 계모)
- 그 하르방이 왜정초(倭政初)ㄹ지 살아네 구장(區長) 노릇도 해났는디.(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그 난산리서 성읍ㄹ장 오쟁 흐며는 춤 거 불편흔 일이(난산리 김씨)
- 처녀 진상을 흐는디, 그 배를 중국ㄹ장 가야 돼겜는디(제주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인 ‘ㄹ지’는 10번 나타났고, ‘ㄹ장’은 6번 나타났다.

<2011년 자료>-1

- 이제 조선 끝날 때ㄹ지 종손은 병정도 면적해주고(고성 홍효자)
- 건 실지로 이섯던 하르방. 왜정 초에ㄹ지 살앗던 하르방(당팃당장)
- 그 이제 정의 동헌ㄹ장 그걸 갖당 바껴야주게.(난산리 김씨)
- 우테ㄹ장 경 행 막 이렇게 하는디(들음돌 내던져 버린 할머니)

2011년 자료에서는 1983년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표준어형인 ‘까지’가 2번 출현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자료>-2

- 게니 우리 제주도에서 과거에 급제해도 차관까지 간 사름은 없는디(김판사)
- 이제는 그 저곳디 물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그, 그디 모신 그 하르방 제사할 때는 영산이도 제사허곡(영산이골)

14) 문순덕, 위의 책, 81쪽.

<표 12> 보조사 ‘까지: ㄱ지, ㄱ장’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 2011년 자료 |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 표준어형     | 방언형 |    |
| 까지       | ㄱ지  | ㄱ장 | 까지       | ㄱ지  | ㄱ장 |
| -        | 10  | 8  | 2        | 10  | 6  |

보조사 ‘ㄱ지, ㄱ장: 까지’의 총 출현 빈도수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가 같으나 1983년에 출현하지 않았던 표준어형인 ‘까지’가 2011년 자료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아 방언형이 쓰일 자리에 표준어형이 조금씩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 4) 종결보조사 ‘마씀’

제주도방언의 특징인 ‘마씀’은 서술어미 뒤에 덧붙여 존대를 나타내는 종결보조사다. 표준어의 ‘합니까?, 합니다’ 식의 경어의 표현인데 이것은 제주도방언에서 ‘마슴, 마시, 마심, 마씨, 마쌌’ 등으로 다양한 형태들을 보인다. 1983년 자료에서는 여러 형태 중에서 ‘마씀’, ‘마쌌’이 나타나고 있다.

1983년 자료에서 ‘마씀’은 32번 출현하였고, ‘마쌌’은 22번 나타났다. ‘마씀’과 ‘마쌌’이 사용된 문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983년 자료>-1

- 거기는 용머리가 남해용궁 대문이라 **마씀**.(용궁올레)
- 설문대 할망 때에 설문대할망만이 흰 하르방도 잇었던 모양이라 **마씀**.(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서귀진(西歸鎭)에 관노라 **마씀**.(벵인태)
- 간 보니까, 그 지다리가 없어 **마씀**.(고성 흥효자)
- 과거는 반 보니까 그 하르방은 떨어져 **마씀**.(김판사)

##### <1983년 자료>-2

- 파랗게, 쪽흐게 보이는 것이 용궁올레라 **마쌌**.(용궁올레)
- 밥 흰 때 사 먹어 봐야 간에 기벨이 아니 **가마쌌**.(당팃당장)
- 어떻 해연 이 사름은 하천(下賤) 해여노니까는 춤 께로 일을 안해여 **마쌌**.(벵인태)

- 시모를 훔 다음에 몸이 아주 약해져서 **마썸**.(고성 홍효자)
- 따신 퀘기 나깁 밥벌이홀 생각이 었어 **마썸**.(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1983년 자료에서 자주 사용되던 ‘마썸’, ‘마썸’은 2011년 자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제보자가 ‘마썸’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 곧 존대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표준어형인 ‘-디니다’가 ‘마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조사자가 제보자와는 나이 차이가 크고, 또한 1983년 조사 당시보다 조사자의 나이가 들었으므로 존대를 나타내는 종결보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마썸’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주도방언의 ‘마썸’은 문장이 끝날 때 쓰여서 그 문장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경어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마썸’이 출현 빈도수가 낮아졌다고 짐작된다.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화자의 연령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때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마썸’, ‘마썸’의 빈도수가 줄었다는 것은 제보자의 언어 변화에 사회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13> 종결보조사 ‘마썸’, ‘마썸’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마썸       | 마썸 | 마썸       | 마썸 |
| 22       | 32 | -        | -  |

#### 5) 종결보조사 ‘-게’

제주도방언에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문장 전체에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보조사 ‘-게’가 있다. 종결보조사 ‘-게’는 표준어로 ‘그러, 그렇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sup>15)</sup> 화자는 담화 상황에 따라서 종결보조사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종결보조사 중에서 제보자가 주로 사용하던 것은 ‘-게’이다. 발화된 문장에서 종결보조사 ‘-게’가 생략되어도 문장은 완결되며 의미 전달도

15) 문순덕, 위의 책, 95쪽.

분명하지만 종결보조사 ‘-게’가 덧붙음으로써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게’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의 문법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는 담화 기능을 하는 종결보조사 ‘-게’로 한정한다. 종결보조사 ‘-게’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다음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종결보조사 ‘-게’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 <1983년 자료>

- 올레엔 혼 건 제주도 말로 올렷주게.(용궁올레)
- 큰 할망이 이시니까 하르방도 잇어서 혼 겹주게.(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꽃이 가서 낭을 시켜올 때, 동네 쉼터를 동원흠네다게. 건 뒤 무료로 다 빌려 줘주게.(당팃당장)
- 허허, 이거 어이가 잇입주게.(벙인태)
- 바늘에다가 이껍을 꿰어서, 고기가 잘 안 나까집주게.(고성 흥효자)

#### <2011년 자료>

- 설문대할망은게. 몸뚱이가 큰 할망 아니라게.(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일당은 못 줘도. 밥은 행취살 거 아니라게.(당팃당장)
- 이제는 뭐 꼬불꼬불 춤 익숙헌 사람만 거기를 다니는데 서귀포서는 글로 가야 훨씬 백르주게.(벙인태)
- 옛날엔 흥씨들헌티 잇다가 그 얘기하명 놀리주게.(개불 흥씨)
- 곱지레 마당에 앓안 그냥 그냥 술항은 못 들르주게.(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게’는 제보자가 1983년 설화를 구술할 때 자주 사용하던 것으로 ‘-게’가 사용된 횟수는 총 95번이다. 반면 2011년 조사 시 제보자의 ‘-게’ 사용은 현격하게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약 1/3의 수준인 33번만 조사되었다.

제보자의 발화에서 종결보조사 ‘-게’ 사용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 제보자의 언어에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종결보조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줄어든 현상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연결어미 ‘-는디’의 사용 빈도수가 1983년 자료에서보다 2011년 자료에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연결어미가 사용됨으로써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장의 길어짐으로써 문장에서 종

결보조사의 출현이 감소한 것이다.

둘째, 제보자는 30년이라는 실제시간 동안 수차례 같은 설화를 구술하였다.<sup>16)</sup> 같은 설화들을 반복 구술하면서 이미 꽤 알려진 설화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보조사 사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제보자 스스로가 발화에서 종결보조사의 사용 빈도수를 낮춘 것이다. 종결보조사 ‘-게’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구정보(舊情報)이고 청자에게는 신정보(新情報)임을 확인해 주는 담화기능이 있다. 화자가 ‘-게’를 덧붙여서 발화하는 데는 담화 상황이 개입되기 때문이다.<sup>17)</sup>

종결보조사 ‘-게’는 제보자가 확실한 신념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선택되었다. 1983년 자료에서는 제보자가 설화를 구술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조사자에게는 신정보(新情報)라고 생각하여 강조하고 확인하면서 구술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느냐는 식의 구술로 종결보조사 ‘-게’의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눈 여겨 볼 것은 1983년 자료에서의 ‘-게’의 쓰임과 2011년 자료에서의 ‘-게’의 쓰임이다. 1983년 자료에서는 경어체 뒤에 ‘-게’가 사용됐다면 2011년 자료에서는 반말체 뒤에 ‘-게’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마썸’, ‘마썸’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나이가 언어의 변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표 14> 종결보조사 ‘-게’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게       | -게       |
| 95       | 33       |

## 2. 2. 어미의 변이 양상

16) 2010년 서귀포문화원에서 발행한 『우리고장의 설화』라는 책에서도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가 여러 편 실려 있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성산읍 신흥리로 학술 조사를 다녀오면서 제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편의 설화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학술조사보고서를 묶어둔 『國文學報』 제17집(2010)에서는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제보자가 제공한 민요는 실려 있다.

17) 문순덕, 위의 책, 101쪽.

1) 연결어미 ‘-라고, -고: -이엔, -엔, -이엿, -엿’

‘-이엔, -엔, -이엿, -엿’은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어미 ‘-ㄷ-’ 등에 연결되어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어미 ‘-여’의 변형 ‘-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ㄷ’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말하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다.<sup>18)</sup> 여기에서는 체언 뒤에 붙어 사용하는 연결어미로 제한을 두고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았다.

제보자는 설화를 구술할 때 이 연결어미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연결어미의 빈도수를 보면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이엔, -엔’은 총 48번, 방언형 ‘-이엿, -엿’은 2번 출현하였다. 표준어형 ‘-라고, -고’는 총 27번 나타나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이 우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83년 자료에서 ‘-이엔, -엔’, ‘-이엿, -엿’, ‘-라고, -고’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1983년 자료>-1

- “ㄱ짜 저놈 저 뭐 우리 스포는 아랫 ㅁ슬이엔 흐 것이 뵈이냐?”(벵인태)
- 웃을 놀아그네 흐던지 뭐……. 것보고 뭐엔 흐다마는.(개불 흥씨)

<1983년 자료>-2

- 제장이엿 흐민 향교에서 두 번째 노픈 분넵주게.(삭달제장과 삼등매)
- 이제 어떤 사름덜은 우시게로 흐쟁 흐민 ‘설문대코지’엿도 흡네다.(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1983년 자료>-3

- “(…….) 누구보고 나보다 어른이라고 흐느냐?”고(개불 흥씨)
- “아랫 동네라고 흐는 말입니다.”(벵인태)

반면, 2011년 자료에서는 ‘-이엔, -엔’이 27번, ‘-이엿, -엿’이 13번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라고, -고’는 38번 나타났는데 1983년 자료와 비교

18) 현평효 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672~673쪽.

했을 때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방언형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표준어형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자료에서 ‘-이엔, -엔’, ‘-이영, -영’, ‘-라고, -고’가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자료>-1

- 우리 댄 들볼이엔 안 혀고 방에부친땡 헤근엥(뽕인태)
- 하, 이제 성씨를 뭐엔 헤야 뉘겻는디(개불 흥씨)

<2011년 자료>-2

- 지금 시대에는 이장이영 허주마는 그 땡 쟁민장이영 헛는다.(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
- 그 근방에 나무를 잘라 불던지 현 쟁계영 헤가지고(원당할망)

<2011년 자료>-3

- “웨 흥씨라고 흥니까?”, 그 흥이라고 허는 글자가(개불 흥씨)
- 여기서 소 하면은 근천에 잇는 막 깊은 물을 다 소라고 하는데(굽은소)

<표 15> 연결어미 ‘-라고, -고: -이엔, -엔, -이영, -영’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 2011년 자료 |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 표준어형     | 방언형     |         |
| -라고, -고  | -이엔, -엔 | -이영, -영 | -라고, -고  | -이엔, -엔 | -이영, -영 |
| 27       | 48      | 2       | 38       | 27      | 13      |

2) 연결어미 ‘-는데, -데: -는디, -디’

‘-는디’는 ①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 . -엄- . -염- . -람- . -앗- . -엇- . -엿- . -랏-’ 등에 연결되어서, 다음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미리 관계될 만한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② 동사 어간에 연결되는 연결어미, ③ 동사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 . -엄- . -염- . -람- . -앗- . -엇- . -엿- . -랏-’ 등에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자 하는 태도를 스스로 느낄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sup>19)</sup>의 용법이 있다.

19) 현평효 외, 위의 책, 195~196쪽.

여기서는 상황적 배경 전제의 연결어미와 일부 종결어미로 쓰인 ‘-는디, -ㄴ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의 종결어미라는 말은 뒤에 하고자 하는 말이 좀 더 남았지만 생략하고 말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종결어미에 한한 의미이다.

제보자의 언어 습관 중 하나는 연결어미 ‘-는디, -ㄴ디’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제보자는 문장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연결어미를 자주 사용하였다. 연결어미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문장이 길이가 길어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종결어미로 사용된 ‘-는디, -ㄴ디’인 경우는 뒤에 이어지는 말을 생략함으로써 종결어미처럼 사용되었다. 말 줄임이 포함된 종결어미로 사용된 ‘-는디, -ㄴ디’ 역시 의미상으로는 ‘-는디, -ㄴ디’의 뜻과 같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는디, -ㄴ디’는 총 221번이 사용되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반면, 표준어형 ‘-는데, -ㄴ데’인 경우는 1983년 자료에서 19번만 나타나 방언형에 비해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 <1983년 자료>-1

· 상천미에서 사는디, 물질허레 완 전복 떼다네 정신이 아찔했는디, 나가 여길 들어와졌젠.(용궁올레)

· 내가 땅안호고 춤 그만저만호 처지가 아닌디, 아, 생각치 아니해서 술이나 그찌 호젠 완 보니까(삭달제장과 삼등매)

#### <1983년 자료>-2

· 계모라도 그렇게 자식을 아주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는데, 그 자식 교육에 대단호 힘을 써서마썸.(오훈장과 그의 계모)

· 사람도 안 다니곡 호난 몫긴 몫는 거주마는 물이 막 파랑고, 깨끗호고 호데, 거기 이제 전설은(굽은소)

1983년 자료에서 제보자는 방언형 ‘-는디, -ㄴ디’ 형을 ‘-는데, -ㄴ데’ 형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방언형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2011년 자료에서 보면 방언형 ‘-는디, -ㄴ디’는 총 214번 출현하여 1983년 자료와 비슷한 빈도수를 보인다. 얼핏 보면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의 방언형의 빈도수가 비슷하여 크게 변화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연결어미의 표준어형을 비교했을 때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의 어미변이 양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1983년 자료에서 비교적 낮은 빈도수를 보인 표준어형 ‘-는데, -ㄴ데’는 2011년 자료에서 총 76번 사용되었다.

#### <2011년 자료>-1

· 이제 섭지코지, 섭지코지, 섭지코지 **허는디** 그 원래가 설문대 하르방 **코진디** 그냥 좁게 섭지코지, 섭지코지 허는 거라.(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하, 절 너부지게 허면서, “하이, 나도 좀 놈의 일을 좀 **허는디**.” 현 것은 무당을 **허는디**(삭달제장과 삼등매)

#### <2011년 자료>-2

· 이제 제사 못 반양 먹는 불쌍헌 귀신을 제사를 해줘야 **웨는데** 나라 대신 하나까 국제라고 **허는데** 그래서(난산리 김씨)

· 우리 제주도 말로 장남 이름**인데** 요 난산리 겨**텐데**, 그 영산이가 강침의 이제 웨 보는 장남**인데**.(영산이골)

이 연결어미의 출현 빈도에 따른 변이 양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어휘·어미들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언어가 점점 표준어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3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 ‘-는데, -ㄴ데’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며 자주 쓰였다. 이는 제보자의 말 중에 표준어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둘째, 제보자는 설화를 구술할 때 짧은 문장(단문)을 사용하기보다 긴 문장(장문)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연결어미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인용한 자료를 볼 때에도 1983년 자료에서보다 2011년 자료에서 더 많은 긴 문장이 사용되면서 연결어미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83년 자료의 양이 2011년

자료의 양보다 더 많았음을 염두에 둘 때 2011년 자료에서 같은 연결어미의 총 빈도수가 증가한 것은 제보자의 말 중에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표 16> 연결어미 ‘-는데, -데: -는디, -디’의 출현 빈도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표준어형     | 방언형     | 표준어형     | 방언형     |
| -는데, -데  | -는디, -디 | -는데, -데  | -는디, -디 |
| 19       | 221     | 76       | 214     |

### 3. 어휘

이 논의에서는 제보자가 사용하는 어휘가 어떤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어휘 선정은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보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종학(2001)이 『한국어 기초어휘론』에서 분류한 한국어 기초어휘에 따랐다.

기초어휘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용 가능성이 적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천의 가능성이 낮은, 즉 잔존율이 높고 보편성을 띠는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특수 분야에 한정된 의미라든지 혹은 시대의 변천에 민감한 의미를 지닌 어휘소는 기초어휘목록에서 제외하였다.<sup>20)</sup>

#### 3. 1. 기초 어휘

기초어휘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계량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을 취해 살펴보려고 한다.

김종학(2001)은 한국어의 기초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총 349개 어휘를 제

20) 김종학, 『한국어 기초어휘론』, 박이정, 2003, 57쪽.

시하였다. 명사는 총 145개의 어휘로 신체(32)·친족(10)·천문(10)·지리(20)·의식주(12)·공간(13)·시간(8)·동식물(12)·수량(10)·대명사(8) 기타(10)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동사는 151개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기초어휘 항목으로 정하였다. 형용사는 53개로 인위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와 성질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기초어휘 항목으로 정하였다.

김중학의 분류에서는 명사부터 형용사까지 순서대로 1~349까지 번호를 매기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각 품사별로 (명사는 의미 영역에 따름) 연구자가 임의로 번호를 매기었음을 밝혀둔다.

1) 신체<sup>21)</sup>

<표 17> 신체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귀(耳)  | 귀   | -        | 1 | -        | -  |
|    |       | 귀때기 | 1        |   | -        |    |
| 2  | 꼬리(尾) | 꼬리  | -        | 3 | -        | 2  |
|    |       | 꼴랑지 | 2        |   | 2        |    |
|    |       | 꼴랭이 | 1        |   | -        |    |
| 3  | 낯(顔)  | 낯   | -        | 5 | -        | -  |
|    |       | 놋   | 2        |   | -        |    |
|    |       | 얼굴  | 3        |   | -        |    |
| 4  | 눈(眼)  | 눈   | 6        | 6 | 1        | 1  |
| 5  | 다리(脚) | 다리  | 1        | 4 | -        | 1  |
|    |       | 가달  | 3        |   | -        |    |
|    |       | 드리  | -        |   | 1        |    |
| 6  | 등(背)  | 등   | -        | 1 | 2        | 3  |
|    |       | 등어리 | 1        |   | 1        |    |
| 7  | 머리(頭) | 머리  | 2        | 7 | 12       | 15 |
|    |       | 대가리 | 2        |   | -        |    |
|    |       | 드가리 | 3        |   | 3        |    |
| 8  | 목(頸)  | 목   | 3        | 3 | 2        | 3  |

21)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1) 신체 어휘는 32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슴(胸), 2. 가죽(皮), 3. 귀(耳) 4. 깃(羽), 5. 꼬리(尾), 6. 낯(顔), 7. 눈(眼), 8. 다리(脚), 9. 등(背), 10. 머리(頭), 11. 목(頸), 12. 몸(身), 13. 무릎(膝), 14. 발(足), 15. 배(腹), 16. 뺨(頰), 17. 뼈(骨), 18. 뿔(角), 19. 살(肌), 20. 손(手), 21. 어깨(肩), 22. 이(齒), 23. 입(口), 24. 젖(乳), 25. 침(唾), 26. 코(鼻), 27. 턱(顎), 28. 털(毛), 29. 팔(臂), 30. 피(血), 31. 허리(腰), 32. 혀(舌)의 순서이다. 김중학, 위의 책, 63~64쪽.

|    |       |     |      |    |      |    |
|----|-------|-----|------|----|------|----|
|    |       | 모가지 | -    |    | 1    |    |
| 9  | 몸(身)  | 몸   | -    | -  | 1    | 1  |
| 10 | 발(足)  | 발   | 9    | 9  | 5    | 5  |
| 11 | 배(腹)  | 배   | 4    | 16 | -    | 4  |
|    |       | 베   | 11   |    | 4    |    |
|    |       | 베때기 | 1    |    | -    |    |
| 12 | 뼈(骨)  | 뼈   | -    | 1  | 1    | 6  |
|    |       | 꿩   | 1    |    | 1    |    |
|    |       | 뼈   | -    |    | 4    |    |
| 13 | 손(手)  | 손   | -    | -  | 3    | 3  |
| 14 | 어깨(肩) | 어깨  | 1    | 1  | -    | -  |
| 15 | 입(口)  | 입   | 3    | 3  | 1    | 1  |
| 16 | 침(唾)  | 침   | -    | 1  | -    | -  |
|    |       | 꿈   | 1    |    | -    |    |
| 17 | 털(毛)  | 털   | -    | -  | 1    | 1  |
|    |       |     | 총 횟수 | 61 | 총 횟수 | 46 |

위의 분석 자료를 보면 신체를 가리키는 기초어휘는 1983년 자료에서는 총 15개의 단어가 61번, 2011년 자료에서는 총 13개의 단어가 46번 나타났다.

두 자료를 비교해볼 때 2011년에 와서 신체와 관련된 어휘의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자료에서 와서 빈도수가 줄어든 신체 어휘는 ‘귀’, ‘꼬리’, ‘낮’, ‘눈’, ‘다리’, ‘발’, ‘배’, ‘어깨’, ‘입’, ‘침’ 등과 같은 11개 어휘다.

‘귀’는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귀때기’(1번)<sup>22)</sup>가 사용되었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꼬리’는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꼴랑지’(2번), ‘꼴렁이’(1번)의 형태로 나타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는 ‘꼴랑지’(2번)로만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낮’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눗’(2번), ‘얼굴’(3번)이 사용되었으나 2011년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휘다. 방언형 ‘눗’은 표준어 ‘낮’에 해당하는 말로 중세국어 ‘눗’에 해당한다. 1983년 자료에서는 ‘눗’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눈’은 빈도수가 크게 감소한 어휘로 1983년 자료에서는 ‘눈’(6번), 2011년 자

22) 이하 손톱뭉툼 안의 숫자는 단어의 출현 횟수를 말한다.

료에서는 ‘눈’(1번)이 쓰였다.

‘다리’는 1983년 자료에서 ‘다리’(1번), ‘가달’(3번)의 형태로 나타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는 ‘드리’(1번)가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 ‘드리’의 출현은 앞서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가 ‘ㅏ’로 변이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과는 반대로 1983년 자료에서 ‘ㅏ’가 2011년 자료에서는 ‘·’로 실현되는 것을 보이는 특이한 예다.

‘발’은 1983년 자료에서 ‘발’(9번)이, 2011년 자료에서는 ‘발’(5번)로 빈도수가 줄어든 어휘다.

‘배’는 1983년 자료에서 ‘배’(4번), ‘베’(11번), ‘베때기’(1번)로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가 2011년에 와서는 ‘베’(4번)의 형태로만 사용되었다.

‘어깨’는 1983년 자료에서 ‘어깨’(1번)만 출현하였고 2011년 자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입’은 1983년 자료에서 ‘입’(3번)이, 2011년 자료에서는 ‘입’(1번)으로 빈도수가 감소하였다.

‘침’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꿈’(1번)으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동사 ‘뱀다(吐)’의 방언형 ‘바끄다’와 함께 사용된 어휘다. 그러나 이 어휘는 2011년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11년 자료에서 늘어난 어휘도 있다. ‘등’, ‘머리’, ‘몸’, ‘뺨’, ‘손’, ‘털’ 등은 2011년 자료에서 새로 나타나거나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다.

‘등’은 1983년 자료에서 ‘등어리’(1번)만 사용되었지만, 2011년에 와서 ‘등’(2번), ‘등어리’(1번)의 출현으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다.

‘머리’는 1983년 자료에서 ‘머리’(2번), ‘대加里’(2번), ‘드加里’(3번)가 쓰였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머리’(12번), ‘드加里’(3번)가 사용되었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드加里’가 나타난 것은 제보자의 발화에 ‘머리’를 뜻하는 ‘드加里’는 ‘·’를 간직하고 있는 어휘라고 짐작된다.

‘몸’은 2011년 자료에서만 ‘몸’(1번)이 나타났다.

‘뺨’은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인 ‘짱’(1번)이 출현하였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뺨’(1번), ‘짱’(1번), ‘뺨’(4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방언형 ‘뺨’인 경

우 '여>에'의 축약이 일어난 어휘다.

'손'과 '털'은 2011년 자료에서 '손'(3번), '털'(1번)이 출현하였는데 1983년 자료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 추가된 어휘들이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증가하지 않은 어휘는 '목'이다.

'목'은 1983년 자료에서 '목'(3번)이, 2011년 자료에서 '목'(2번), '모가지'(1번)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3년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언형이 2011년 자료에서 발견된 특이한 단어의 한 예가 된다.

2) 친족<sup>23)</sup>

<표 18> 친족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    |          |    |
| 1  | 누이(姉·妹) | 누이  | 1        | 2  | 1        | 7  |
|    |         | 누님  | 1        |    | 6        |    |
| 2  | 딸(女息)   | 딸   | -        | 9  | 1        | 3  |
|    |         | 딸   | 9        |    | 2        |    |
| 3  | 아기(童)   | 아기  | -        | 2  | -        | 2  |
|    |         | 애기  | 2        |    | 2        |    |
| 4  | 아들(子)   | 아들  | 3        | 29 | 6        | 6  |
|    |         | 아덜  | 26       |    | -        |    |
| 5  | 아버지(父)  | 아비  | -        | 18 | -        | 3  |
|    |         | 애비  | 1        |    | -        |    |
|    |         | 아방  | 13       |    | 1        |    |
|    |         | 아버님 | 2        |    | -        |    |
|    |         | 아버지 | 2        |    | 2        |    |
| 6  | 어미(母)   | 어미  | -        | 21 | -        | 20 |
|    |         | 어머니 | 13       |    | 15       |    |
|    |         | 어머님 | 2        |    | 4        |    |
|    |         | 어멍  | 3        |    | 1        |    |
|    |         | 모친  | 3        |    | -        |    |
|    |         |     | 총 횟수     | 81 | 총 횟수     | 41 |

23)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2) 친족 어휘 1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겨례(族), 34. 누이(姉·妹), 35. 딸(女息), 36. 만(伯), 37. 아기(童), 38. 아들(子), 39. 아버지(父), 40. 아우(弟), 41. 어미(母), 42. 언니(姉·兄)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5쪽.

친족 어휘도 신체 어휘와 마찬가지로 2011년 자료에 와서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친족 어휘는 1983년 자료에서 총 6개의 어휘가 81번 사용되다가 2011년 자료에서는 총 6개의 어휘가 41번 나타나 그 빈도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딸’과 ‘아들’, ‘아비’ 어휘에서 그 빈도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1983년 자료에서보다 2011년 자료에 와서 빈도수가 줄어든 어휘는 ‘딸’, ‘아들’, ‘아비’, ‘어미’다.

‘딸’은 1983년 자료에서 모두 방언형 ‘딸’(9번)로만 나타났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딸’(1번) ‘딸’(2번)의 두 가지 형태로 쓰였다. 2011년에 와서 표준어형 ‘딸’이 출현한 것은 ‘·’를 포함한 방언형 ‘딸’이 앞서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ㅏ’로 변해가는 과정에 놓인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들’은 1983년 자료에서 ‘아들’(3번), ‘아덜’(26번)이 사용되어 방언형 ‘아덜’의 빈도수가 더 높았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아들’(6번)만 나타났다.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아덜’이 출현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ㄱ’가 실제 시간을 거치면서 ‘-’로 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비’는 1983년 자료에서 ‘애비’(1번), ‘아방’(13번), ‘아버님’(2번), ‘아버지’(2번)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는 ‘아방’(1번), ‘아버지’(2번)가 나타났다.

‘어미’는 1983년 자료에서 ‘어머니’(13번), ‘어머님’(2번), ‘어멍’(3번), ‘모친’(3번)이 출현하였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어머니’(15번), ‘어머님’(4번), ‘어멍’(1번)이 쓰였다.

2011년에 와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는 ‘누이’다.

‘누이’는 1983년 자료에서 ‘누이’(1번), ‘누님’(1번)이 출현하였는데 2011년 자료에서 ‘누이’(1번), ‘누님’(6번)으로 나타나 그 빈도수가 늘었음이 확인된다.

친족 어휘 가운데 빈도수의 변화가 없는 단어는 ‘아기’다. ‘아기’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애기’(2번)로 나타났다.

3) 천문<sup>24)</sup>

<표 19> 천문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빈도수      | 종횡수 | 빈도수      | 종횡수 |
| 1  | 바람(風) | 바람  | -        | 8   | -        | 3   |
|    |       | 브름  | 8        |     | 1        |     |
|    |       | 브롬  | -        |     | 2        |     |
| 2  | 비(雨)  | 비   | 3        | 3   | 3        | 3   |
| 3  | 하늘(天) | 하늘  | 3        | 3   | -        | -   |
|    |       |     | 총 횡수     | 14  | 총 횡수     | 6   |

천문 어휘도 역시 1983년 자료에서보다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1983년 자료에서는 총 3개의 어휘가 14번 사용되었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총 2개의 어휘가 6번 나타났다.

천문 어휘 중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람’이다.

‘바람’은 1983년 자료에서 ‘브름’(8번)이 쓰였고, 2011년 자료에서 ‘브름’(1번), ‘브롬’(2번)이 출현하였다. ‘바람’의 방언형 ‘브름’은 중세국어 ‘브롬’의 형태가 제주도방언에 남아있는 중요한 어휘다. 2011년에 와서 ‘브롬’ 또는 ‘브롬’의 총 빈도수는 줄었으나 ‘.’를 포함한 ‘브롬’이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보자의 언어에서 ‘브롬’은 변화를 겪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어휘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는 1983년 자료, 2011년 자료에서 각각 ‘비’(3번)가 쓰여 빈도수는 같다.

‘하늘’은 1983년 자료에서 ‘하늘’(3번)이 사용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지리<sup>25)</sup>

<표 20> 지리 어휘

24)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3) 천문 어휘는 1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구름(雲), 44. 눈(雪), 45. 달(月), 46. 바람(風), 47. 별(星), 48. 비(雨), 49. 빛(光), 50. 안개(霧), 51. 하늘(天), 52. 해(太陽)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5쪽.  
 25)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4) 지리 어휘는 2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3. 고을(郡·邑), 54. 길(道), 55. 내(川), 56. 누리(世), 57. 돌(石), 58. 들(野), 59. 땅(地), 60. 마을(村), 61. 모래(砂), 62. 피(山), 63. 물(水), 64. 물(陸), 65. 바다(海), 66. 벌(原), 67. 불(火), 68. 섬(島), 69. 쇠(鐵), 70. 숲(林), 71. 재(灰), 72. 흙(土)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6쪽.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     |          |     |
| 1  | 고을(郡·邑) | 고을  | 8        | 10  | 4        | 4   |
|    |         | ㄱ을  | 2        |     | -        |     |
| 2  | 길(道)    | 길   | 3        | 6   | 2        | 3   |
|    |         | 질   | 3        |     | 1        |     |
| 3  | 내(川)    | 내   | 3        | 3   | 1        | 1   |
| 4  | 누리(世)   | 누리  | -        | 13  | -        | 4   |
|    |         | 세상  | 12       |     | 4        |     |
|    |         | 쇠상  | 1        |     | -        |     |
| 5  | 돌(石)    | 돌   | 7        | 7   | 14       | 14  |
| 6  | 들(野)    | 들   | -        | 2   | 1        | 1   |
|    |         | 드르  | 2        |     | -        |     |
| 7  | 땅(地)    | 땅   | 3        | 3   | 10       | 10  |
| 8  | 마을(村)   | 마을  | 1        | 8   | 4        | 7   |
|    |         | 막슬  | 5        |     | -        |     |
|    |         | 막실  | 1        |     | 2        |     |
|    |         | 막을  | 1        |     | 1        |     |
| 9  | 뢰(山)    | 뢰   | -        | 19  | -        | 11  |
|    |         | 산   | 19       |     | 11       |     |
| 10 | 물(水)    | 물   | 60       | 60  | 48       | 48  |
| 11 | 물(陸)    | 물   | -        | 4   | -        | 8   |
|    |         | 육지  | 4        |     | 8        |     |
| 12 | 바다(海)   | 바다  | 2        | 15  | 6        | 15  |
|    |         | 바당  | 13       |     | 9        |     |
| 13 | 불(火)    | 불   | 10       | 10  | 5        | 5   |
| 14 | 섬(島)    | 섬   | 4        | 4   | 3        | 3   |
| 15 | 쇠(鐵)    | 쇠   | -        | -   | -        | 3   |
|    |         | 췌   | -        |     | 3        |     |
| 16 | 숲(林)    | 숲   | -        | 6   | -        | 2   |
|    |         | 곶   | 6        |     | 2        |     |
|    |         |     | 총 횃수     | 170 | 총 횃수     | 139 |

기초어휘 지리 항목은 1983년 자료에서 총 15개의 어휘가 170번 출현하다가

2011년 자료에서 총 16개의 어휘에서 139번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전체적으로 어휘 사용 빈도수가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1983년 자료에서보다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줄어든 어휘는 ‘고을’, ‘길’, ‘내’, ‘누리’, ‘들’, ‘마을’, ‘되’, ‘물’, ‘불’, ‘섬’, ‘숲’ 등의 11개에 해당한다.

‘고을’은 1983년 자료에서 ‘고을’(8번), ‘ᄃ을’(2번)이 나타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는 ‘고을’(4번)만 사용되었다. ‘·’ 음가를 가진 ‘ᄃ을’은 중세국어의 ‘ᄃ을ᄃ’의 형태가 남아있던 것인데 2011년 제보자의 발화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길’은 1983년 자료에서 ‘길’(3번), ‘질’(3번), 2011년 자료에서는 ‘길’(2번), ‘질’(1번)이 출현하였다. 단어의 사용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두 자료에서 모두 ‘ㄱ’이 구개음화된 ‘ㄷ’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내’는 1983년 자료에서 ‘내’(3번), 2011년 자료에서 ‘내’(1번)로 그 빈도수만 줄어든 어휘에 해당한다.

‘누리’는 ‘世上’을 의미하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세상’(12번)과 ‘식상’(1번)의 형태로 나타났던 어휘가 2011년 자료에서는 ‘세상’(4번)의 형태로만 출현하였다.

‘들’은 1983년 자료에서 중세국어 ‘드르ᄃ’에 해당하는 ‘드르’(2번)가 사용되었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들’(1번)이 나타났다.

제보자의 발화 중 ‘마을’은 비교적 다양한 방언형을 유지하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지리 어휘 ‘마을’은 ‘마을’(1번), ‘ᄃ슬’(5번), ‘ᄃ실’(1번), ‘ᄃ을’(1번)로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마을’(4번), ‘ᄃ실’(2번), ‘ᄃ을’(1번)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ᄃ슬ᄃ’이 변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되’는 ‘산’에 해당하는 어휘로 1983년 자료에서 ‘산’(19번)이 출현하다가 2011년 자료에서 ‘산’(11번)으로 빈도수가 감소하였다.

‘물’은 지리 항목 중 빈도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물’(60번), 2011년 자료에서 ‘물’(48번)로 나타났다.

‘불’은 1983년 자료에서 ‘불’(10번), 2011년 자료에서 ‘불’(5번)로 빈도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섬’은 1983년 자료에서 ‘섬’(4번), 2011년 자료에서 ‘섬’(3번)이 쓰였다.

‘숲’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방언형 ‘곶’으로 출현하였다. ‘곶’은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제보자의 구술 발화 1983년 자료에서는 ‘곶’(6번)이, 2011년 자료에서는 ‘곶’(2번)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지리 항목 중 4개의 어휘 ‘돌’, ‘땅’, ‘물’, ‘쇠’인 경우는 2011년 자료에서 그 어휘의 출현 빈도수가 증가했다.

‘돌’은 1983년 자료에서 ‘돌’(7번), 2011년 자료에서 ‘돌’(14번)로 출현 횟수가 2배 증가한 어휘다.

‘땅’은 1983년 자료에서 ‘땅’(3번), 2011년 자료에서 ‘땅’(10번)으로 빈도수가 늘어났다.

‘물’은 제보자의 발화에서 ‘육지’로 실현되는 어휘다. 제주도방언에서 ‘육지’는 제주도에서 한반도 지역을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1983년 자료에서 ‘육지’(4번), 2011년 자료에서 ‘육지’(8번)가 나타났다.

‘쇠’는 2011년 자료에서 ‘췌’(3번)로 나타나 새롭게 추가된 어휘에 해당한다. 앞서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방언의 모음 ‘외’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항상 복모음 ‘웨’로 발음된다. ‘쇠’는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살펴본 ‘소’와 마찬가지로 복모음을 사용한 ‘췌’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빈도수가 변하지 않은 단어는 ‘바다’이다. 1983년 자료에서는 ‘바다’(2번), ‘바당’(13번)이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바다’(6번), ‘바당’(9번)이 사용되었다. 이 어휘의 빈도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방언형 사용이 줄어들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언형 ‘바당’은 ‘바다+ㅇ’ 구성으로 중세 어휘 ‘바다ㅎ’와 관련이 깊은 어휘다. 이 단어는 실제시간 경과에 따라 제보자의 발화에서 방언형 ‘바당’이 쓰일 자리에 표준어형 ‘바다’가 사용되면서 방언형 ‘바당’의 실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예가 된다.

5) 의 · 식 · 주<sup>26)</sup>

<표 21> 의·식·주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빈도수      | 종류수 | 빈도수      | 종류수 |
| 1  | 고기(肉) | 고기  | 12       | 39  | 18       | 30  |
|    |       | 궤기  | 27       |     | 12       |     |
| 2  | 떡(餅)  | 떡   | 1        | 1   | 1        | 1   |
| 3  | 밥(飯)  | 밥   | 92       | 92  | 20       | 20  |
| 4  | 술(酒)  | 술   | 23       | 23  | 24       | 24  |
| 5  | 옷(衣)  | 옷   | 2        | 3   | 4        | 5   |
|    |       | 의복  | 1        |     | 1        |     |
| 6  | 집(家)  | 집   | 59       | 70  | 51       | 60  |
|    |       | 칩   | 11       |     | 9        |     |
|    |       |     | 총 횟수     | 228 | 총 횟수     | 140 |

의·식·주 항목에서는 어휘 ‘밥’의 빈도수가 크게 줄어들어 총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1983년 자료에서 총 228번 사용되던 어휘들이 2011년 자료에서는 140번으로 감소한 것이다.

기초어휘 의·식·주 항목 중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감소한 어휘는 ‘고기’, ‘밥’, ‘집’ 등에 해당한다.

‘고기’는 1983년 자료에서 ‘고기’(12번), ‘궤기’(27번)가 쓰였고, 2011년 자료에서 ‘고기’(18번), ‘궤기’(12번)가 출현했다. 이는 앞서 음운의 변이 양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30년이라는 실제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언형 ‘궤기’를 사용하던 자리에 표준어형 ‘고기’가 등장하면서 방언형 ‘궤기’는 표준어형으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밥’은 1983년 자료에서 ‘밥’(92번), 2011년 자료에서 ‘밥’(20번)이 사용되었다.

‘집’은 1983년 자료에서 ‘집’(59번), ‘칩’(11번), 2011년 자료에서는 ‘집’(51번), ‘칩’(9번)이 출현하였다. 제주도방언의 특수 어휘 중 하나인 ‘집’은 합성어로 쓰일 때는 ‘칩’으로 실현된다. ‘칩’은 제보자의 구술 중에 아직까지 변이의 과정을 겪

26)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5) 의·식·주 어휘는 12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3. 고기(肉), 74. 국(湯), 75. 담(牆), 76. 떡(餅), 77. 밥(飯), 78. 소금(鹽), 79. 솜(綿), 80. 술(酒), 81. 실(絲), 82. 옷(衣), 83. 울(籬), 84. 집(家)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7쪽.

지 않은 어휘라고 볼 수 있겠다.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는 ‘술’, ‘옷’이 있다.

‘술’은 1983년 자료에서 ‘술’(23번), 2011년 자료에서 ‘술’(24번)로 출현했다.

‘옷’은 1983년 자료에서 ‘옷’(2번), ‘의복’(1번)이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옷’(4번), ‘의복’(1번)이 나타났다. ‘의복(衣服)’은 ‘옷’의 한자어로 체보자가 한자어 말투를 사용하는 데에서 온 어휘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어휘의 출현 빈도수가 변하지 않은 것은 ‘떡’이다.

‘떡’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떡’(1번)이 사용되었다.

#### 6) 공간<sup>27)</sup>

<표 22> 공간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곁(側)   | 곁   | -        | -  | 1        | 1  |
| 2  | 뒤(後)   | 뒤   | 9        | 10 | 4        | 5  |
|    |        | 후   | 1        |    | 1        |    |
| 3  | 밑(本·低) | 밑   | 2        | 2  | 10       | 10 |
| 4  | 사이(間)  | 사이  | 5        | 6  | -        | 1  |
|    |        | 새   | -        |    | 1        |    |
|    |        | 새   | 1        |    | -        |    |
| 5  | 아래(下)  | 아래  | 9        | 12 | 1        | 2  |
|    |        | 알   | 3        |    | 1        |    |
| 6  | 안(內)   | 안   | 10       | 10 | 3        | 3  |
| 7  | 앞(前)   | 앞   | 16       | 16 | 8        | 8  |
| 8  | 위(上)   | 위   | 1        | 16 | 5        | 10 |
|    |        | 우   | 15       |    | 5        |    |
| 9  | 터(基)   | 터   | -        | -  | 7        | 7  |
|    |        |     | 총 횟수     | 72 | 총 횟수     | 47 |

27)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6) 공간 어휘는 13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5. 가(邊), 86. 곁(側), 87. 곳(處), 88. 구멍(穴), 89. 뒤(後), 90. 밑(本·底), 91. 밖(外), 92. 사이(間), 93. 아래(下), 94. 안(內), 95. 앞(前), 96. 위(上), 97. 터(基)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7~68쪽.

기초어휘의 공간 항목도 1983년 자료에 비해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빈도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자료에서는 총 7개의 어휘가 72번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총 9개의 어휘가 47번 나타났다. 어휘 ‘밑’과 ‘터’의 빈도수가 2011년 자료에 와서 증가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먼저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줄어든 어휘들을 보면 ‘뒤’, ‘사이’, ‘아래’, ‘안’, ‘앞’, ‘위’ 등의 6개가 이에 해당한다.

‘뒤’는 1983년 자료에서 ‘뒤’(9번), ‘후’(1번)가, 2011년 자료에서 ‘뒤’(4번), ‘후’(1번)가 출현하였다. ‘후’는 ‘뒤’의 한자어 ‘후(後)’가 사용된 것이다. 의·식·주 어휘의 ‘의복(衣服)’과 마찬가지로 ‘후(後)’는 제보자가 한자어 말투를 즐겨 사용하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 짐작된다. 1983년 자료에서 어휘 ‘뒤’는 부사격 조사 ‘-더레’와 함께 사용되어 문장 내에서 ‘뒤터레’(2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세국어 ‘뒤ㅎ’의 잔영이 제보자의 발화에 남아 있는 것이다.

‘사이’는 1983년 자료에서 ‘사이’(5번), ‘새’(1번)가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세’(1번)가 실현되었다. ‘새’와 ‘세’의 차이는 1983년 조사자와 2011년 연구자의 표기법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새’와 ‘세’는 ‘사이’의 방언형 ‘스이’ 또는 ‘사이’의 축약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1983년 자료에서 ‘아래’(9번), ‘알’(3번)이, 2011년 자료에서는 ‘아래’(1번), ‘알’(1번)이 사용되었다. 방언형 ‘알’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러레’와 함께 쓰여 제보자의 발화에서 ‘알러레’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안’은 1983년 자료에서 ‘안’(10번), 2011년 자료에서 ‘안’(3번)으로 빈도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안터레’가, 2011년 자료에서 ‘안트레’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안’은 ‘뒤’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안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앞’은 1983년 자료에서 ‘앞’(16번), 2011년 자료에서 ‘앞’(8번)이 쓰여 빈도수가 반으로 줄어든 어휘다.

‘위’는 1983년 자료에서 ‘위’(1번), ‘우’(15번)가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위’(5번), ‘우’(5번)가 사용되었다. ‘위’의 방언형 ‘우’는 제주도방언에서 중세국어

‘우흐’ 어형이 남아있는 좋은 예지만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우’의 사용이 줄어들고 표준어형 ‘위’가 더 자주 사용된 것은 그만큼 제보자의 언어에서 방언형보다 표준어가 우세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늘어난 어휘는 ‘결’, ‘밑’, ‘터’이다.

‘결’은 2011년 자료에서 새로 추가된 어휘로 ‘결’(1번)이 출현하였다.

‘밑’은 1983년 자료에서 ‘밑’(2번)이, 2011년 자료에서 ‘밑’(10번)이 사용되어 어휘의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터’도 2011년 자료에서 새로 추가된 어휘로 ‘터’(7번)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시간<sup>28)</sup>

<표 23> 시간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겨울(冬) | 겨울  | 1        | 1  | 2        | 2  |
| 2  | 날(日)  | 날   | 5        | 5  | 4        | 4  |
| 3  | 낮(晝)  | 낮   | 3        | 3  | 1        | 1  |
| 4  | 때(時)  | 때   | 43       | 43 | 51       | 51 |
| 5  | 밤(夜)  | 밤   | 5        | 5  | 4        | 4  |
| 6  | 봄(春)  | 봄   | -        | -  | 1        | 1  |
| 7  | 여름(夏) | 여름  | 3        | 3  | 1        | 1  |
|    |       |     | 총 횟수     | 60 | 총 횟수     | 64 |

시간을 나타내는 기초어휘 항목은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기초어휘 항목과 달리 2011년에 와서 어휘의 총 출현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기초어휘 ‘때’의 빈도수가 2011년에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다른 항목들은 큰 특징없이 비슷한 빈도수를 보인다. 1983년 자료에서는 총 6개의 어휘가 60번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총

28)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7) 시간 어휘는 8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8. 가을(秋), 99. 겨울(冬), 100. 날(日), 101. 낮(晝), 102. 때(時), 103. 밤(夜), 104. 봄(春), 105. 여름(夏)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8쪽.

7개의 어휘가 64번 나타났다.

1983년 자료에 비해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출현 빈도수가 감소한 어휘는 ‘날’, ‘낮’, ‘밤’, ‘여름’이고,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는 ‘겨울’, ‘때’이다. 2011년 자료에서 새로 추가된 어휘는 ‘봄’에 해당한다.

여기서 시간 항목의 각 어휘 빈도수 나열은 생략한다.

8) 동·식물<sup>29)</sup>

<표 24> 동·식물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나무(木) | 나무  | 6        | 20 | 6        | 27 |
|    |       | 남   | 2        |    | -        |    |
|    |       | 낭   | 12       |    | 21       |    |
| 2  | 뿌리(根) | 뿌리  | -        | 4  | -        | -  |
|    |       | 빨리  | 4        |    | -        |    |
|    |       |     | 총 횟수     | 24 | 총 횟수     | 27 |

동·식물에 해당하는 기초어휘도 시간을 나타내는 기초어휘 항목처럼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총 출현 횟수가 3회 증가하였음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자료에서는 2개의 어휘가 24번, 2011년 자료에서는 1개의 어휘가 27번 사용되었는데 어휘의 빈도수가 증가한 것은 기초어휘 ‘나무’ 때문이다.

기초어휘 ‘나무’는 1983년 자료에서 ‘나무’(6번), ‘남’(2번), ‘낭’(12번)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어휘다. 그러나 2011년 자료에서는 ‘나무’(6번), ‘낭’(21번)의 사용으로 방언형 ‘남’은 출현하지 않았다. ‘나무’는 중세국어 ‘나모’에 해당하는데 제주도방언에서 ‘나무’는 ‘남, 낭’으로 실현된다. ‘나모’가 격조사와 결합하여 ‘남기’가 되는데 이때 ‘남’ 어형이 제주도방언에 남아있는 것이다. ‘남, 낭’의 양형은 지역에 따라 달라 보통 제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지역에서는 ‘낭’을, 동부지역

29)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8) 동·식물 어휘는 12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6. 꽃(花), 107. 나무(木), 108. 벌레(蟲), 109. 뿌리(根), 110. 새(鳥), 111. 수(雄), 112. 씨(種), 113. 알(卵), 114. 암(雌), 115. 잎(葉), 116. 자위(核), 117. 풀(草)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69쪽.

에서는 ‘남’을 사용한다. 1983년 자료에서 ‘남’이 출현한 것은 제보자의 고향이 동쪽에 위치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뿌리’는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뽕리’(4번)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9) 수량<sup>30)</sup>

<표 25> 수량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하나(一) | 하나  | 4        | 20 | 7        | 12 |
|    |       | 헉나  | 16       |    | 5        |    |
| 2  | 둘(二)  | 둘   | 1        | 1  | 8        | 8  |
| 3  | 셋(三)  | 셋   | 2        | 2  | 5        | 5  |
| 4  | 여섯(六) | 여섯  | -        | 1  | -        | -  |
|    |       | 으섯  | 1        |    | -        |    |
| 5  | 여덟(八) | 여덟  | -        | -  | -        | 1  |
|    |       | 여덟  | -        |    | 1        |    |
| 6  | 아홉(九) | 아홉  | -        | -  | 1        | 1  |
|    |       |     | 총 횟수     | 24 | 총 횟수     | 27 |

수량어는 한국어의 경우 단일어의 형태로 연속되는 최대의 수가 ‘열’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기초어휘로 보았다.<sup>31)</sup>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의 어휘의 빈도수를 살필 때 단어 앞에 쓰여 그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는 제외하였다.

수량 어휘는 1983년 자료에서 4개의 어휘가 총 25번, 2011년 자료에서 5개의 어휘가 총 27번 출현하였다. 다른 어휘 항목과 달리 수량 어휘는 1983년 자료보다 2011년 자료에서 총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둘’과 ‘셋’을 가리키는 어휘 빈도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30)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9) 수량 어휘는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18. 하나(一), 119. 둘(二), 120. 셋(三), 121. 넷(四), 122. 다섯(五), 123. 여섯(六), 124. 일곱(七), 125. 여덟(八), 126. 아홉(九), 127. 열(十)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70쪽.

31) 김종학, 위의 책, 69쪽.

‘하나’는 1983년 자료에서 ‘하나’(4번), ‘흐나’(16번)가 쓰여 방언형이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2011년 자료에서는 ‘하나’(7번), ‘흐나’(5번)의 사용으로 표준어형 ‘하나’가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은 1983년 자료에서 ‘으섯’(1번)만 쓰였는데 ‘…’를 간직하는 ‘으섯’이 남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자료에 와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는 ‘둘’, ‘셋’, ‘여덟’, ‘아홉’이다.

‘둘’은 1983년 자료에서 ‘둘’(1번)이 사용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 ‘둘’(8번)로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도 1983년 자료에서 ‘셋’(2번)이, 2011년 자료에서 ‘셋’(5번)으로 나타나 빈도수가 늘어난 항목 중 하나이다.

‘여덟’은 2011년에 새로 추가된 어휘로 방언형 ‘여덟’(1번)이 출현하였다. 이 어휘는 제주도방언에서 ‘여덟’을 가리키는 ‘으덟’ 혹은 ‘으답’의 변이 과정에서 ‘…’가 ‘ㄱ’모음으로 변모되고 ‘여덟’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다.

#### 10) 대명사<sup>32)</sup>

<표 26> 대명사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나(我)   | 나   | 122      | 122 | 36       | 36  |
| 2  | 남(他)   | 남   | 2        | 9   | 4        | 5   |
|    |        | 놈   | 7        |     | 1        |     |
| 3  | 너(汝)   | 너   | 42       | 54  | 21       | 31  |
|    |        | 느   | -        |     | 10       |     |
|    |        | ㄴ   | 12       |     | -        |     |
| 4  | 누구(誰)  | 누구  | 6        | 7   | 8        | 8   |
|    |        | 뉘기  | 1        |     | -        |     |
| 5  | 우리(我等) | 우리  | 66       | 66  | 61       | 61  |
|    |        |     | 총 횟수     | 258 | 총 횟수     | 141 |

32)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10) 대명사 어휘는 8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8. 그(其), 129. 나(我), 130. 남(他), 131. 너(汝), 132. 누구(誰), 133. 우리(我等), 134. 이(此), 135. 저(彼)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70쪽.

기초어휘 대명사 항목의 경우 실제시간 30년을 경과하는 동안 어휘가 사용된 총 횟수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1983년 자료에서는 5개의 어휘가 총 258번 출현한 반면, 2011년 자료에서는 총 5개의 어휘가 141번 나타났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나’, ‘너’의 어휘에서 빈도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에 와서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의 내용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1983년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나’는 1983년 자료에서 ‘나’(122번), 2011년 자료에서 ‘나’(36번)가 사용되었다.

‘남’은 1983년 자료에서 ‘남’(2번), ‘놈’(7번)이, 2011년 자료에서 ‘남’(4번), ‘놈’(1번)이 쓰였다. 방언형 ‘놈’은 중세국어 ‘놈’에서 온 것으로 후행하는 순음의 영향으로 ‘·’가 ‘ㄱ’로 변모되어 남아있는 형태가 출현하였다.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놈’의 빈도수가 우세하였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너’는 1983년 자료에서 ‘너’(42번), ‘니’(12번)가 사용되던 것이 2011년 자료에서 ‘너’(21번), ‘느’(10번)로 출현하였다. 제주도방언에서 ‘너’는 ‘느, 니, 닐, 이 녀, 지녀’의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데 제보자의 발화에서는 방언형 ‘닐’ 와 ‘느’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1983년 자료에서 ‘우리’(66번)가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우리’(61번)가 쓰였다.

대명사 어휘 중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는 ‘누구’이다.

‘누구’는 1983년 자료에서 ‘누구’(6번), ‘뉘기’(1번)로 나타나다가 2011년 자료에서는 ‘누구’(8번)로 총 빈도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 ‘누구’는 제주도방언에서 ‘누게, 누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보자의 언어에서는 ‘뉘기’라는 독특한 이형태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1) 기타<sup>33)</sup>

<표 27> 기타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    |          |    |
| 1  | 가루(粉) | 가루  | -        | -  | -        | 1  |
|    |       | ㄱ루  | -        |    | 1        |    |
| 2  | 뜻(意)  | 뜻   | -        | -  | 2        | 2  |
| 3  | 말(言)  | 말   | 49       | 49 | 30       | 30 |
| 4  | 맛(味)  | 맛   | 1        | 1  | -        | -  |
| 5  | 소리(音) | 소리  | 16       | 16 | 5        | 5  |
| 6  | 일(事)  | 일   | 30       | 30 | 25       | 25 |
|    |       |     | 총 횟수     | 96 | 총 횟수     | 63 |

기초어휘 기타 항목에도 역시 2011년 자료에서 어휘의 빈도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자료에서는 총 4개의 어휘가 96번 출현하였고, 2011년에는 총 5개의 어휘가 63번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 출현 빈도수가 감소한 어휘는 ‘말’, ‘소리’, ‘일’이다.

‘말’은 1983년 자료에서 ‘말’(49번)이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 ‘말’(30번)이 나타났다.

‘맛’은 1983년 자료에서 ‘맛’(1번)이 쓰이다가 2011년 자료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일’ 역시 출현 빈도수가 감소한 어휘로 1983년 자료에서 ‘일’(30번), 2011년 자료에서 ‘일’(25번)이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 새로 추가된 어휘는 ‘가루’와 ‘뜻’이다.

‘가루’인 경우는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ㄱ루’(1번)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세국어 ‘ㄱ루’가 제주도방언에서 ‘ㄱ로, ㄱ루, ㄱ르, ㄱ를’ 등의 다양한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보자의 발화에서도 실현되었음을 보이는 예다.

33)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명사 (11) 기타 어휘는 1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6. 가루(粉), 137. 겹(重), 138. 꼴(形), 139. 내(煙), 140. 뜻(意), 141. 말(言), 142. 맛(味), 143. 소리(音), 144. 일(事), 145. 쪽(片)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71쪽.

‘뜻’은 2011년 자료에서 ‘뜻’(2번)이 사용되어 새롭게 추가된 어휘다.

12) 동사<sup>34)</sup>

<표 28> 동사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         |     |          |     |          |     |
| 1  | 가다(去)   | 가다  | 203      | 203 | 152      | 152 |
| 2  | 가르다(分)  | 가르다 | 1        | 1   | -        | -   |
| 3  | 걸다(步)   | 걸다  | 1        | 1   | 2        | 2   |
| 4  | 걸다(掛)   | 걸다  | 4        | 4   | 3        | 3   |
| 5  | 굽다(炙)   | 굽다  | 7        | 7   | 14       | 14  |
| 6  | 끄다(消)   | 끄다  | 1        | 1   | -        | -   |
| 7  | 끌다(引)   | 끌다  | 2        | 2   | -        | 1   |
|    |         | 긋다  | -        |     | 1        |     |
| 8  | 나다(生·出) | 나다  | 28       | 28  | 11       | 11  |
| 9  | 남다(餘)   | 남다  | -        | -   | 1        | 1   |
| 10 | 내리다(降)  | 내리다 | 2        | 6   | -        | 1   |
|    |         | 느리다 | 4        |     | 1        |     |
| 11 | 놀다(遊)   | 놀다  | 4        | 4   | 1        | 1   |
| 12 | 누르다(壓)  | 누르다 | -        | -   | 1        | 1   |

34)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동사 어휘는 151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6. 가다(去), 147. 가르다(分), 148. 감다(捲), 149. 건너다(渡), 150. 걷다(收), 151. 걷다(步), 152. 걸다(掛), 153. 곱다(未滿), 154. 구르다(轉), 155. 굽다(炙), 156. 그리다(寫·畫), 157. 긋다(刮), 158. 기다(匍), 159. 기울다(傾), 160. 깎다(縫), 161. 까다(剝), 162. 끄다(消), 163. 끌다(引), 164. 끓다(沸), 165. 나다(生·出), 166. 날다(飛), 167. 남다(古), 168. 남다(餘), 169. 낫다(癒), 170. 내리다(降), 171. 넣다(入), 172. 녹다(融), 173. 놀다(遊), 174. 놀라다(驚), 175. 누르다(壓), 176. 놀다(臥), 177. 놀다(增·脹), 178. 달리다(走), 179. 닦다(拭), 180. 닫다(閉), 181. 닮다(似), 182. 담다(容·浸), 183. 닿다(觸), 184. 더불다(興), 185. 던지다(投), 186. 덜다(減), 187. 덮다(蓋), 188. 돌다(昇), 189. 돌아(回), 190. 두다(置), 191. 듣다(聞), 192. 들다(入), 193. 들다(擧), 194. 따다(摘), 195. 따르다(從), 196. 때리다(打), 197. 뚫다(穿), 198. 뛰다(躍), 199. 마르다(乾), 200. 마시다(飲), 201. 마치다(終), 202. 막다(防), 203. 만들다(造), 204. 만지다(撫), 205. 맞다(迎·適), 206. 맡다(嗅), 207. 매다(結), 208. 먹다(食), 209. 모으다(集), 210. 묻다(問), 211. 물다(咬), 212. 밀다(推), 213. 박다(嵌), 214. 받다(受), 215. 뱉다(吐), 216. 버리다(捨), 217. 베다(切), 218. 보다(視), 219. 볶다(炙), 220. 부수다(碎), 221. 불다(吹), 222. 붓다(腫), 223. 붓다(注), 224. 붙다(附·着), 225. 비다(空), 226. 빨다(吸), 227. 빼다(拔), 228. 사르다(消), 229. 살다(生), 230. 삶다(煮), 231. 삼키다(吞), 232. 새기다(刻), 233. 서다(立), 234. 섞다(混), 235. 세다(算), 236. 쉬다(息), 237. 심다(植), 238. 싸다(包), 239. 싸우다(戰), 240. 썩다(朽), 241. 쏘다(射), 242. 쓰다(用), 243. 씹다(嚼), 244. 씻다(洗), 245. 아물다(合·完), 246. 앉다(坐), 247. 알다(知), 248. 앓다(痛), 249. 앗다(奪), 250. 얻다(得), 251. 얼다(凍), 252. 열다(開), 253. 오다(來), 254. 오르다(昇), 255. 옥다(凹), 256. 옮다(移), 257. 울다(泣), 258. 웃다(笑), 259. 이기다(勝), 260. 이르다(謂), 261. 익다(熟), 262. 잃다(失), 263. 입다(着), 264. 잇다(連), 265. 자다(眠), 266. 자라다(成長), 267. 잡다(執), 268. 저물다(暮), 269. 젖다(濕), 270. 주다(授), 271. 죽다(死), 272. 줄다(縮), 273. 지나다(過), 274. 지다(落), 275. 지다(負), 276. 찌다(揜), 277. 찌다(蒸), 278. 찌르다(刺), 279. 찢다(裂), 280. 차다(滿), 281. 차다(躡), 282. 참다(忍), 283. 찾다(探), 284. 추다(舞), 285. 캐다(採·掘), 286. 켜다(引), 287. 타다(燃), 288. 파다(掘), 289. 풀다(解), 290. 피다(發), 291. 하다(爲), 292. 헐다(毀), 293. 휘다(彎), 294. 흐르다(流), 295. 흔들다(搖), 296. 흩다(散)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72~78쪽.

|    |         |       |    |    |    |    |
|----|---------|-------|----|----|----|----|
| 13 | 눅다(臥)   | 눅다    | 4  | 4  | 6  | 6  |
| 14 | 닦다(拭)   | 닦다    | -  | 1  | -  | -  |
|    |         | 다끄다   | 1  |    | -  |    |
| 15 | 달리다(走)  | 달리다   | -  | 2  | -  | 1  |
|    |         | 들다    | 1  |    | 1  |    |
|    |         | 들리다   | 1  |    | -  |    |
| 16 | 답다(似)   | 답다    | 5  | 5  | 2  | 2  |
| 17 | 담다(容·浸) | 담다    | 9  | 9  | 2  | 2  |
| 18 | 던지다(投)  | 던지다   | -  | 2  | -  | 1  |
|    |         | 데끼다   | 2  |    | 1  |    |
| 19 | 덮다(蓋)   | 덮다    | -  | 1  | 1  | 1  |
|    |         | 더끄다   | 1  |    | -  |    |
| 20 | 돌다(回)   | 돌다    | 2  | 2  | 2  | 2  |
| 21 | 듣다(聞)   | 듣다    | 14 | 14 | 10 | 10 |
| 22 | 들다(擧)   | 들다    | 1  | 18 | -  | 22 |
|    |         | 들르다   | 17 |    | 22 |    |
| 23 | 들다(入)   | 들다    | 3  | 3  | 3  | 3  |
| 24 | 따다(摘)   | 따다    | 5  | 8  | -  | 5  |
|    |         | 타다    | 3  |    | 5  |    |
| 25 | 때리다(打)  | 때리다   | -  | 4  | -  | 1  |
|    |         | 뜨리다   | 4  |    | 1  |    |
| 26 | 마르다(乾)  | 마르다   | -  | -  | 4  | 4  |
| 27 | 마시다(飲)  | 마시다   | -  | -  | 3  | 3  |
| 28 | 막다(防)   | 막다    | 1  | 1  | 1  | 1  |
| 29 | 만들다(造)  | 만들다   | 2  | 9  | 3  | 16 |
|    |         | 맨들다   | 6  |    | -  |    |
|    |         | 맹글다   | 1  |    | -  |    |
|    |         | 멘들다   | -  |    | 3  |    |
|    |         | 멩글다   | -  |    | 10 |    |
| 30 | 맞다(迎·適) | 맞다(適) | 1  | 1  | 4  | 4  |
| 31 | 먹다(食)   | 먹다    | 64 | 64 | 44 | 44 |
| 32 | 모으다(集)  | 모으다   | -  | -  | 2  | 2  |
| 33 | 묻다(問)   | 묻다    | -  | -  | 1  | 1  |
| 34 | 물다(咬)   | 물다    | 2  | 2  | 3  | 3  |
| 35 | 받다(受)   | 받다    | 19 | 19 | 10 | 10 |
| 36 | 뱉다(吐)   | 뱉다    | -  | 2  | -  | -  |
|    |         | 바끄다   | 1  |    | -  |    |
|    |         | 바트다   | 1  |    | -  |    |
| 37 | 베다(切)   | 베다    | 2  | 4  | 4  | 9  |
|    |         | 비다    | 2  |    | 5  |    |

|    |         |     |     |     |    |    |
|----|---------|-----|-----|-----|----|----|
| 38 | 보다(視)   | 보다  | 91  | 92  | 65 | 65 |
|    |         | 베리다 | 1   |     | -  |    |
| 39 | 불다(吹)   | 불다  | 3   | 3   | -  | -  |
| 40 | 붓다(注)   | 붓다  | -   | 1   | -  | -  |
|    |         | 비우다 | 1   |     | -  |    |
| 41 | 불다(附·着) | 불다  | 2   | 10  | 2  | 12 |
|    |         | 부뜨다 | 4   |     | 7  |    |
|    |         | 부트다 | 4   |     | 3  |    |
| 42 | 살다(生)   | 살다  | 36  | 36  | 49 | 49 |
| 43 | 삶다(煮)   | 삶다  | -   | 4   | -  | -  |
|    |         | 숯다  | 4   |     | -  |    |
| 44 | 서다(立)   | 서다  | 2   | 9   | -  | 1  |
|    |         | 사다  | 7   |     | 1  |    |
| 45 | 섞다(混)   | 섞다  | -   | 1   | -  | -  |
|    |         | 서트다 | 1   |     | -  |    |
| 46 | 쉬다(息)   | 쉬다  | -   | -   | 1  | 1  |
| 47 | 싸다(包)   | 싸다  | 3   | 3   | 5  | 5  |
| 48 | 싸우다(戰)  | 싸우다 | -   | 3   | -  | 2  |
|    |         | 쌈다  | 3   |     | 2  |    |
| 49 | 씩다(朽)   | 씩다  | -   | -   | 2  | 2  |
| 50 | 쓰다(用)   | 쓰다  | 21  | 21  | 16 | 16 |
| 51 | 앉다(坐)   | 앉다  | 9   | 32  | -  | 14 |
|    |         | 앗다  | 23  |     | 14 |    |
| 52 | 알다(知)   | 알다  | 14  | 14  | 11 | 11 |
| 53 | 앗다(奪)   | 앗다  | 11  | 11  | 5  | 5  |
| 54 | 얻다(得)   | 얻다  | 9   | 10  | 2  | 2  |
|    |         | 득하다 | 1   |     | -  |    |
| 55 | 열다(開)   | 열다  | 1   | 2   | -  | -  |
|    |         | 올다  | 1   |     | -  |    |
| 56 | 오다(來)   | 오다  | 113 | 113 | 70 | 70 |
| 57 | 오르다(昇)  | 오르다 | -   | 1   | -  | -  |
|    |         | 올르다 | 1   |     | -  |    |
| 58 | 울다(泣)   | 울다  | 1   | 1   | 2  | 2  |
| 59 | 웃다(笑)   | 웃다  | 3   | 3   | -  | -  |
| 60 | 이기다(勝)  | 이기다 | 9   | 9   | -  | -  |
| 61 | 이르다(謂)  | 이르다 | 1   | 1   | -  | -  |
| 62 | 익다(熟)   | 익다  | 1   | 1   | 1  | 1  |
| 63 | 입다(着)   | 입다  | -   | -   | 15 | 15 |

|    |         |      |      |       |      |       |
|----|---------|------|------|-------|------|-------|
| 64 | 잃다(失)   | 잃다   | 4    | 5     | 3    | 3     |
|    |         | 이으다  | 1    |       | -    |       |
| 65 | 자다(眠)   | 자다   | 5    | 5     | 9    | 9     |
| 66 | 자라다(成長) | 자라다  | -    | 1     | -    | -     |
|    |         | 육다   | 1    |       | -    |       |
| 67 | 잡다(執)   | 잡다   | 29   | 29    | 15   | 15    |
| 68 | 젖다(濕)   | 젖다   | 1    | 1     | 3    | 3     |
| 69 | 주다(授)   | 주다   | 15   | 15    | 18   | 18    |
| 70 | 죽다(死)   | 죽다   | 27   | 30    | 14   | 28    |
|    |         | 돌아가다 | 3    |       | 14   |       |
| 71 | 지다(落)   | 지다   | 4    | 4     | -    | -     |
| 72 | 지다(負)   | 지다   | 19   | 19    | 12   | 12    |
| 73 | 차다(蹴)   | 차다   | 2    | 2     | -    | -     |
| 74 | 찾다(探)   | 찾다   | -    | 7     | 3    | 11    |
|    |         | 훑다   | 7    |       | 8    |       |
| 75 | 추다(舞)   | 추다   | 1    | 1     | -    | -     |
| 76 | 타다(燃)   | 타다   | -    | 9     | -    | 4     |
|    |         | 카다   | 9    |       | 4    |       |
| 77 | 파다(掘)   | 파다   | 4    | 4     | -    | -     |
| 78 | 풀다(解)   | 풀다   | 7    | 7     | 1    | 1     |
| 79 | 하다(爲)   | 하다   | 259  | 612   | 271  | 503   |
|    |         | 허다   | -    |       | 224  |       |
|    |         | 헛다   | 353  |       | 8    |       |
|    |         |      | 총 횃수 | 1,564 | 총 횃수 | 1,220 |

기초어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사·형용사와 같은 활용어가 명사보다 안정성이 강하므로 기초어휘로서의 가치는 더욱 크다<sup>35)</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동사와 형용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은 당연하다. 제보자의 구술 중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들을 분석해 놓은 위의 자료를 보면 기초어휘 동사 항목은 1983년 자료에서 총 71개의 동사가 1,564번, 2011년 자료에서는 총 61개의 동사가 1,220번 나타났다.

35) 김종학, 위의 책, 71쪽.

두 자료를 볼 때 1983년 자료에 비해 2011년 자료에서 동사의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2011년 자료의 내용들이 1983년 자료의 내용들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줄어든 동사는 총 49개의 어휘로 ‘가다’, ‘가르다’, ‘걸다’, ‘끄다’, ‘끌다’, ‘나다’, ‘내리다’, ‘놀다’, ‘뒹다’, ‘달리다’, ‘닭다’, ‘담다’, ‘던지다’, ‘뜯다’, ‘따다’, ‘때리다’, ‘떡다’, ‘밭다’, ‘뺨다’, ‘보다’, ‘불다’, ‘붓다’, ‘삶다’, ‘서다’, ‘섞다’, ‘싸우다’, ‘쓰다’, ‘얹다’, ‘알다’, ‘앗다’, ‘얼다’, ‘열다’, ‘오다’, ‘오르다’, ‘웃다’, ‘이기다’, ‘이르다’, ‘잃다’, ‘자라다’, ‘잡다’, ‘죽다’, ‘지다(落)’, ‘지다(負)’, ‘차다’, ‘추다’, ‘타다’, ‘파다’, ‘풀다’, ‘하다’ 등이다.

여기서는 동사 49개를 모두 보지 않고, 특징적인 몇 어휘만 살펴보겠다.

‘끌다’는 1983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끌다’(2번)가 사용되었으나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꺄다’(1번)로 실현되었다. ‘끌다’의 중세국어는 ‘꺄다’인데 제주도 방언에 남아있는 ‘꺄다’는 중세국어의 잔영이라 짐작된다. 이것이 제보자의 발화에 남아서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이 새로 추가되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내리다’는 1983년 자료에서 ‘내리다’(2번), ‘느리다’(4번)가 나타나다가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느리다’(1번)가 출현하였다. ‘느리다’는 제주도방언에 중세국어 ‘느리다’의 쓰임이 남아있는 것이어서 빈도수는 줄었으나 제보자가 방언형을 고수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뒹다’는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다끄다’(1번)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뒹다’의 중세국어는 ‘뒹다’로 제보자의 발화에서 방언형 ‘다끄다’가 출현한 것은 역시 중세국어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1년 자료에서 이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달리다’는 1983년 자료에서 ‘뜯다’(1번), ‘뜯리다’(1번)가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뜯다’(1번)의 형태로 쓰였다. ‘달리다’의 중세국어는 ‘뜯다’이다. 1983년, 2011년 자료 모두에서 방언형 ‘뜯다’가 실현되었다.

‘던지다’는 제주도방언에서 ‘놀리다, 네끼다, 데끼다’ 등으로 나타나는 어휘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방언형 ‘데끼다’가 출현하였다. 1983년

자료에서는 ‘데끼다’(2번), 2011년 자료에서는 ‘데끼다’(1번)가 사용되었다.

‘따다’는 1983년 자료에서 ‘따다’(5번), ‘타다’(3번)가 쓰이다가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타다’(5번)가 사용되었다. ‘따다’의 경우 중세국어 ‘쁘다’에 해당하는 말로 제주도방언에서는 ‘타다, 트다, 따다, 락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보자의 말에는 1983년과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타다’가 출현하였다. 2011년에 와서 표준어형 ‘따다’의 사용은 보이지 않았다.

‘때리다’는 제주도방언에서 ‘때리다, 때리다, 락리다’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다. ‘때리다’는 1983년 자료에서 ‘락리다’(4번)가, 2011년 자료에서 ‘락리다’(1번)가 출현하였다. ‘락리다’ 역시 중세국어 ‘쁘리다’의 잔영이며 두 자료 모두에서 방언형 ‘락리다’가 사용되어 제보자의 발화 속에 ‘때리다’는 방언형 ‘락리다’가 남아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빨다’는 1983년 자료에서 ‘바끄다’(1번), ‘바트다’(1번)가 사용되었다. 이 어휘는 2011년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사다. 1983년 자료에서 신체 어휘 ‘침’이 제보자의 말에서는 방언형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동사 ‘바끄다’가 함께 사용되었다. ‘빨다’의 중세국어는 ‘발다’에 해당하는 말로 제주도방언에서는 ‘바끄다, 바트다, 빨다’로 실현된다.

‘삶다’는 1983년 자료에서 ‘숯다’(4번)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삶다’의 방언형 ‘숯다’는 중세국어 ‘숯다’의 어형이 제주도방언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중요한 어휘 중의 하나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서다’는 1983년 자료에서 ‘서다’(2번), ‘사다’(7번)가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사다’(1번)가 쓰였다. ‘서다’는 제주도방언에서 ‘사다, 서다, 슨다’의 모습으로 사용되는 동사다. 2011년에 와서 방언형 ‘사다’의 빈도수가 급감하고 표준어형 ‘서다’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30년이 지난 동안에도 방언형 ‘사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얼다’는 1983년 자료에서 ‘얼다’(9번), ‘득하다’(1번)가 쓰였고, 2011년 자료에서는 ‘얼다’(2번)가 나타났다. 1983년 자료에서 ‘득하다’가 사용된 것은 제보자의 언어 습관의 하나로 한자어 말투를 사용하는 예가 된다.

‘읽다’는 1983년 자료에서 ‘읽다’(4번), ‘이으다’(1번)가, 2011년 자료에서 ‘읽다’(3번)가 출현하였다. 1983년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방언형 ‘이으다’가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방언형 ‘이으다’는 2011년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타다’는 제보자의 언어 중 시간이 경과해도 제주도방언을 유지한 어휘로 보인다. 1983년 자료에서 ‘카다’(9번), 2011년 자료에서 ‘카다’(4번)로 그 출현 빈도수는 줄어들었으나 ‘타다’의 방언형인 ‘카다’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늘어난 동사는 25개로 ‘걷다’, ‘굽다’, ‘남다’, ‘누르다’, ‘눅다’, ‘들다(擧)’, ‘마르다’, ‘마시다’, ‘만들다’, ‘맞다’, ‘모으다’, ‘묻다’, ‘물다’, ‘베다’, ‘붙다’, ‘살다’, ‘쉬다’, ‘싸다’, ‘씩다’, ‘울다’, ‘입다’, ‘자다’, ‘젖다’, ‘주다’, ‘찾다’ 등이다.

빈도수가 늘어난 동사는 거의 대부분 표준어형이 쓰인 어휘들이다. 다만 몇 가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들다(擧)’는 1983년 자료에서 ‘들다’(1번), ‘들르다’(17번)가 사용되었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들르다’(22번)만 출현하였다. ‘들다’는 제주도방언에서 ‘드르다, 들다, 들르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제보자의 언어에는 ‘들르다’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들다’는 제보자의 구술 자료에서 다양한 이형태를 보이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는 ‘만들다’(2번), ‘맨들다’(6번), ‘맹글다’(1번)가 사용되었고, 2011년 자료에서는 ‘만들다’(3번), ‘멘들다’(3번), ‘멩글다’(10번)가 나타났다. ‘만들다’는 중세국어 ‘밍글다’의 어형이 제주도방언에서 ‘멘들다, 멩글다, 몽글다’ 등의 형태로 실현되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맨들다’와 ‘맹글다’는 조사자가 전사 시에 ‘ㅁ’모음으로 표기한 경우이고, 2011년 자료에서 확인되는 ‘멘들다’와 ‘멩글다’는 연구자가 ‘ㅁ’로 전사, 표기하여 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붙다’도 다양한 이형태를 보이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붙다’(2번), ‘부뜨다’(4번), ‘부트다’(4번)가, 2011년 자료에서 ‘붙다’(2번), ‘부뜨다’(7번), ‘부트다’(3번)가 쓰였다. ‘붙다’는 제주도방언에서 ‘부뜨다, 부트다, 붙다’로 실현되는데 제보자의 언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빈도수가 변하지 않은 동사는 ‘덮다’, ‘돌다’, ‘들다(入)’, ‘막다’, ‘익다’ 등의 5개 어휘에 그친다.

‘덜다’는 1983년 자료에서 ‘더끄다’(1번)가 출현하였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덜다’(1번)가 사용되었다. 빈도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방언형 ‘더끄다’가 쓰이던 자리에 표준어형 ‘덜다’가 대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돌다’, ‘들다(入)’, ‘막다’, ‘익다’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 없이 같은 빈도수를 보인 어휘들이므로 빈도수와 어형 나열은 생략한다.

13) 형용사<sup>36)</sup>

<표 29> 형용사 어휘

| 번호 | 기초어휘   | 방언형 | 1983년 자료 |    | 2011년 자료 |    |
|----|--------|-----|----------|----|----------|----|
| 1  | 같다(如)  | 같다  | -        | 10 | 6        | 23 |
|    |        | ㄹ뜨다 | 4        |    | -        |    |
|    |        | ㄹ트다 | 6        |    | 17       |    |
| 2  | 곱다(麗)  | 곱다  | 1        | 1  | -        | -  |
| 3  | 긱다(凶)  | 긱다  | 1        | 1  | -        | -  |
| 4  | 깊다(深)  | 깊다  | 3        | 3  | 3        | 3  |
| 5  | 낮다(低)  | 낮다  | -        | 1  | 3        | 4  |
|    |        | 늦다  | 1        |    | 1        |    |
| 6  | 넓다(廣)  | 넓다  | -        | 2  | -        | 1  |
|    |        | 너르다 | 2        |    | -        |    |
|    |        | 넙다  | -        |    | 1        |    |
| 7  | 높다(高)  | 높다  | -        | -  | 1        | 1  |
| 8  | 다르다(異) | 다르다 | 4        | 4  | 2        | 2  |
| 9  | 많다(多)  | 많다  | 3        | 15 | 7        | 9  |
|    |        | 만하다 | 3        |    | -        |    |
|    |        | 만ㅎ다 | 5        |    | -        |    |

36) 한국어 기초어휘 가운데 형용사 어휘는 53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97. 같다(如), 298. 곱다(肥), 299. 검다(黑), 300. 곧다(直), 301. 곱다(麗), 302. 굳다(堅), 303. 곱다(太), 304. 곱다(曲), 305. 긱다(凶), 306. 길다(長), 307. 깊다(深), 308. 낮다(低), 309. 넓다(廣), 310. 높다(高), 311. 누르다(黃), 312. 늦다(晚), 313. 다르다(異), 314. 달다(甘), 315. 더럽다(汚), 316. 덥다(暑), 317. 뚱다(澁), 318. 많다(多), 319. 맑다(淸), 320. 맵다(辛), 321. 멀다(遠), 322. 무디다(鈍), 323. 무르다(軟), 324. 묽다(淡), 325. 바르다(正), 326. 밝다(明), 327. 붉다(赤), 328. 설다(未熟), 329. 세다(彊), 330. 시다(酸), 331. 싫다(厭·悲), 332. 쓰다(苦), 333. 어둡다(暗), 334. 어리다(遇·幼), 335. 없다(無), 336. 얇다(薄), 337. 이르다(早), 338. 있다(有), 339. 작다(小), 340. 잘다(細), 341. 좁다(狹), 342. 좋다(好), 343. 짙다(濃), 344. 짜다(鹹), 345. 춥다(寒), 346. 크다(大), 347. 푸르다(靑), 348. 흐리다(濁), 349. 희다(白)의 순서이다. 김종학, 위의 책, 79~80쪽.

|    |        |     |      |     |      |     |
|----|--------|-----|------|-----|------|-----|
|    |        | 하다  | 4    |     | 2    |     |
| 10 | 맑다(淸)  | 맑다  | -    | 1   | 4    | 4   |
|    |        | 몹다  | 1    |     | -    |     |
| 11 | 멀다(遠)  | 멀다  | 4    | 4   | 1    | 1   |
| 12 | 설다(未熟) | 설다  | 2    | 2   | 4    | 4   |
| 13 | 세다(強)  | 세다  | 1    | 14  | -    | 7   |
|    |        | 쌌다  | 13   |     | 7    |     |
| 14 | 어둡다(暗) | 어둡다 | -    | 3   | -    | -   |
|    |        | 어둑다 | 3    |     | -    |     |
| 15 | 없다(無)  | 없다  | 33   | 64  | 26   | 34  |
|    |        | 엇다  | 31   |     | 8    |     |
| 16 | 있다(有)  | 있다  | -    | 112 | 76   | 112 |
|    |        | 이시다 | 73   |     | 12   |     |
|    |        | 잇다  | 34   |     | 23   |     |
|    |        | 시다  | 5    |     | 1    |     |
| 17 | 작다(小)  | 작다  | -    | 1   | -    | -   |
|    |        | 족다  | 1    |     | -    |     |
| 18 | 좁다(狹)  | 좁다  | 1    | 1   | 1    | 1   |
| 19 | 좋다(好)  | 좋다  | 11   | 11  | 16   | 16  |
| 20 | 춥다(寒)  | 춥다  | 1    | 1   | 2    | 2   |
| 21 | 크다(大)  | 크다  | 2    | 2   | 6    | 6   |
|    |        |     | 총 횃수 | 253 | 총 횃수 | 230 |

기초어휘 형용사 항목은 1983년 자료에서 총 20개의 어휘가 253번, 2011년 자료에서 총 17개의 어휘가 230번 나타났다.

2011년에 와서 어휘의 빈도수가 줄어든 형용사는 ‘곱다’, ‘긷다’, ‘넓다’, ‘다르다’, ‘맑다’, ‘멀다’, ‘세다’, ‘어둡다’, ‘없다’, ‘작다’ 등의 10개 어휘다.

‘넓다’는 중세국어 ‘너르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제주도방언에서는 ‘너르다, 널르다, 넓다’ 등으로 실현된다. 1983년 자료에서는 ‘너르다’(2번)가, 2011년 자료에서는 ‘넓다’(1번)가 사용되었다.

‘다르다’는 1983년 자료에서 ‘다르다’(4번)가, 2011년 자료에서는 ‘다르다’(2

번)가 출현하여 빈도수가 반으로 감소한 어휘다.

‘많다’는 1983년 자료에서 ‘맏다’(3번), ‘만하다’(3번), ‘만하다’(5번), ‘하다’(4번)의 다양한 형태로 쓰이다가 2011년 자료에서는 ‘맏다’(7번), ‘하다’(4번)로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하다’는 중세국어에서 ‘맏다(多)’, ‘크다(大)’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맏다(多)’의 의미가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어 제보자의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자료에서 ‘맏다’의 의미인 ‘하다’는 쓰였지만, ‘맏다’의 이형태인 ‘만하다’, ‘만하다’ 등의 어형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은 실제시간의 거리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멀다’는 1983년 자료에서 ‘멀다’(4번)가, 2011년 자료에서 ‘멀다’(1번)로 빈도수가 급감했다.

‘세다’는 경음화 현상이 실현된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세다’(1번), ‘썰다’(13번)가 나타났고, 2011년 자료에서는 ‘썰다’(7번)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음화현상은 제주도방언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없다’는 제주도방언에서 ‘엇다, 웃다, 없다, 읊다’ 등의 형태가 혼용된다. 제보자는 1983년 자료에서 ‘없다’(33번), ‘엇다’(31번)를 쓰고, 2011년 자료에서는 ‘없다’(26번), ‘엇다’(8번)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1년에 와서 방언형 ‘엇다’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표준어형 ‘없다’의 쓰임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곱다’, ‘긋다’, ‘어둡다’, ‘작다’는 2011년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은 어휘들이다.

‘곱다’는 1983년 자료에서 ‘곱다’(1번)만 나타났다.

‘긋다’ 역시 1983년 자료에서만 ‘긋다’(1번)가 출현하였다.

‘어둡다’는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어둡다’(3번)가 사용되었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작다’는 제주도방언에서 ‘족다’로 나타나는 어휘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족다’(1번)가 출현하였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2011년에 와서 어휘의 빈도수가 늘어난 형용사는 ‘같다’, ‘낮다’, ‘높다’, ‘맑다’, ‘설다’, ‘좋다’, ‘춥다’, ‘크다’ 등의 8개 어휘다.

‘같다’는 중세국어의 ‘꺄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제주도방언에서는 ‘같다, ㄱ뜨다, ㄱ트다’로 실현된다. 1983년 자료에서는 방언형 ‘ㄱ뜨다’(4번), ‘ㄱ트다’(6번)가 사용되었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같다’(6번), ‘ㄱ트다’(17번)가 나타났다. 눈여겨 볼 것은 1983년 자료에서 표준어형은 쓰이지 않았지만 2011년 자료에서는 표준어형 ‘같다’의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방언형 ‘ㄱ뜨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시간의 거리를 통해 제보자의 발화에서 방언형이 표준어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낮다’는 1983년 자료에서 ‘눣다’(1번)가 쓰이던 것이 2011년에 와서 ‘낮다’(3번), ‘눣다’(1번)가 사용되었다. 1983년과 2011년 자료에서 방언형 ‘눣다’의 빈도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2011년 자료에서 표준어형 ‘낮다’가 새롭게 추가되어 ‘낮다’는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증가한 어휘다.

‘높다’는 2011년 자료에서 새로 추가된 어휘로 ‘높다’(1번)가 출현하였다.

‘맑다’는 중세국어 ‘뭍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제주도방언에서 ‘맑다, 뭍다’의 어형으로 실현된다. 1983년 자료에서 방언형 ‘뭍다’(1번)가 사용되던 것이 2011년 자료에 와서 ‘맑다’(4번)로 바뀌어 나타났다. ‘맑다’는 ‘·’를 가지던 방언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표준어형만 남은 예가 된다.

‘설다’, ‘좋다’, ‘춡다’, ‘크다’는 별다른 특징 없이 빈도수만 늘어난 어휘다.

‘설다’는 1983년 자료에서 ‘설다’(2번)가, 2011년 자료에서 ‘설다(4번)’가 출현했다.

‘좋다’ 역시 1983년 자료에서 ‘좋다’(11번)가, 2011년 자료에서 ‘좋다’(16번)로 빈도수가 증가했다.

‘춡다’는 1983년 자료에서 ‘춡다’(1번), 2011년 자료에서 ‘춡다’(2번)가 사용되었고, ‘크다’는 1983년 자료에서 ‘크다’(2번), 2011년 자료에서 ‘크다’(6번)가 나타났다.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빈도수가 같은 어휘들도 있다. ‘깊다’, ‘있다’, ‘춡다’가 이에 해당한다.

‘깊다’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깊다’(3번)가 출현하였다.

‘있다’는 제주도방언에서 ‘이시다, 잇다, 있다, 시다, 싯다’의 어형으로 나타나는 어휘다. ‘있다’의 이형태 중 하나인 ‘이시다’는 중세국어 ‘이시다’가 제주도방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제보자의 발화에서도 확인된다. ‘있다’는 두 자료 모두에서 112번 출현한 어휘지만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983년 자료에서는 ‘이시다’(73번), ‘잇다’(34번), ‘시다’(5번)로 사용되었는데 2011년 자료에서는 ‘있다’(76번), ‘이시다’(12번), ‘잇다’(23번), ‘시다’(1번)가 쓰였다. 1983년 자료에 비해 2011년 자료에서는 ‘이시다’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표준어형 ‘있다’가 새로 출현하며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에 와서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있다’가 방언형에서 표준어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Ⅲ. 언어 변이 요인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언어는 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청자와 화자의 친소관계는 물론 화자의 심리 상태도 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Ⅱ장에서는 30년이라는 실재시간의 거리를 통하여 음운, 문법소, 어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언형은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된 반면 표준어형이 힘을 얻어 출현 빈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언어 변이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외부적인 요인

언어는 의사 전달의 기능과 사회·상징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sup>37)</sup>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달하려는 정보뿐만 아니라 화자의 사회적 계층과 상대방과의 친소의 관계, 이야기의 목적 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연령, 성별, 사회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연령은 언어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언어 외적 요인 중에 하나이다.<sup>38)</sup> 사회언어학에서는 사람들의 말투가 중년기가 지나면 비표준형 사용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sup>39)</sup>이라고 말해 왔다. 정년이 되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압력에서도 그만큼 벗어나게 되면 표준어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성별은 곧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남성이 방언형

37)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260쪽.

38) 박경래, 「연령과 언어 변이」, 『새국어생활』 제14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04.

39)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143쪽.

을 즐겨 쓴다면 여성은 표준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표준어형을 많이 쓴다. 나아가 금기어에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상황은 청자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격식의 말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상 어투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농부로서 동네 사람들과의 이야기할 때와 한문 선생님으로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말투가 다르게 마련이다.

제보자 오문복은 1938년생으로 『제주설화집성』(1) 조사 당시는 46세였는데, 실재시간의 거리를 두고 조사한 2011년에는 73세였다. 연령이 높아졌으므로 제보자의 구술 발화 속에는 방언형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회언어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왜 제보자의 언어에서 표준어형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일까?

그 첫째는 표준어 사용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3년 조사 당시 제보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산읍 신평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배웠고, 성장하여서는 아버지를 따라 육지로 나가 신학문을 배웠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신학문을 계속할 수 없었고, 또 고집 때문에 한학에 대한 열의를 버리지 않았다.

한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자연 유학에 뜻을 두게 되었다. 20대 후반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이 고장 향교에 다니면서 여러 유학들과 고향의 유학 발전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 만나는 사람마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전설과 민요, 그리고 유형문화재까지도 남다른 인식과 애착을 갖게 되었다.

요즈음에는 한학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드높아져 가는 추세이므로 여러 곳에서 한학 강독도 맡는다.<sup>40)</sup>

이 제보자 정보에 따르면, ‘신학문’, ‘한학 강독’ 등의 어구에서 제보자가 표준어에 노출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자는 『제주설화집성』(1)이 발간된 1985년 이후는 한문 원문 번역과 저술 활동<sup>41)</sup>, 『월간 관광제주』 발행 겸 편집인

40) 김영돈·현용준·현길인, 위의 책, 1018쪽.

41) 저술로 『탐라시선』(2006), 『영주풍아』(2006), 『한시선』(2004), 『영주십경』(2004), 『화제를 위한 한시선』(1998), 『영물시선』(1996) 등이 있다.

(1986년~1987년), 방송 출연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제보자의 언어는 급격하게 표준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거주지 변화이다. 1983년 조사 당시 제보자는 고향인 성산읍 신흥리가 거주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편집장 일 등으로 제주시 출입이 빈번해지고 이후 여러 곳에서 ‘한학 강독’ 수업이 많아져 이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제주시에도 거주지를 마련하여, 일주일 중에 받은 고향 신흥리에 거주하고 나머지 받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언어 접촉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언 조사를 할 때 우리는 노년층이 많고 인구가 적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고립된 곳일수록 언어 변이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신흥리와 제주시 두 곳에 거주지를 마련함으로써 외부와의 언어 접촉이 빈번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표준어 지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는 제보자가 한문 교육에 힘쓴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한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강사,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한국 교육에서 교수 화법을 위해 교사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구적 조건에는 표준어 사용이 있다. 곧 교사의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다음에서 이주행의 『교사 화법의 이론과 실제』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교사 언어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사의 표준어 사용 능력이 낮아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의 언어 상황은 좀 특이하다. 제주도 말은 사실 표준어와 매우 다르므로 방언을 사용해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반면에 관광 등의 이유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 다른 방언권 사람들과 접촉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런 이유로 제주 지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표준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sup>42)</sup>

우리나라는 ‘표준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공통의 대표말을 표준화하고 단일화를 유도해 왔다. 이는 짧게는 지난 1988년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표준어 교육을 철저히 해 왔다. 제

42) 이주행, 『교사 화법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3, 11쪽.

주도말이 표준어와 달라 다른 지역보다 어렸을 때부터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 한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어에 익숙해지고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보자의 언어 변이 요인의 하나라고 보인다.

## 2. 내부적인 요인

언어 변이 요인은 외부적인 데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요인을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어 접촉에 따라 바깥으로부터 밀려들어 오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개인의 심리 상태가 개인의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화자의 ‘언어 수용 태도’가 일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외부 언어에 대한 개인의 ‘언어 수용 태도’는 대상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적극적, 양보의 태도로 나누어 반응하게 된다.<sup>43)</sup> 화자의 심리 상태가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보자는 앞서 언어 변이의 외부적인 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준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표준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다. 제보자는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표준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표준어를 지향하는 매체와의 접촉이 잦았다. 제보자의 언어 수용 태도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대에 대해서 양보하고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상대에게 표준어형을 맞춰준 것이다. II장에서 살핀 음운, 문법소, 어휘의 변이 양상의 결과로 제보자의 발화에서 방언형의 자리에 점차적으로 표준어형이 교체되어 가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제보자는 한문 교육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출판사를 드나들 때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기반 언어인 제주도방언을 줄이고 표준어로 발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제보자가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만날 때는 더더욱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제보자의 언어에서 제주도방언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이의 과정에 놓인 내부적인 요인의 하나는 제보자의 언어 수용 태도가 표준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 연구는 30년이라는 실제시간을 거치는 동안 동일 제보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설화를 조사, 채록하여 언어 변이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동일 설화를 구술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하는 설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

43) 강정희, 『제주방언 형태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5, 22쪽.

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처한 말하기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연구의 제보자 오문복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설화의 내용이 1983년 조사 시와 2011년 조사 시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는 2011년에 와서 1983년보다 그 내용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서론에서 <표 1> 2011년 조사 설화 목록을 제시하여 구술 발화 내용의 증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1년 자료에 와서 1983년 자료보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음을 연결어미 ‘-는데, ㄴ데: -는디, -디’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보자의 어휘가 2011년에 와서 달라졌음은 물론이다. 기초 어휘를 통해 제보자의 발화에서 어휘의 변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간, 동·식물, 수량 어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2011년 어휘의 빈도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보자가 1983년 설화를 구술할 때 사용했던 어휘들을 2011년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연구자는 제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설화는 제외하고 조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기억하고 있는 설화의 내용들과 문장, 어휘는 달라졌다.

결국 제보자의 언어 변이가 일어난 내부적인 요인의 두 번째는 제보자의 기억이 달라진 데에서 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 IV. 결론

이 연구는 제주도방언의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을 살피고 그 변이 요인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I 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언어 변화는 사회적 배경과 그 복잡성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를 진행 중에 있는 변화의 관찰에 기초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어 변화 연구는 대다수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세대별 구어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언어 변화의 결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방언 연구에서 ‘실재시간’(real time)이란 언어의 변이나 변화를 관찰할 때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정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변이나 변화를 관찰할 때의 시간적 거리를 말한다.

언어에 대한 ‘실재시간’ 조사, 연구는 예컨대 30년 동안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진행된 언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30년을 기다리고, 30년 동안 시간이 흐른 뒤 예전의 동일한 조사 지역, 동일한 조사 방법,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예전의 조사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와 제약이 작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었다.

이 연구는 실재시간 조사, 연구 방법을 택하여 30년 동안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개인의 구술 발화를 동일 지점, 동일 환경, 동일 제보자를 통해 현장 조사 방법을 취하고 실재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어의 변이 양상과 그 변이의 요인을 밝히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와 함께 1985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설화집성』(1)을 원용하였다. 『제주설화집성』(1)은 제보자 오문복(吳文福)(1938년생·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신흥리)의 구술 설화 19편과 연구자가 2011년 동일 제보자에게서 채록한 설화 19편만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조사는 실제시간 경과에 따른 언어 변이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구술 자료들은 1983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어절 단위로 재정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상 자료를 계량 처리하여 분석, 해석하는 통계적 방법은 언어 변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일반화시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II장에서는 『제주설화집성』(1)의 19편의 설화와 2011년 연구자가 재조사한 19편의 설화를 음운, 문법소, 어휘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음운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 그 변이 양상을 보려 하였다. 모음은 ‘·’, ‘…’, 그 외의 모음 변이 양상을 살폈다. ‘·’는 ‘·>ㅏ’, ‘·>ㅓ>ㅕ’, ‘·>ㅓ’로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는 1983년 자료에서 ‘…’가 들어간 단어가 총 17번 사용되던 것이 2011년 자료에 와서는 단 1번만 나타나 3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소실되었거나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의 모음의 변이 양상에서는 복모음 ‘웨’로 발음되는 방언형 ‘웨기’가 표준어형 ‘고기’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음은 제보자의 언어에 남아 있는 ㄱ-구개음화 현상과, ㅎ-구개음화 현상의 변이 양상을 확인하였다. ㄱ-구개음화 현상은 어휘 ‘길: 질’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 모두 ㄱ-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ㄱ-구개음화는 제보자의 발화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ㅎ-구개음화 현상은 어휘 ‘힘: 심’과 ‘형제: 성제’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ㅎ-구개음화 현상은 제보자가 30년의 시간동안 ‘ㅎ’과 ‘ㅅ’을 교체하며 사용하다 더 이상 구개음화된 ‘ㅅ’을 실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문법소는 조사와 어미의 변이 양상을 보았다. 조사는 격조사 ‘한테, 에게: 안티’, ‘ㄹ라, 고라’, ‘신디’, 보조사 ‘부터: 부떠’, 보조사 ‘까지: ㄱ지, ㄱ장’, 종결보조사 ‘마씀’과 ‘-게’의 항을 두고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를 비교하며 변이 양상을 살폈다. 조사인 경우 대체적으로 방언형이 쓰이던 자리에 표준어형이 대

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어미인 경우는 전체적인 빈도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보자의 언어 변화가 생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인다. 어미의 변이 양상에서는 연결어미 ‘-라고, -고: -이엔, -엔, -이엿, -엿’과 연결어미 ‘-는데, -데: -는디, -디’의 쓰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문법소들과 마찬가지로 두 연결어미 모두에서 방언형이 점점 사라지고 표준어형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어휘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보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종학(2001)이 『한국어 기초어휘론』에서 분류한 한국어 기초어휘에 따라 제보자가 구술한 두 자료를 비교해 보였다.

기초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11개 항목 신체(17개), 친족(6개), 천문(3개), 지리(16개), 의·식·주(6개), 공간(9개), 시간(7개), 동·식물(2개), 수량(6개), 대명사(5개), 기타(6개), 동사(79개), 형용사(21개) 어휘를 추출, 각각의 출현 빈도수를 계량화하여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에서의 쓰임을 비교,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1개 항목 중 시간, 동·식물, 수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에서 어휘의 출현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휘의 방언형은 대체로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된 반면 표준어형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 알게 되었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언어 변이 양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요인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보자는 표준어 사용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 제보자는 1985년 『제주설화집성』(1) 발간 이후로 한문 원문 번역과 저술 활동, 잡지 발행 겸 편집인의 활동, 방송 출연 등을 하면서 표준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1990년대에 거주지를 두 곳에 마련하면서 외부와의 언어 접촉이 빈번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보자의 언어는 표준어 지향으로 이어졌다. 제보자는 한문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다.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에게 한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어에 익숙해지고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제보자의 언어 변이의 요인의 하나였다.

제보자는 1983년 조사 당시 46세였는데, 실제시간의 거리를 두고 조사한 2011년에는 73세였다. 연령이 높아졌으므로 제보자의 구술 발화 속에는 방언형

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회언어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물론 제보자의 언어에서 방언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다. 중세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형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보자가 표준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표준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제보자의 발화에서 방언형은 많이 사라지고 표준어형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제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설화는 제외하고 조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기억하고 있는 설화의 내용들과 문장, 어휘는 달라졌다. 결국 제보자의 언어 변이가 일어난 내부적인 요인의 또 다른 하나는 제보자의 기억이 달라진 데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언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그 사용 지역이 다름에 따라 분열·분파되어 나가고, 생성·사멸하여 나가는 것<sup>44)</sup>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제주도방언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 젊은 세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사용하던 단어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이 제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이 언어가 더 변화하기 전에 조사, 정리해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실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강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44)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1985, 279쪽.

<참고 문헌>

- 강영봉, 『제주의 언어』1,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4.
- 강영봉,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5.
- 강영봉, 『제주의 언어』2,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7.
- 강영봉,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학회, 2000.
- 강영봉,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2010.
-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88.
- 강정희,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5.
- 강정희,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방언학』 제10호, 한국언어학회, 2009.
- 고동호, 「제주 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65집, 한국언어학회, 2008.
- 김미진, 「제주도방언의 ‘ㅎ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순자, 「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용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완진,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1971.
- 김종학, 『한국어 기초어휘론』, 박이정, 2003.
- 김태곤,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2008.
- 문순덕, 『제주방언 문법 연구』, 세림, 2003.
- 문순덕,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제21집, 영주어문학회, 2011.

- 박경래, 「연령과 언어 변이」, 『새국어생활』 제14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04.
-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1960.
- 방언연구회,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1.
-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 석주명,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 성낙수,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2.
- 성낙수, 『우리말 방언학』, 한국문화사, 1993.
- 송상조,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 이기문,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 이상규,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6.
- 이상규 윤희, 『방언연구방법론』, 형설출판사, 1998.
- 이상규, 『국어방언학』, 학연사, 2004.
- 이승녕,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85.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 이주행, 『교사 화법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3.
- 전정례, 『언어변화이론』, 박이정, 2005.
- 정승철,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1995.
- 최안나, 「표준어와 제주 방언의 시간 부사 유의어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대영,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1983.
-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1985.
- 현평효 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 岩波書店, 1944.
- Chambers, J. K. , Sociolinguistic theory,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2003.
- Weinreich, U., W. Labov and M.I. Herzog, “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in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95-195, ed. Lehman, W. and Y. Malkiel, Austin &  
London: Univ. of Texas Press, 1968.

<부록>

\* 1983년 자료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가 발간한 『제주설화집성』(1)의 내용으로 손톱뿔음 속에 현대어와 각주로 설명한 뜻, 한자어 등은 제외하여 원문 그대로 실었다.

\* 1983년 자료, 2011년 자료 모두 조사자의 질문 내용은 신지 않았다.

1. 용궁올레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옛날 신평리에 살았던 어느 송씨 해녀가 바다에서 무자맥질하며 전복을 캐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용궁에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이다. 그 후로 그곳을 금기시하여 ‘용궁올레’라고 하는데, 이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뜻이다.</p>   |  |
| <p>아까 곶은 신천리에서 요쪽으로 오며는 ‘용머리’엔 흔디가 이수다. 용머리엔 흔 디가 잇는디 경치도 좃주.</p> <p>그 신천리 동네에서 쑥 동으로 오며는 바닷가, 돌덜 아주 경치 존 디가 용머리우다.</p> <p>신천리호고 신평리 경계. 원 지적도로는 신평리고.</p> <p>거기 용머리엔 흔 디 당도 이십주, 용머리당이라고 해서. 거기는 당이 이신디, 보통 거, 뭐 ‘알당’이엔도 흥곡, 것도 뭐 토산당 일종이우다. 토산당이 물에서 온 때문에 그 바당으로 강 받아 잡수곡, 또 시방 우리 동네 당, 개로육서안티 시집 온 다문에 또 우으로 왕도 어른으로 반양 잡수곡 흥는 당인디, 거기는 용머리가 남해용궁 대문이라마쑤. 경흥니까 비 아니 온 때는 향교에서 옛날엔 기우제도 거기 가서 지내수다.</p> <p>이제 거기는 그렇게 흔디, 그 영바깳디서 봐도 그 앞이 바다가 쪽흥게, 길게, 파랑게 보입니다 뭐. 쪽흥게 이치룩 흥, 이런 베 깔아 논 거 모양으로 쪽흥게 일직선으로 길게, 파랑게 보입니다.</p> <p>아주 기암케석덜 뭐, 시에 용두암 모양으로 그런 거시집주.</p> | <p>에, 용궁올레 있어.</p> <p>아, 이제 우리 바로 여기 밑에 바다에 그 용궁올레가 잇는데 그게 옛날부터 남해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헌데 이제 그기는 우리는 해녀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 보……. 봐서 건 몰르주마는.</p> <p>이제 그 요즘 이제 해녀, 옛날엔 줌수. 줌수들은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 제주도 집 들어가는 올레ㄴ치룩 그 돌이 쪽 이제 세워져 잇는데 그 이제, 유독이 그 중간에는 물이 파랑고, 깊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p> <p>남해 용궁이라고 그래서 대개 그리들 피해서 줌수들도 거기를 안 탕기는데.</p> <p>옛날에 이제 우리 마을에 송씨 성을 가진 이제 줌수가 잇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웨정 시대 전에는 우리 마을에는 우리 해녀가, 줌수가 벨로 없으니까는 그때는 이제 양반 벌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집에 만 송씨 그 메느리가 잇었는데 줌수질허레 간에 이제 그 용궁올레ㄴ지는 안 가고, 그 버뜩이에 간 보난 그 용궁올레 안에 큰 전복이 부떠시난에 이 사름이, 욱심이 이젠 그걸 내불 욱심이 엇언에 얼른 그걸 때레</p> |

경헌디, 이제 그 서쪽에 가민 바위 일름  
덜이 다 이십네다. ‘칼선드리’·‘창곰돌’이  
잇는디, 창곰들은 남해용궁으로 뭐 들어가  
카부덴 남해용궁 쫓벙덜이 파수 보는 창곰  
돌이고, 용머리엔 흐 딘 보통 ‘용머리’엔도  
헝곡, ‘용궁올레’엔도 흡네다. 올레 올레.  
올레엔 흐 건 제주도 말로 올렘주게.

예. 켜디 거기 전체가 용머리고, 용궁올  
레엔 흐민 시방 나가 곶은 물 한가운디로  
보민, 파랑게, 쪽하게 보이는 것이 용궁올  
레라마썸.

경헌디, 거기는, 이제 그 해너덜이 요사  
이는 무서왕 잘 안 갑니다. 옛날도 안 가는  
디, 물이 좀 기프고, 그 물 속에 양쪽에가,  
절벽바위가 경치가 존 모양이라마썸.

속에서. 경해서 이젠 물이 좀 기프고, 경  
흐난 거기는 해너덜이 무서왕 잘 안 갑니  
다. 안 가는 때문에 뭐 전복 ㄴ쁜 것도 팽  
장히 만혀마썸.

옛날에 어때서 거기가 남해용궁인 것을  
아나 흐며는, 이제는 우리 동네에, 신평리  
예 송씨 성을 가진 즈수가 하나 잇었던 모  
양이라마썸. ‘송택이, 송택이’ 흐는디, 송택  
이가 아주 물질을 잘해여마썸, 뜬 사름보  
다. 경히고 용감하고. 뜬 사름덜은 거길 강  
못 잡아 오는디 흐 망사리씩 막 잡아옵니  
다.

잡아오는디, 아, 흐번은 팽장히 큰 전복  
이 있어네, 이젠, 경헌디 즈수덜은 대개 ‘저  
정도 기프며는 나가 들어강 이걸 잡앙 와  
질 것이라’ 흐 것을 짐작을 흡주게.

경 생각을 했는디, 좀 기퍼서 숨이 좀 모  
자랄 거 ㄴ타 베여도, 하도 그 전복이 큰  
따문에 그것에 욕심을 내여 가지고 그냥  
들어간 전복에 빗창을 콕 찔르난, 그만 정  
신이 아찔해 부러다 말이우다.

아찔해 분디, 그 다음에는 햇빛이 뭐 과  
랑과랑 나고 강생이가 왕왕왕 주꾸고 흐다  
말이여. 아, 경해연 영 보니까는 아주 기냥

들어가신디 그만 꼼빱 정신을 일러부렸어.

아 게, 일러부런, 자기도 정신을 일른 줄  
모른디 갑자기 그냥 앞이 흰허게 붉아지고,  
거 이제, 강생이 흐 마리가 나완 끌랑지를  
홍글홍글했어. 꼭 그 말은 안 해도 강생이  
그 끌랑지 홍글홍글 허는 것이 따라오렌  
허는 거 그런 것 답안 줄줄 따라가난 막  
화려한 기와집이 나오고 성문이 나오고 현  
디 그거 막 창 가지고, 활 가지고 흐 군사  
들이 나와 가지고,

“어딧 백성이 버릇없이 여기를 왔느냐”  
고,

“아이고 나는 지금 그 어느 동네 사는  
즘순디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저  
몰르쿠덴.” 하난에,

“여기가 남해 용궁인디 그 이제 인간세  
상 사름은 오질 안 허는디 철엇는 백성이  
여기 들어왔다”고.

잡안 들어간 거기 높은 어른한테 가서,  
“하, 이 사람, 이리 저리해서 여기를 들  
어왔다.”고 허니까,

이제 그 해너가,

“나 이제 팔십 난 부모님 계시고, 즘식잇  
고 이제 해서 나가 어시른 우리 식구들 못  
사니까 나가 몰란 들어와신디 살려줍센.”

손 붙들영 막 비난에. 비난에, 비난에 철  
몰란 들어온 백성이난에 그 문시에 치부해  
불지 말아근에 내보내불렌, 내보내주렌.

계난 또 이젠 창 든 병정들이 데리고 나  
완에 그 강생일 앞세완 가렌 헨 탁, 거기서  
는 가렌 허멍 등을 탁 쳤는디 그 세에 딱  
깨난 보난 이제 이녁이 물 위에 동동 떠전  
계난 죽언에 그 용궁 올레에 갖당 온 거라.

경 행 이제 그 전복은 못 잡앗주마는 돌  
아완에 그 뒤에부떠는 이제,

“그디가 이제는 용궁올레따문에 아무나  
그딘 가문 안 된다.”

행 지금ㄴ정도 즘수들이 거기는 안 다니  
고 아니, 바다는 거주마는 가까이는 안 가

별천지가 거기 나타나. 강생이가 막 주꾸는디, 오랜 흐는 것 모양으로 끌레이를 흔직 흔직 흔직흔난, 아, 이제 그 즈수가, 이제는 강생일 쪼찬, 이젠 짝 들어가 보니까 뭐 겁나게,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잘 출린 사름덜도 멩기고, 거 집이나 뭐나 세상 난 보지 못흔 좋은 집, 좋은 누각 아주 기냥 찬란해서마썸.

경해서 이제는,

‘하, 이런 세상이 또 이신가?’ 해서 생각을 흐는디, 아, 이시니까, 어떤 잘 출린 여자 분네가 와 가지고는,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고.

“난 정의고를 상천미 -옛날은 우리 므을 보고 상천미엔 흡네다. 상천미에서 사는디, 물질흐레 완 전복 떼다네정신이 아찔했는디, 나가 여길 들어와졌젠.”

“하, 당신. 여기는 남해용궁이라서 세상 사름은 들어오질 못흔는 딘디, 아, 거, 이제는 더군다나 여자가 들어와서는 남해용궁을 부정시켜서 우리 용왕이 알며는 당장 죽여 똥 당신 집의 돌아가지 못홀 건디, 큰 일이다.”고,

“나가 큰 인심을 썩 보내 줄 테니까는 요 길로 해서 흐저 집일 갑센.”고.

아, 경해서, 이제는 고맙던 해서, 이제는 경흐면서 그 사름이 흐는 얘기가,

“일로 해서 가긴 가뉘 절대 뒤터레랑 돌아보지 말앙 갑센.”

해도, 아, 이 즈수가 원 하도 보구정만 해네 뒤터레 영 쳐다보니까, 세상이 기냥 갑자기 콧 어둑어져 부는 거라.

어둑어졌더니만, 또 흐끔 이시니까 좀 세상이 붉아진 디 보니까, 그 때는, 그, 아마 그 남해용궁 지키는 수문장, 문직이 앞의가 가지고는,

“아, 너가 이거 어디라고 감히 세상 백성이 여길 왔느냐?”고.

아, 그래서 이 사름은 어떻 흘 줄을 몰라

고.

또 날씨가 좋은 날은 육지에서 보면은 물이 길게 파란 것이 베려지주. 베려지주.

거기가 용궁올레라고, 그 이제 용궁올레가 있는 쪽 바다보고 보통 이 동네에서는 용므루.

용용 자가 부터서.

아니, 여기 바로 이 밑에.

서,

“아이고, 물질하레 천흔 백성이라 그자 전복 때레 왔단 그것만 욕심내단 보니까 우연이 저가 들어완, 춤말로 살려만 주십센.”

“나가 이제 집의 늙은 부모님도 잇고 혼디, 나가 이제 돌아가지 못하며는 늙은 부모가 살지 못흐네덴.”

“늙은 부모가 뭇 설이나 웨느냐?”

“아, 우리 씨어머님은 으든 설이고, 우리 씨아바님은 아흔 설이고 영해서 나가 엇이민 살지 못흐니다.”

아, 거, 이제 수문장인가 혼 그 사름이,

“아, 그거 흐주마는 여기 거시기로는 혼 번 들어오면 세상 사름이 나가지를 못흐고, 여기는 세상 부정흐 사름은 들어오지를 못흐는디, 남해 용궁을 와, 다 부정을 시켜 부니까 춤말로 살려 돌려 보내는 법은 없는디, 아, 거, 늙은 부모가 경헛젠 흐니까 행편이 난처해서…. 나도 집에 늙은 부모가 잇는디 이거 어떻게…….”

아, 경흐면서 그 율의 아진 사름흐고 꿇속말로 뭐 소곤소곤하더니마는 아마 돌려 보내도록 조치를 혼 모양이라마썸.

흐끔 시니까 그 문저 갈 때 그 강아지가, 울엇던 개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는, 또 이제는 풀랑질 흥글흥글흐면서 오랜 흐는 시늉흐듯 흐니까, 아, 그 꺾 졸졸졸졸 조차완, 나완 보니까, 그 이제는 용궁올레를 나와져서마썸.

경해연 집의 와네 그 때부떠 이디가 용궁이라 혼 것이 세상사름덜안티 알려져십주, 그 사름이 간 받 와 가지고 흐니.

건 용궁올레 그 문이고, 그 율의, 이제 ‘칼선드리’엔 혼 돌이 이수다. 칼 모양으로 바탕으로 썩 나온, 길게, 아마 혼 십여 미타 켈 거라마썸.

예. 칼꺾치 길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남해용궁에서 보통 이 세상 사름이 거

|  |  |
|--|--|
| <p>기 들어가며는 부정하니까, 신선구신덜만 사는 디난, 들어오지 말랜 해연 칼로 막아논 거옌 흠네다.<br/>예. 바위가 칼 모양으로 생겨서.</p> |  |
|--|--|

## 2.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제주도 거인 설화의 한 주인공인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어떤 자연물에 맞게 변형되어 섬 사람들의 한계성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구술한 설화에서는 ‘설문대하르방’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문대 거인 부부가 배가 고프자 성기로 바다의 고기들을 휘몰이하여 잡아서 주린 배를 채웠었다는 간단한 이야기이다.</p>   |  |
| <p>ㄱ만 잇자, 설문대할망, 성산면엿 것은 설문대 할망 때에 설문대할망만이 혼 하르방도 잇엇던 모양이라마썸. 설문대할망 시절에는. 큰 할망이 이시니까 하르방도 잇어사 혼 겹주게.</p> <p>경하니, 얼마나 컷던지는 몰라도, 하도 커 부니까, 이제는 그 뭐 완도ㄱ장 드리 놔주크메 속옷 하나 해 주랜 헛댄 안흠니까?</p> <p>거, 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반찬을 당할 수가 없고 해서, 아, 흠들은 배 고프서 설문대할망하고 설문대하르방하고 앉아서,</p> <p>“아, 이거 우리가 배가 고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무시겘 먹영 살 것이냐?” 하니, 하르방이,</p> <p>“ㄱ만 셔 봐. 오닐은 좋은 수가 있어. 할망이라그네 저 방뒤 ‘섭지코지 가네 속옷 벗어뒤그네 거기 ㄱ만이 들어앗앙 가달 별경 있어.”</p> <p>예. ‘섭지코지’엔 혼 디 잇수다.<br/>신양리.</p> <p>아, 경하니까, 할망은 속옷 벗어두고, 이제는 그 ‘섭지코지’ 앞의 물에 가네 가달 별경 ㄱ만이 앓곡, 하르방은 저 하도 아래 소섬 둥어귀, -그 소섬하고 성산 새예 물질</p> | <p>아 이제, 설문대 하르방은 설문대 하르방이 아니고 저기 저, 방뒤 이제 섭지코지, 섭지코지, 섭지코지 허는디 그 원래가 설문대 하르방 코진디. 그냥 쭈게 섭지코지, 섭지코지 허는 거라.</p> <p>겨난 이 세상에 모든 건 전부 다 남자가 생겨나든 여자 생겨나고, 낮이 이시든 밤이 잇곡, 정 반대, 반대되는 것이 하나 더 잇게 마련이주. 잠깐. (전화 통화)</p> <p>응. 거. 설문대할망은게. 몸뚱이가 큰 할망 아니라게. 우리 제주도 백성 내뵙 속곳 하나 해 주민 드릴놔주켄 해도 그걸 우리 제주도 백성이 다 못 완 속곳 하날 못 멩글아내난 막 몸뚱이가 큰 할망인디.</p> <p>섭지하르방도, 그 설피하르방도 몸뚱이가 그 할망 남편될 만허게 큰 하르방이주.</p> <p>경 현디 몸뚱이가 커노난 설문대할망도 양식 부족 행 밥 굶영 살고, 쟁 그 하르방도 쟁 커노난, 처 먹어노난 밥 굶영 살곡 현디.</p> <p>이제 어뎡하당 하르방, 할망이 만났어. ㄱ튼끼리 만났어.</p> <p>“야, 우리가 굶지 안 행 살아보게.”</p> <p>헨에 이제 쟁 행 생각헨 것이 농살지영</p> |

이 아주 썩썩. 고기도 많곡, 경흔 모양입데다. -소섬 동어귀로 가서는 조쟁이를 꺼떡 꺼떡하게 해 가지고는 바당을 막 조쟁이로 가니까 그놈의 고기를 막 쪼츠니까, 그 할망은 가달 떡 별경 앓이니까 그 할망 하문 더레 퀘기덜이 그만 문딱 와르르하게 들어 가난 꼭 중간 나오란.

“그거 이제랑 파 놔.”

해네, 파 놔네 흐루는 퀘기 잡아서 요기 햇쨌 흡네다.

거기 방뒤 ‘섬지코지’가, 이제 어떤 사람 덜은 우시게로 흐쟁 흐민 ‘설문대코지’영도 흡네다.

경흔 겁주게.

암만 헛자, 두 벨 채울 수가 어시난 바당에 콩겏도 하난에 퀘길 잡앙 먹어근영 살겐 행.

경 행 이제 그 섬지할망그라 이제 성산 허곡, 저쪽 쉼섬. 그 이제 중간에 딱 강 앓 앙 치메 폐와근영 앓앙 이시민 이젠 그 하르방은 이쪽 이거 섬지코지에서부터 바당에 퀘기들을 몰아근에 잡아당 먹겐헨에.

경 헨에 이제 그 할망은 그 성산허고, 쉼섬 중간에 강 버텨 앓앙 치마 별경 앓안에 흔착 발은 지금 소섬, 뭇 주간맹굴이라고 흔 굴이신디 딱 버티고, 흔착 발은 지금 성산오름 거기 성산, 저기 옷이엔 현디 가면은 성산일출봉 해난 오름이 납작해여. 그것 이 그 설문대 할망이 발을 딱 디더부난 그 게 납작해진 거라.

겐, 겐, 그디 이제 치마 폐완에 앓으난에 그 하르방은 이젠 섬지코지에서부터 이제 양근으로 이레저레 물을 저서가난 퀘기들이 겁난 하트행 그만 그 소섬하고 성산 세트레 다 모여드난 치메트레 모여드난 확 건저넨에 성산 오목교에서 몰류왕 먹영 살 앓주게.

겐디 섬지코지 강 보면은 그 앞에 돌기둥이 서귀포 외돌개 모양으로 잇어.

그거 이제 그 하르방 그 보통 때 아정텅 기던 지행인디 물 우에 들어강 딱 꼽아부난에 꺾어지곡, 꺾어지곡 지금 굽텅이만 남은 거고, 또 이제 그 저끄티보면은 돌이라도 똑 강생이 도가리 닮은 돌이 잇어. 입도 딱 벌리고, 그것도 그 설피하르방 들앙 텅 기던 강생인디 그만 그 하르방 그 물에 들어가명 그거 헤부난 시방도 그 하르방 돌아오카부덴 그 강생이도 그디 딱 부텅 이신 거주.

게난 그 하르방은 퀘기 먹영 어디사 가 벼신지 거, 그디 거, 소문 없곡, 할망이영 흔 때 먹언 어디 가부런, 나쁜 하르방이주.

### 3. 당팻당장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당팻당장은 한 끼니에 쌀 서 말 어치의 밥을 먹어야 하는 대식가이다.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무서운 통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서 팔거나, ‘남방애’를 만들어 준 값으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아간다. 이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지, 어느 날 누이동생네 집에 가서 일부러 난간 위에 털석 주저앉는다. 부러뜨려야 일거리가 생겨 끼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부러뜨린 난간을 고쳐 준 값으로 밥을 얻어 먹는 등,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 나간다.</p>  |  |
| <p>그 다음에 힘 쨌 사람은, 저 토산 당팻당장.</p> <p>그 분네는 뭐 들은 말이지마는 과히 키가 크거나 경은 안하고 몸은 뚱뚱하고 혼디 몸뚱이만 도라무팡 모양으로 컷던 모양이라마썸.</p> <p>게서, 먹는 것도 혼번에 혼, 그자 세 말 정도로-말이, 옛날 말이 지금보단 좀 죽앗수다.-혼 끼예 서 말 정도는 거뜰하게 먹고, 힘도 쨌장이 쨌고 이렇게 혼디, 이렇게 먹는 걸 많이 먹어 부니까 경 힘 쨌도 밥을 굶을 정도라, 가난해서.</p> <p>밥을 많이 먹어서, 세 말을 혼 때에 먹어 부니까 하루민 아홉 말을 먹어야 돼는디, 또 힘 쨌서 일은 쨌장이 혼긴 해도…….</p> <p>경혼니까, 이 분네는 대개 뒷을 해연 밥벌이했느냐 혼며는, 그냥 그 곳이 가서 낭 비어다그네 집 짓엉 폴양……. 낭도 삼간칩 혼 거리 서릿낭을 혼번에 강 혼짐에 지영 와 불곡.</p> <p>그 옛날엔 집 짓젠 혼민 곳이 가서 낭을 시꺼울 때, 동네 쨌덜을 동원 혼네다게. 건 뒷 무료로 다 빌려 줘주게.</p> <p>빌려 주는디, 이 사람은 매해에 집 짓엉 폴양 걸로 밥 얻엉 먹으니까 매해에 ‘쨌 빌립서, 쨌 빌립서’ 혼니까, 동넛 인심으로 쨌는 안 빌려 줄 수가 없고, 아, 경혼디 매해에 집낭 시끄레, 그 집의 낭만 시끄레 가는 것도 아니고 땀 디도 잇곡혼단 보니까 아,</p> | <p>아 당팻당장이는, 토산, 건 실지로 이섯던 하르방.</p> <p>웨정 초에까지 살앗던 하르방. 심이 아주 쨌여. 광산 김 쨌디 그렇게 체격이 크건 허진 안 혀고.</p> <p>그 하르방 손자를 우리가 만나난에 실지로. 심이 쨌디.</p> <p>게난 놈 먹는 거 혼 세 사람분이나 먹어 사 배를 채우난 옛날엔 그 양식이 부족헌 때난게. 농사를 아멩 짓곡 헤 봐도 좀 그, 세 사람분을 먹으난에 그걸 당할 수가 어시난.</p> <p>헌디 이 하르방은 뻗도 하지 안 혀고 허난 뒷을 헤시냐면은 산에 가근엔 낭 비어 당은에, 집 짓어근에 그걸 폴아근에, 그걸 폴양 이제 살곡, 또 이제 옛날에는 그저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은 다 엇어젓주마는 쓸도 뻗곡, ㄱ루도 뻗곡혼는 하는 방에. 그거 그 나무가 막 큰 걸 잘라야 방에를 멩글지. 옹지.</p> <p>그거 멩글양 폴아근엔 이제는 먹고 영헨디, 거 아멩헤도 양식이 부족헌 혀고 허난 어떤 땀 아주 뒷헌 땀 조금 줌, 줌, 아는 집의는 가서 줌, 줌, 뒷, 구걸은 아니지마는, 줌, 그 땀 걸 동녕바치엔 혼는디, 그 실지 동녕바치는 아니라도 줌 그런 걸 많이 헨주.</p> <p>혼 번은 베가 고편에 이젠 헌디, 쓸은 없고 허난에. 누님네가 혼쨌 잘 살아. 누님네</p> |

이거, 쉼덜 공신해서 원 도저히 거시기할 수가 없어서 흐루는, 그 당팻당장은 광산김 칩이우다. 살기는 경주 김씨 칩의 얹혀서 살고.

흐루는, 이제 동네 사름덜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부떠라그네 집 짓이켤 쉼 빌리렌 흐거든 삼년 안네 집 짓영 또 삼년 안네 집 짓인 사름안티 빌려 주지 말기로 결의해 가지고 빌려주지 말자고 약속을 해서 마썸.

“아, 경흐자.”

해서, 이제는 상회를 해 가지고는 다음부 떠는 삼년 안네 집 짓어똥 또 삼년 안네 집 짓인 사름안티 우리 동네서 쉼 빌려 주지 아니한다 결의해 놓안, 이젠 쉼 아니 빌려 주니까 아, 이 하르방이 심설로 꽃이 가서, 이제는 집낭을 비여서 서리만 흐 짐을 잔뜩 지어노니까, -집 흐 거리에 서리 흐 육십개 듭니다.- 그걸 흐 집에 지니 상당한 힘 아니꽂?

그걸 지언, 이제는 심설로 겹주게.

그걸 지어 가지고 윽으로 뎡겨야 담이 안 클어질 건디 뻘드시 지영 걸어뎡기명 담이, 양편짜 담이 살살 클어져 부려.

이 집이도 가서,

“나 이젠 집 짓는디 쉼 안 빌려 주켤 해 부난 밥 굶게 똤여네 나 토산 떠남수다. 잘 살암십서.”

저 집의 가서도 경흐곡 흐니까, 온 동네 담이 박박 다 클어정 집가지 문 부슬좌지 곡 흐난,

“아이고, 제발 저기 쉼 빌려 줘 벼사 흐 주 우리 살지 못흐켤.”

흐여네 이젠 그 쉼을 빌려 줘십주.

심히 쉼장이 쉼여마썸.

경흐고 흐번은 또 방애를, 꽃이 간 앓안 큰 낭을 비연 방애를 파는디, 산감이 봐 가지고는, 가서, 이제는,

“이런 큰 낭을 비여서, 이제는 방앨 팡

가 흐썰 잘 살아.

이제 누님네 집에 강은에 먹던 밥이라도 잇건 흐썰 줘센 허젠 헨. 이젠 간 보난에 누님이 어딜 나가젠 험서. 아 겨난, 밥줍센 허기가 미안헨 못헨주.

“하, 이거, 어떻흐코.”

하단에 일부러 옛날 우리 제주도 집이 난간이영 행 대문앞의 요기 이제 저 요판자로 놓잖애. 일부러 간 힘 냉 팍 앓아부난 그만, 그 마리가 탕 알로 느려 앓아볼거 아니라.

“아이고, 니 거 기운 쉼 호뎡 천천히 해주. 그걸 이제 경 모사부난 이거 어떻 행고청 살 거냐.”

“아따, 누님 갈 디 갑서. 나 저 거시기나 이제 고치쿠다.”

“야, 거 낭도 어신디 어떻행 고치느냐.”

“아, 걱정말앙 갈 디 갑서.”

“어떻행 고칠 티야.”

“아, 걱정말앙 강 뵙서. 강 뵙서. 뚫이나 어디 이시민.”

뚫을 찾으난 게문 어디강 낭 끼차단 허젠 험시카부텐. 그 누인 또 고치젠 허는디 밥은 안 헤줄 수가 잇어? 일당은 못 쥐도. 밥은 행취살 거 아니라게.

게난 흘 수 엇이

“그거 어떻 행 고쳐볼라.”

이렇게 헤사주. 이제 아이들도 넘어 씨러 지곡 허난애.

흐 번 이제 밥을 헤주젠 밥을 허난 그 주위에 큰 통나무를 그냥 깎안 네모 뻘똥허게 깎안 울렁 판자로 영 놓는 건디, 통나무 뻘똥허게 헤단 딱 뇌부난 다음엔 똤 무너질 리가 잇어. 통나무를 서너 네 개를 네모로 깎아네 그저 흐 두 시간씩. 게난,

“이만허민 누님, 문전 마리보단 좋수다.”

허난 경 허난 밥 안 헤줄 수 잇어? 그치 룩 행 밥을 얻어 먹영 사는디.

이제 그 집, 아까 말한 대로, 주로 업은

웨느냐?”

고, 잡아가켄 하니까, 업포눔으로, 빗살이  
뚝뚝 해 가니까 방애를 턱헝게시리 드가리  
에 쓰멍,

“잡아랑 가고대고 이 알려레 오랑 꺾  
앗앗당 잡앙잡서. 비 오랑 옷 젓영 안 뵈네  
다.”

하니까, 산감이 겁난 도저히 그 방애를  
드가리에 썩 영 앓아 부니까 것도 썩남 겁  
나네 원…….

예.

그 때도 산 직헝는 사름 잊어십주게.

원 배가 고프며는 별 수를 다 써.

자기네 누님네 집의 가서는, 난간에 앓이  
멍 슬째기 앓아야 웨는디 원채 심이 썩어  
노니까 일부러 ‘탕’헝게 앓이니까, 그만 난  
간이 탁헝게 꺼꺼져 분다 말이우다.

누이는,

“아이구! 오라방, 그 낭을 꺼꺼볼민 어떻  
홀 것과게?”

건 밥 먹젠 헝 거주, 어디 일홀 디 엇이  
니까.

“아따, 걱정헝지 말아그네 넬라그네 나  
저 조반이나 잘해영 헝곡 점심 쌍 놔두라,  
거 오랑 고폶 주켜게. 그거 거 거시기홀 거  
시냐?”

하니까, 그 밥 헝 때 서 발입주게. 점심  
짜민 으삿 말 아니짜? 또 일홀 분 즈냐꺾  
장 헝민 아홉 말 들어 불 거라 말이우다.

아, 경해도 홀 수 엇이 조반헝고 해 드리  
니까 산에 가서 좌우간헝고 얼마나 큰 낭  
을 베었는지 그 마리 놓곡 뭐 헝젠 통남으  
로 난간을 그자 탁헝게 노멍,

“무사 이만헝민 따시는 나 오랑 앓아도  
캐싸지지도 안홀 거고 좋지 안헝냐?”

그 분네가 심이 썩어수다.

당팃당장이라고.

만홀네다, 그 사름은 뭐.

조천을 뵈 일이 잊어서 앓는디, 그, 뭐,

이제 저 곳이 가근앵 그 낭을 끼차당 집을  
지어근에 그걸 풀앙 먹영 살앗는디.

옛날엔 이제 그 낭은 뭐 자기가 강 끼치  
곡 헝지마는 운반행 오는 것은 동네 소나  
몰이 강 운반해다 쥐야주게.

겐디 옛날엔 부주로 동네 집짓젠 허민  
안 반곡 다 일갓집이나 다 나강 그 낭을  
다 운반해주곡 또 집 파는 일도, 일도, 저  
돈 안 반앙 예전에는 다 동네 사람들이 헤  
줘.

게른 그 때는 초집 헝 그루 짓젠 허민  
거의 헝 삼 개월. 게난 그 집주인은 나무만  
해다 놓곡, 이제 그 헝 삼 개월동안 동네  
분들 오민 점심은 헤줘야주. 아침, 저녁은  
안 헤줘도. 그 양식만 준비허민 집을 지을  
때난.

아, 게난 이 하르방은 헝 해에 집 두 거  
리씩, 그 동네 사람들이 일, 그집이 강 유  
독이 일을 많이 헤줘야주게. 경허고 또 곳  
이 강 낭을 끼차노민 몰 행 강 낭을 끄서  
당 주고 허난에 이제 그 좀 불평헝는 사름  
들이 잇었어. 헝 해에 집 헝 거리도 아니고  
두 거리씩 짓으멍 몰 못 전디게헝곡 영햐  
젠 허멍 허난. 이 하르방은 이제 좀, 듣기  
좀 섭섭헝 거 아니라.

이제 경하난에 이제 그 집 짓언에 낭을  
헝 번은 해단에 집 짓는 서리앵 헝 낭, 요  
나무가 서리라. 집 헝 거리칙 이것이 팃이  
네 개가 들어야 웨어. 그 낭팃이 네 개를  
몬딱 헝 짐에 지언에, 지언에, 이제는 진  
차로 요집이 강,

“나 이 동네 살멍 매 해 집 짓영 동네  
어른들 궤롭허부난에 미안행 다른 동네 살  
레 감수다. 썩안히 잘 살앙십서.”

허멍 질 해동 가곡 헝디.

옛날은 거 이 질이 요즘꺾치 넘질 안 헤  
고 좁아부난 그 낭을 지영 가가민 양쪽 담  
이 다 이제 무너져 분거여. 낭을 지오민,  
요 집이 강 인사행 나오른 그 올레담도 몬

아까 말ㄴ째 많이 먹는 때문에, 거, 뭐 주막에 가서 밥 혼 때 사 먹어 봐야 간에 기벨이 아니 가마썸.

아, 경흐뉘 쓸 서 말에치 밥 해 도랜 홀수도 없는 행펜이고, 조천을 와서 밥 혼 사발을 사 먹어도 배는 고프고 그자 빌빌 돌아댕기단 보니까, 요사이는 그런 거 없지마는 옛날에는 술 해영 놓양 고소리에 술 다 까그네 술 쭈시 큰 도고리더레 퍼 놓지 안 홉니까게.

아, 술 다끄는 디가 보니까 잇어, 마당에 ㄴ랫도고지 큰 것에. 이제는 술 쭈시 무룩하게 퍼 놓안.

‘아, 저 술쭈시라도 얻어먹어야 뉘겟는디 어떻 해영 얻어먹으코?’

척흐게 들어와 가지고는,

“거, 저 술 혼 뉘만 풀아 줘서.”

“예, 경흐스.”

술을, 이제는 혼 뉘를 풀아 주니까, 반쯤 먹다가,

“원, 이거 술이 탁주가 맛이 좋는디 소주라 부니까는……. 이 술 쭈시에 이 소주 캉나 먹어 벼도 뉘 거파?”

흐난, 그 술 입자는 그 도고리엿 거 다 먹어 볼 생각은 안흐고,

“그 술 반 뉘 남은 것에 그 술쭈시 캉 먹으면 얼마나 먹을 거파? 좋은 인심에, 예. 캉 잡수십서.”

흐니까, 그 도고리더레 술 반 뉘 남은 거 팡팡 비와 놔 가지고 술쭈시 혼 도고리를 홉치 싹 아사먹어 부니까,

“아이구, 이 아지방아. 그거 다 먹어 볼 민 어떻홉네까?”

“ㄴ짜 먹으랜 안홉데가게. 경흐 총 알아 시민 먹지 말 곁. 먹으랜 해 부난 나 먹언.”

좌우간 먹는 거흐고 힘은, 그 사름은 뉘 말홉 수 잇이 만홉주.

딱 무너지고, 또 옆집의 강 또,

“나 이제 이 동네 고만 살앙 떠남시메 뉘안히 잘 살암십서.”

행 또 허믈.

게난 그 동네 담이 다 무너지판 아니라. 게난 동네 하르방이 보난 요 사람이 이제 뉘히 거 쏙 보이는 일이거든.

“아이고, 동네 사름들, 거 제발 거 이녁 먹영 살젠 허는 거 동네에서 도와줘볼주.”

섭섭헨에.

“이제 이 담 다 클러노민 이거 다는 것도, 집도 그리 짓는 거 공력 드난 제발 판데 강 살지 말앙 이 동네 살아사, 니 또…….”

그런 사름도 필요할 때가 잇주게. 힘 쉰 사름, 저 장레 때 그 산소 옆에 담 쌀 때, 큰 돌 ㄴ튼 거

“아이고, 니 산담할 돌도 잘 지곡 허난 이 동네 살렌.”

허난.

“아, 경 허민 고맙수다.”

헨에 이젠 그디 살곡.

경헤서 힘이 쉼도 이녁이 먹기 어려완 살았는데 웨정 초가 뉘니까 그 뉘 그 어른, 하르방도 늙엇주.

이젠 산에 가서 그 냥을 벤 그 방에를 멩글양 풀젠 그 냥을 벵 방에를 멩그는디 웨정 뉘니까 그 산감이 생겨났어. 냥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름이 생겨났어.

경허곡 그 때 또 일본 사름들이 와서 지금 한라산에 소낭들 그 때 더러 심근 건디 그거 심어가지고 그걸 영림소엿 헤근에 나라에서 온 거엿 헤근에 그거 감시하는 사름들 이시난 그 사름들은 그 소낭만 감시할 거주마는 핑계이시믈 뉘 좀 뉘물이라도 먹어보젠 거 그디 강 냥 그참시믈 존소리 허곡 허는디,

이제 그디가 방에를 만드는디 영림소 직



|  |   |
|--|---|
|  | <p>원이 가서,<br/>         “당신 왜 허가도 안 받았 여기왕 낭 기 참서?”<br/>         허니까,<br/>         “아이고, 나 무식행 몰라부난에. 그 이 춤 널른 나라 땅이, 널른 땅이 다 나랏님 땅인데 아, 없는 백성이 이거 끼차당 방에 멩글양 허는 거 이것도 못홉네까?”<br/>         허멍, 경 현디 마침 비가 딱딱딱 떨어 진다 말이여. 게난 그 방에 멘들던 걸 머리에 툅 허게 머리에 쓰멍,<br/>         “아이고, 거기 옷 젓지 말양 이레 왕 나 저끄디 왕 앓읍서, 앓읍서.”<br/>         허난. 일본놈이 보난 겁나거든.<br/>         사람 아무도 없는디 그 힘이 그 방에를 그냥 툅허게 지영 앓으난에 그 모가지라도 꼭 심어볼른 죽을 거 아니라게.<br/>         겁난에 그냥, 그만 그, 일본 영림소 감시 하는 돌아난.<br/>         경해서 그렇게 힘이 센.<br/>         웨정 초에 그분네가 돌아간.<br/>         손자는 나 어린 때까지는 가시리 살안.<br/>         원래 토산.</p> |
|--|---|

#### 4. 서귀진 뽕인태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서귀진의 한 관노였다는 뽕인태는 걸출한 기지와 해학으로 심술궂고 욕심 많은 관리들만을 상대로 조롱해 왔다는 전설적 인물로 제주도 광포 전설 중의 하나이다. 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기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순력하는 음란한 원님을 어느 지형의 형국에 비유하여 조롱하는가 하면, 반찬 타령이 심한 어느 조방장에게는 계속 교묘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차려 주며 버릇을 고치고 만다.</p> <p>여기의 이야기는 1983년 자료와 2011년 자료 모두 제보자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채록한 것인데, 편의상 한데 묶기로 한다.</p> |   |
| <p>하도 그 사람은 거짓말은, 거짓말은 잘하<br/>         는디, 요셋말로 기지가 좋은 사람입주.<br/>         서귀진에 관노라마썸. 그 뽕인태가. 관노</p>  | <p>서귀진 뽕인태라고, 그 유명한 사람 잇었<br/>         주.<br/>         뽕인태, 그 사람은 서귀진의 관논디, 그</p> |

디, -관노엔 혼 건, 그디 그자 서귀진 조방장 가며는 방도 때곡, 심부름도 흐곡, 밥상도 들러 가곡, 관문, 요센 공문입주. 그걸 앓양 정의고을까지 가랭 흐민 그거 앓양 가곡 그자 영흐는 심부름을 하느디- 어떻해연 이 사름은 하천해여노니까는 춤 궤로 일을 안해여마썸.

흐루는 새로 정의 원이 도입을 해 가지고는 순력을 -순력이엔 혼 건 요새 초두순시우다.- 순력을 도느디, 쉼돈 우의 가며는 월라산이엔 혼 산이 이수다.

그 산이 즈세이 앓양 보며는 똑 조쟁이 형국으로 생겨십주, 쫄랑흔 게야.

저, 또 불목리에 조고만흔 오름이 있수다. 그 오름 맨 꼭대기에선 생수가 지금도 쫄쫄쫄 납니다.

그 월라산은 역두형, 조쟁이 형국이 고…….

머리 두 짜마썸. 그 조쟁이가 받기웨민 두가리가 꼬닥꼬닥흐는 역두형마썸.

또, 그 불목리 그 오름은 하문혈입주, 하문혈, 그 하문 형국이, 땅 형국이, 그 월라산은 역두형 -조쟁이 형국, 불목린 하문혈 해가지고 보탱이 형국.

아, 새로 올 정의 원이 초두순실 흐느디 어떻사 사름을 괴롭히게 구는지, 오라그네 순력홀 때는 관기덜 대동을 안 시킵주, 보통은 다. 그 관가의 잇일 때만 수청도 들랜 흐곡 흐주 경 그 순력 가명아올라 관기 딱 라랭기랜 안해십주게.

아, 이놈의 정의원은 어떻사 심으쟁이가 곳인지 그디아올라 다 관길 딱라가랜 하니, 자, 그 걸영 가랭 홀 수 엇언 가메에다 관길 멧 개 흐젠 흐민 그 가메 들를 사름 흐다 보민 인력이 오즉 소모될 거파게.

해여도 감히 누게가 경흐지 말랜 근지 못해영 쪽으로만 끽끔 알르느디, 그 뺨인태가 물을 이꺼네 가느디, 가다네 그 쉼돈 월라봉 앞의 가가난에,

아, 천민이주. 천민인디.

서귀진의 우두머리가 조방장이라. 이 조방장이 와근엔 백성들 생각해근엔 좀 잘해주는 조방장한테는 고분고분 말을 아주 잘 듣곡, 욕심 센 조방장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좀 궤롭형 못 살게 굴어근엔 얼마 잊지 못행 나가게 만들어 버려.

응응, 표 나게 경 무신 뭐 한 걸 허는 것이 아니라.

흔 번은 강씨 성을 가진 조방장이 왔느디 궤썸해여. 그 관청에 노비들을 이녁 집일도 부리곡 말이여. 이녁네 바테 강 검질도 메렌 허곡, 나쁜 짓거리주. 이놈 버릇 좀 가르쳐줘야커.

아주 계난 거, 그 뺨인태는 그 이제 밥당번인디 한 번 반찬을, 고길 설게, 설게 구원에 노니까,

“야, 이거 이거 먹어지크냐? 이 궤기 설영 못 먹커.”

“어떻흐든 궤기를 안 설게 해짐네까? 그 막 해볼…….”

“어떻 구워사 안 섭네까? 난 막 카지 않게 구부령 막 굽당 보난에 난 익은 거 답은디 안 익어수짜?”

“불에서부터 멀리 들러근엔 궤길 구워사 안 카주. 이거 막 바드겨놔부난. 다 카네 먹지 못허커.”

“예, 다음부턴 나 조심허쿠다.”,

아, 다음 뒷날은 저녁상을 들르명,

“궤기 시방 흐썰 덜 구워전 호끔 이시든 구워 아정오크메, 이거 잡삽십서.”

밥을 받을 먹어가도 고길 안 가져와.

“야, 니 무사 그 고기 구워 아정오켄 행동 안 가정 오멘?”

“시방 구웁수다. 아직 저, 덜 익언에.”

밥을 다 먹어도 안 가져와.

“야, 이놈아, 나 밥 다 먹엇져. 무사 고기 반찬 안 가정왓시?”

“아, 이거 익질 안햐수다.”

“저 슝 뭉은 나가 이끄커라.”  
 “경해여.”  
 확하게시리 기생 가메 뭉 이깁 가단 슝  
 또 뭉을 이깁 가메, 이제는 그 월라산 앞의  
 간 타령을, 줄타령을 부쩌네, 그 원뉘 들으  
 랜 흥는 소립주게.  
 서넝 하늘엔 해가 근근  
 역두형엔 좇이 근근  
 몰르쿠다 건 미신 말인지.  
 경해여도 원뉘는 육지 사름이고 흥난 제  
 주도 사투린 잘 몰란 옛비슷이 들은 등 만  
 등 해연 가는디, 또 흥참 가다가는,  
 “우리 슝 아랫뭉을도 역두형 ㄱ따.”  
 ‘우리 슝 역두형 ㄱ따? 아, 요놈 요  
 거 나안티 육흥는 거로구나.’  
 잘 알아먹진 못해도.  
 이방을 불러 놓고는,  
 “야, ㄱ짜 저놈 저 뉘 우리 슝또는 아랫  
 뭉슬이엔 흥 것이 뉘이냐?”  
 “아랫 동네라고 흥는 말입니다.”  
 “야, 이놈아. 나가 뉘 아랫동네냐?”  
 “예. 여기서 그냥 우리 방언으로 그저 남  
 즈 보지 못홀 곳을 ㄱ리쳐서 아랫 뭉슬이  
 엔도 흥니다.”  
 “아, 그러냐, 게민 역두형은 뉘이냐?”  
 “예, 역두형은 그자, 것도 그자 그쭈 거  
 시기 흥니다.”  
 “아, 저놈, 이거 나안티 육흥 거 아니  
 냐?”  
 “아, 저 하친흥 거 그자, 뭉 피곤흥니 그  
 자 피곤흥 거 잇젠 타령흥는 것입주 흥홀  
 것이 잇사옵니까?”  
 “아니다, 이놈 아까부뉘 뉘 디서는 흥 번  
 도 타령을 안헛는디, 이딜 오라 가니까니  
 뭉채 바짜 갖고 타령을 흥는 걸 보니 필연  
 즉 나안티 육흥 흥는 거다.”  
 토평 성안칩의 가서 좌정을 흥지 후젠,  
 “뉘인태 그놈을 잡아 울리라.”  
 고 해서

간 보난에 예전에 지금은 저기, 그 새별  
 오름 그디서 말고 들불축제엔, 우리 뉘 들  
 불이엔 안 혀고 방에부친뉘 해근앵 뉘 되  
 든 부쳐불민 뉘 데선 뉘 산에 불 부튼 것  
 이 보여.  
 이거 서귀포서 그 뉘에 인정오름에 방에  
 부뉘는디 고기 그 석쇄에 난 뉘뉘에 강 영  
 들링, 영 상,  
 “너 거 뉘 흥는 거냐?”  
 “궤기 구웘수다.”  
 “야, 궤길 경 흥 구웘지느냐?”  
 “어제 조방장께서게 불에서 멀리 들링  
 구웘렌 흥난에 보드게 들링 구민 카불카부  
 뉘, 시방 저디 불 베려지고 흥난 들헛, 들  
 헛 구웘수다.”  
 그거 뉘히 알아도 경한 거주. 반찬 옛이  
 밥 뉘이젠.  
 경 흥, 이제 어떻 흥 요 조방장을 내조치  
 코 흥는디, 흥 번은 그 이제 흥, 그디 서귀  
 진 병정들 시켘에 저 밧디, 밧 가는 잠디를  
 멩그는디, 그 옛날에는 그 가시낭이엔 흥  
 나무가, 나무가 아주 단단한 때문에 그 쉼  
 인들 따리는 궤장잇잖에. 그때 요리, 요리  
 치는 거. 그거 만들려고 그랬어. 건 뉘성들  
 비지 못하게 그 법으로 금헛어. 가시낭은  
 못 베는디, 쉼디 그 낭이 아주 흥 나무질이  
 뉘뉘히기 때문에 그 소 밧 가는 잠디허긴  
 흥아.  
 다 이제 그걸로 흥는디. 아, 요걸 가네  
 뉘쟁들 ㄱ라 비어오라헛 잠디를 멩글안에  
 경 흥 뉘인태 ㄱ라,  
 “너 이거 제주성안 우리집의 저다동 오  
 라.”  
 “아이고, 나 저, 집을 잘 몰람직허우다.”  
 흥난에  
 “야, 칠성통에 큰 대문 단 집 몰르크냐?”  
 “아, 맞수다. 나 칠성통에 큰 대문 단 집  
 은 나 알아지쿠다. 앗당 게도 오쿠다.”  
 아성간 지금 제주목관아. 목사 관청 간

“너 이놈, 관장을 모욕한 췌를 너 아느냐?”고.

“관장 모욕한 일 없습니다.”

“너 이놈아! 아까 올 때 타령을 뭐이라 했느냐? 또 흥번 해 보라.”

“예, 뭐 「하문혈엔 물이 근근, 역두형은 거딱거딱, 우리 스포 아랫 밑도 거딱거딱」 경했습니다.”

“너 이놈, 그게 욕이 아니고 뵈이냐?”

“무신 욕입네까?”

번쩍 우기는 거라. 아, 경하니 스포의 입에서, 너 나 좃도 거딱거딱 했젠 말은 츄마 이 못히는 겹주게. 알른 알아도 입으론, 그 입으로 적전 근질 못하니,

“이놈 너...?”

“아니올습니다. 그 산 이름이 역두 형국입니다. 경해서 내 그 산 반 흥 것이지, 내 그 스포님 반 흥 일이 조꿈도 아닙니다. 하니, 그저 노님 푸십서, 저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 산 형국이 역두 형국입니다.”

허허, 이방을 불러서,

“그 월라산이 역두 형국이 맞이냐?”

“예, 그걸 역두 형국이라고 합니다.”

아, 이젠 곶아 볼 말이 없다 말이우다. 스포가 그만이 생각을 해 보니,

‘하, 요놈 이거 그만 내가 기생 드랑 텅 기니 경하니구나!’

해연, 스포가 반성을 해연, 그냥 앓앙 타령 한번 해연 스포 버릇을 그 뵈인태가 그 리쳐십주.

그리쳐 놓고, 이제는 순력해연 돌려보내 놓고 서귀진에 돌아간 잇는디, 아, 그 서귀진 조방장으로 온 게, 또 거 못생긴 놈이 와 가지고는, 아, 똑 밥상을 들러 가며는 존소리 흥다 말이우다, 밥을 익게 했젠 흥던지, 설게 했젠 흥던지.

‘이것도 버릇을 그리쳐야지.’

흥들은 췌길, 반찬 흥는 췌길 카게 카게 구원 아전 간.

대문 강 광광 두드리멍,

“야, 이 잠디오랑 말아가라. 잠디오랑 말아가라.” 허난,

거기 문지기가 확 나왕,

“이거 어디 촌놈이 말이여, 어디 이거, 잠텅이 이거 정.”

“야, 너 누게 보고 촌놈이엔, 내 지금 서귀진에서 와신디 조방장님이 제일 높은 어른이여. 우리 조방장 어른께서 잠디멩 강대문 큰 집에 아정가렌 흥 아정왔는디 얼른 말아가.”

“이놈 자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조방장 따위가 와가지고 건방지게.”

아, 보난 그 법으로 못허게 흥 가지냥이 거든.

“너, 이놈 자식 이거 나라법으로 못하게 흥 냥을 웨 멩글앗어?”

“아니, 나가 함부로 한 거 아니고, 이거 조방장님이 멘들앙 보냈는디 너 누구헌티 함부로, 거, 이거 조방장님이 멘든 거여. 존 소리말앙 받아 가.”

겨난 거, 고발하노렌 안 해도 고발웨언. 계난게 조방장 파면이주.

뵈, 법으로 기치지 못한 나무 베곡, 그 췌병들 시켜가지고 다 일 시키곡 허니까. 그거 파면 아니여? 뒷날 파면뵈 나가부러주.

그 이제 조방장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그 뵈이냐. 그 나라에서 금하는 냥 뵈 잠디 멩글앙 해부난 이젠 그 이제 파직허게 이제는 뵈난애, 이제는 잡으레 올 거난애.

이제는 지금은 뵈 그 츄 저 오일육 도로 가 널찍이 뵈지마는 옛날에는 글로 사람이 옛날도 멩긴 거. 멩겨도 그 숲 속이라 가지고 이제는 뵈 꼬불꼬불 츄 익숙헌 사람만 거기를 다니는데 서귀포서는 글로 가야 훨 췌 뵈르주게.

경허난애 영 지금 일주도로 돌아가젠 허른 멩 베가 뵈고 허난애. 조방장 이제 츄

“야, 뽕인태 거기 잇느냐?”

“예, 여기 잇습니다.”

“다음부터 꿩기 멩심하게 구라, 너 이 꿩기 카서 먹어지겠냐? 갖다 너 먹어 부러라.”

술각볼에 기실게만 구워십주게.

“예, 그러하옵니까? 소인 덕택에 잘 먹겠습니다.”

울의서 우막우막 먹언. 아, 거멍케 칸 것 닳았는디 앉아서 우막우막 먹는다 말이 우다.

경해도 경흔 내색을 흐진 못하고 뒷날 처녀에는 밥상에 올릴 꿩길 서귀 뒷벵디 가그네 방앨 탁 부쳐두고, 거 이제 조방장 창에 들어와 가지고는 적쇄예 꿩길 올려 놓안 들런 ㄱ만이 산.

“야, 뽕인태야. 거 너 뽕하는 게냐?”

“아침에 그 조방장께서 꿩기가 칸 못 먹 켜 흐멍 꿩길 카게 굽지 말랜 해연 멀리 불 뽕디게 흐영 굽지 말랜 흐 때문에 지금 저디 불 부뽕신게 이거 조방장님 말씀대로 불 멀리 꿩기 들런 상 시방 꿩기 구웁심네 다.”

허허, 이거 어이가 엇입주게.

뜨리자 흐니 어이가 엇고,

“야, 그 꿩기 설영 난, 비린내낭 난 먹지 못홀 테니까 것도 너 먹어 불라.”

경해연, 이제 먹어 놓안, 이제 이 조방장은 반찬 엇인 밥을 멩뽕 먹어십주, 뽕인태 꿩부리는 통에.

경해서 이제 버릇을 ㄱ리치고.

아, 흐루는 옛날에도 가시낭을 못하게 해 수다. 스투덜 삼부장방멩이 흐젠 흐곡 흐민, 거 질긴 낭이라 부니까 가시낭을 그치지 못하게 해십주.

아, 이제는 조방장이 장기 성엘 가시낭으로 간 존 거 그차 오랜 흐여네 성에 흐고, 멩쿨 흐고 잘 단장흐지 후젠,

“야, 뽕인태야?”

그 부인을 여기 이제는 못 살 거난에. 빨리 물가에 이제는 돌아다볼랜 허난.

그, 요 뽕인태 그 숲 속에 들영 이 골목 저 골목 꾸불꾸불 돌멍 일부러 막 돌멍 이젠 날이 폭삭 이젠 저물어분거 아니라.

하, 저물어부난 하, 밤의 어떻게 이슬맛 앙 이걸 살아야 켈 건디. 아, 경 행,

“걱정맘서. 여기 이제 어억 비어근영 얼른 엄막 짓어근에 저 어따 밤의 이슬 안 맞게 해내쿠덴.”

헤가지고. 어억 비어근에 이젠 엄막을 두 개 짓언에 뽕인태 부인ㄱ라 여기 오날 잡 쉰 허고 그 옆에는 또 이제는 이녀이 자고.

이젠. 헨. 게난 이젠 밤 깊어 가난 자멍 요놈이 “꼭꼭” 허멍 하간 귀신 소리 도깨비소리 내난 이 뽕인, 그 조방장 부인은

“아이고 ㄱ소완에 하이고, 이거 ㄱ소왕. 야, 니 이거 안 뽕켜. 나 옆에 왕 누웁 자라. 이거 윈, 자꾸 무신 소리낭 ㄱ소왕 못 살켜.”

“아이고, 경허지마는 나 조방장 부인 옆에 강 장 켈니까. 나 안 가쿠다.”

“아이고, 이디 왕 자랜.”

아, 게난 요놈이 꿩이 비상한 놈이라노난에 옛날엔 머리에 쓰는 망건이엔 현 그 이제 모자, 그걸 그 눈으로 안 보이는 말꼬리에 털 미리 준비헿단에 그건 잘 안 보여. 그, 그, 툄꼬리를 그, 망근에 묶어가지고 이젠는 탁 썬에 그 줄은 자기가 잡앙 잇주. 아, 경헨 이제는,

“이리 와근영 누웁 자주. 나 겁낭 나 혼자 못 자켜.”

허난에.

“조방장님, 그만치른 나 요만치 저는.”

“어따, 무서왕. 문 앞으로 일로.”

아, 그디 강 그 망건을 영 이젠 걸어놓 곡, 이녀은 누웁 자멍 썩 뽕기민 망건이 툄 털어지민

“허, 그거이…….”

“예.”

“너, 이거 성안 우리 집의 갖다 드리고 오나라.”

“아이고 나 조방장님 댁을 모릅네다.”

“이눔아, 거, 저, 목은성 브디게 가서 큰대문 든 집, 너 전에 가오지 안했냐? 거기 큰대문 든 집 좃아가민 알 게 아니냐? 그 덜 강 조심하게 저다 텡 오나라.”

“예, 경 흐겿입니다.”

그 쟁기 몽클흐고 잠데 성에 지어 오란 큰대문 든 집이엔 허난 제주 목사 동헌 대문을 간 탕탕 두드리명,

“야, 문 열어라. 조방장님께서 쟁기 성에, 쟁기 몽클 해연 보내연 나 땀 내명 이틀 밤 걸언 지언 왓느니라. 문 올라서 이거 받아 가져니라.”

흐명 탕탕. 일부러 경해연. 일부러 경. 목사가 들더니,

“저거 어떤 놈이냐?”고,

“당장 잡아 들이라.”고,

스렁패덜이 잡아다 꿩련,

“너 이놈 어딘 줄 알고 건방지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고,

“어딘 줄 알다니, 나가 누군 줄 압니까? 내 서귀진에 뺨인태라고 흐 서귀진에 관논디, 아, 우리 조방장 노픈 어른께서 이 쟁기 성에 이 쟁기 몽클 카시낭으로 잘 치레해연 저 대문 큰 집의 갖다 드러텡 오랜 해연 전 이거 제주 성안 오란 쥘 대문 큰 집 좃안 오란 드리난 어서 반앙 들여 놔뉘 그네, 저, 이거 반앙 썻젠 해서 수결이나 썻 주십서, 날고라 잘못사 가장 갖젠 흘런지 모르난.” 허허허.

목사가 들으니 어이가 엇일 꺼 아니파? 거 조방장 가시낭 기친 것도 일러니와 주민 거 득해 가지고 백성덜 못살게 쟁기 몽클, 쟁기 성에아올라 다 해 가지고 집의 저 가랜 흐니, ‘그놈 나쁜 놈이라’고, ‘파직 시키라’고 해연 당장 그디서 앓안 그만 조

또 앓앙 영 걸민, 이번엔 저편쪽에 강 걸 엇당. 또 뺨기민 망건이 요리 쥬룩 허게 왕.

“조방장님 아, 이 망건이 이디도 이 구신이 부땡 이 망건이 고만 잇어도 움직거련 못 살켤.”

“나 저꺃디 왕 누라. 나 저꺃디 왕 누라.”

허난 조방장 부인이영 누워가지고 이젠 험 짓 다 행 다음날 아침이 이제 오논디,

“야, 너 어젯밤에 잇엇던 얘기는 가근에 아무 일도 아무헌티도 얘기하믄 안 웬다.” 허난,

“예.” 헛당,

“암만 생각해도 나 꼭 누구한테 얘기헤 저변 험디.....”

조방장 부인이 이눔 꼭 어디 강 얘기헤 볼 것 같아. 돈 줌 주명,

“야, 니 이거 가지고, 절대로 입 봉행 얘기허지 말아야 웬다이.”

한참 가다가 또,

“암만 생각해봤자 꼭 그거 꼭 얘기헤져 버릴 거 같은디.....”

그레 가지고 그 조방장 부인헌티 뜯을 거 다 뜯영 돌아완.

응. 그 꺃로.

그 분네는 뭐 일제시대까지 살앗는디 말아신지.

그 말은 없어. 지방 칠 덴가 팔 덴가 웬 덴 허니깐.

방장을 파직시켜 부련.

모른 체록 해연, 이젠 조방장 파직시켜 두고 혼 메틀 여가가 실 꺼 아니파?

서귀진엘 착 오란,

“예, 큰 집이 가장 가난 춤 착ㅎ덴 ㅎ멍 막걸리도 혼 사발 주고 잘 갖단 바천, 그디 보난 원 조방장 어른산디 누게산디 큰 어른인 ㅎ헝 어른이 나오라네 수고했젠 ㅎ멍, 잘 가랜 ㅎ멍, 조방장 너미 고생해네 제기 올려 보내사홀로고.”

경 글읍데다.

“경해어나.”

아닌게 아니라, 얼마 잊이난 파직뒤엿젠 소문이 갈 거 아니파?

‘하이고, 이놈이 또 간 똥 잘못해연 날 파직을 시켜신고?’

혼저혼저 살림을 출려야 씨켄 해서 그디 간 하간 거 백성덜 못살게 해여네 모두와 논 걸 다 시경 올리젠 ㅎ나네 쉼영 미시 거영 하영들 겁주게. 하영 들거난 혼번에 날라 오진 못홀 거난,

“너 뽕인태야, 오닐 저녁이라그네 저 여기, 저, 우리 내자 -그 조방장 부인,- 어서 모셔그네, 모셔다 똥 오니라. 경ㅎ민 내일은 우리 집 시경 갈 것도 많고 ㅎ니까 넬은 짐을 시경 갈 것이고 오늘은 저 우리 안사람만 모셔다 똥 오니라.”

“예, 예. 경 ㅎ겠습니다. 모셔다 똥 오겠 습니다.”

“너 저 군ㅁ음 먹지말고 잘 모셔 가야 ㅎ느니라. 아녀자라고 혼 건 ㅁ슴도 잘 타 곡 ㅎ니.”

“예, 염려 마십서. 켜디 어떻 모셔사 잘 모시는 거라마썸?”

“경 ㅁ디게도 가지 말곡 멀쩡이 사 가지 고는, 멀쩡이 사 가지고는, 거시기해영 모 성 가야지 ㅁ디게 바짝 부터서 모셔가서는 남녀가 유별(有別)ㅎ니 못 쓰느니라.”

“예. 멀쩡이 모성 가겠습니다.”

아, 서귀진서 나올 때는 그자 혼 으나쁜  
발쭙 멀찍이 모성 가단 곳질로 들어옴 시  
작을 혼난 뒤 그만 뻘뻘 앞의 나산 들  
아나는 거라.

“야, 뽕인태야, 나 므수완 못 가켜. ㄹ찌  
글라. 무사 니 경 문져 감디?”

“아니, 조방장님께서 남녀가 유별 혼난 멀  
찍이 땡겨사 혼댄 혼명 멀찍이 모시랜 해  
연, 조방장님 말씀 들은 멀찍이 모셔습니  
다.”

성안더래 오진 안혼고 곳의 들은 뒤 이  
레저래 뒤 막 땡겨가난 오곳 날은 어둑어  
불거 아니짜?

“하이고, 이 뽕인태야, 날 어둑언 난 조  
차가지 못혼고, 발 다 붕물고 살지 못혼켜.  
이걸 어떻혼민 좋느니, 날 저물아 불고”

“글쎄 말씀입니다게. 거 원 부인께서 제  
기 조차오라시민 오닐 성안을 탁 당들 혼  
건디 그만 걸음이 늦임으로 혼당보민, 난  
그 브디게 가젠 이 골목 돌악, 저 골목 돌  
악 혼단 보난 질은 점점 뒤…. 헨 지어 놓  
고, 이젠 어떻 원 혼 수가 엇입네다. 이디  
엄막이라도 치거든 오닐 밤 이디서 유해야  
혼곷입니다.”

“게나저나 날은 어둑고 혼 수 시냐? 어  
서 그레 엄막을 치랜.”

엄막을, 이젠은 조방장 부인 잘 엄막을  
꽃잇낭 꺼끄명 그자 낭가쟁이로 경정 쳐  
놓고, 이녁 엄막은 멀찍이 가네 쳐 놓안 밤  
의 삼경이 당해가난, 음, 음, 음.

아이고, 이젠 조방장 부인이 겁이 난,

“야, 뽕인태야, 나 므수완 살지 못혼켜.  
이레 오라, 이레 오라.”

“아니올습니다. 조방장이 남녀유별 혼댄  
혼명 멀찍이 모시랜 해연 시방 나 여기서  
잘 모셔됩니다. 무서울 거 없입니다. 편히  
주무십서.”

“아이고, 나 아맹해도 므수왕 살지 못혼  
켜. 재기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하이고, 조방장님이 멀리서 모시랜 해신디 거 큰일납네다.”

“어따, 조방장이 멀리 모시랜 해도 나 안 곤꼭 너 안 곁으민 웰 게 아니냐, 이 엄막에 오랑 ㄱ짜 자사주 ㄱ수왕 나가 살지 못 햏켜.”

아, 이젠 조방장 부인이 자는 엄막에 들어간 햏 펜씩 햏연 누언. 수건을 햏 벗어네 햏 귀때길 이녀 발모가지에 특햏게 무껴네 발을 쓸쓸 이레 등기민 그 수건이 줄줄 조차갈 거 아니파?

“하이고, ㄱ짜 이디 나 수건 봐 두난 엇언.”

발랑 영 햏명,

“나 수건 봐 두난 엇언, 나 수건 봐 두난 엇언.”

조방장 각시 눈 더레 간 쓸쓸쓸쓸햏 가난,

“이거 어햏햏 일이고?”

“하이고, 나 수건이 봐 두난 ㄱ름을 들암 습니다게, 이거 보십서, 이거 보십서, 이거 보십서.”

햏명, 발로 조방장 각시 차 불곡 배아햏 이도 슬쩍슬쩍 차 불곡... 아, 조방장 각시가 그만 음기가 동햏 지 후제는 ㄱ이 별경 햏가고, ㄱ이 별경햏가는 거라.

“하이고, 이거 ㄱ수왕 안햏켜. 햏햏햏해도 수건이 구신부튼 수건인 모양이여. 나 ㄱ끗디 오랑 ㄱ디게 누라.”

ㄱ디게 누왕 치를 일은 다 치러 베퓌주게.

아, 경햏연 이젠 ㄱ뒗날은 모셔아져네 집일 오라네 햏니까는 조방장 부인이,

“어제 오단 질도 잊어 불고, 밤이 너 곁생도 햏고, 노자 ㅍㅍ이 줄 테인즉은, 어제 오햏 햏난 이야기는 아무안티도 강 햏서는 안 햏다.”

“돈, 이거 적지 안햏 돈 이거 열 냥이나 네 이거 용돈 쓰꼭 햏햏햏햏 햏 것이다.”

“예.”

돈 열 냥 받은 다음엔 따시 들어간,

“아이고, 부인님마썸. 암만 생각해도 가단 생각해 보난 똑 튼내영 곶아점직만 흐우다. 곶아점직만 햐수다.”

“어뎡흐민 안 곶아지크니?”

“글쎄, 돈이 백 냥만 이서시민 안 곶아점직흐우다마는 똑 곶아점직흐우다.”

돈은 는틀 대로 는태여 아전, 이젠 서귀진에 돌아간 서귀진 조방장도 경해연 파직을 시켜불고….

흔 번의는 불 일이 잇언 서귀진에서 성읍리, 정의고을에 가단 보니까, 큰 밧 검질을 앓안 매는디, 옛날 그 봉수대예, 망대에 망 직히는 망하님덜, 그 망하님덜 각시덜이 문딱 수눌영덜 큰 밧디 앓안 검질을 매는디-그 ㄱ쁜 하인배덜 끼리덜입주게-즘즘해영 검질만 매엄시민 흘 건디,

“아이고 야야, 그디 가는 거 뵙인태로구나 야, 니 거짓말 해영 사름 잘 웃긴댄 해영게 이레 오라그네 거짓말해영 사름이나 흥번 웃이와 텨 가라, 검질 매멍 심심해영 웃음이나 실편 웃져.”

“아이고, 춤 답답흔 소리덜, 말 맙서. 시방 서귀진에 왜배 들어네 정의고을더레 관문 앓안 감수다. 나 그디 강 거짓말해영그네 높 웃질 생각이랑마랑.”

왜배가 들어노민게 망하님덜이 망에서 망불 올려사 흘 건디게 그 망불은 아니 울리고게 검질 매레 으상으상 텨기당게 막 끝에 목 돌아당 죽을 일덜이라.

“아이고, 이것사 무슨 말이니, 우리 집 사름 오닐 망에 올라가지 안해싱게 흥저강 곶아사 흐켜.”

흐멍 검질 매단 내벼 된 집집마다 망 보레 가렌 곶으레 그만 다 가부난, 이젠 망직이덜은 스뭇 그 망 우의 올라가젠 오름 우의게 지칩주게.

할할흐멍 올라간. 서귀진에서 망불 올리

민 그거 베령 또 올려사 흘 건디 망불은  
올르지 안혀.

“하, 이럴 수가 시랴!”

즈물야도 망불이 안 올라.

‘이거 이럴 수가 시랴, 야, 이거 뺨인태안  
티 속아진 거 닻다.’

느려오란 해 저물아가는디, 이제랑 남은  
검질이나 매젠 해연..., 오꼴 그만 하루 일  
은 미여불지 안해수과, 검질 못 매연, 혼  
판씩이라도 매젠 해연 매노랜 혼난 성읍리  
왓단 으상으상 돌아감서.

“야, 뺨인태. 너 오늘 아척 거짓말했지.  
아니, 우리 검질 매단 내버 된 문막 저 망  
보래 가랜. 집의 가그네 즘물양 망에 간 사  
도 망불 올라오지 안해영, 너 거짓말했지?”

“모시게, 거짓말은게 거짓말 혼번 해 텡  
가랜 혼난 거짓말했주 무사 나가 거짓말하  
젠 혼연 홉데가?”

경해연 그 가는 디마다 사름 골탕먹이  
곡... 그게 뺨인탬주. 오래지도 안하고.

“너가, 내 관장안티 절만 받으민 나안티  
쉐가 엇주마는 그 진상 쉼 몰아다 논 걸,  
내 하나 몰아다 논 걸 잡으켜.

“경해주.”

“게민 메틀 날까장?”

“앞으로 일뻬만이만 뻬민 내 일뻬 전의  
는 꼭 받으켄.”

게니, 이제 내기흔 놈이, 요새에난 거주  
옛날에 진상쉐 도덕질했당 아니 들리민 잡  
아먹주마는, 들리민 건 목 ㄱ리는 거주게.  
보통 쉼 강 잡아오라시민, 경해도 관노 핑  
게로 목숨이나 살아나주마는 나라에 진상  
쉐 해당 잡아먹엇당은 춤 들통이나 나민  
옛날은 목을 굴립주게. 게난 춤 생명을 걸  
어 논 내기라.

아니, 일뻬 거시기, 보징 아전 딱 해놓고,  
하, 이젠 닷쉐가 넘어가도 요 뺨인태가 무  
슨 기적을 안해영, 읍의서 구경하는 놈덜은  
게나제나 쉼레기만 먹을 거난게. 뺨인텐 이

기민 그 국마진상헌젠 놔 둔 쉼 그냥 잡아  
먹을 거고, 또 지민 뽕인태가 쉼 흔 미리  
내놓겐 헌난게. 게나제나 ‘일똥만 넘으라,  
넘으라’ 헌는디, 아, 옷세차 나는 날은 난디  
엇이, 지방 요 동헌에 큰 폭낭 아래 책실이  
잇는디, 요새 ㄱ트민 비서가 똥 것산디, 책  
실이엔 해영 조고만헌 집이 잇어네 원님  
쓰곡 헌는 문세 대신 쓰곡 헌는 사름덜이  
살아났수다. 아이, 그만 그 집의 불이 날  
리가 만무헌디 헌쪽 귀통이에 불 난 집도  
카지 아니헌곡, 얼룬 메여 들언 불을 꺾다  
말이우다, 원 초집 ㄱ트민 불이 난다, 기와  
집 흔 착 뎡이 불이 나니,

‘하이, 이럴 수가 잇이카, 춤 거 이상헌  
네.’

햇주마는 그자 요새 ㄱ트민 거 조사했주  
마는 옛날이난 잘 꺼부난 문짜 통과가 똥  
십주. 아, 이제. 뽕인태가 이방안티 옛날은  
군수고라 성주엔 했수다.

“성주님안티 여쭙울 일이 잇습니다.”

“똥 일이냐?”

“아니, 그냥 스사로 여쭙울 일이 잇습니  
다.”고,

“나가 경해도 여기 관원 노릇을 쎡성 죽  
도록 헌난 이방님보다도 내 이디를 오래  
살고, 성주님보다는 두 말할 것 엇이 이디  
서 늑다시피 헌니까니 다른 일은 아니로똥  
내아에 관헌 일인데, 성주님안티 여쭙울 일이  
잇습니다.”

“아, 거 여쭙어라.”

아, 이방이... 관노사 경 얼룬 강 성주헌  
고 만남 이야기힐 필요가 잇는 것과게. 이  
방이 성주안티 가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저, 성주님, 여기 관노가 늑은 관노가  
잇는디 잇당 저 쉼부령 거시기 흡니다마는  
사름이 영리헌고 어려운 일도 나민 잇다그  
네 ㄱ곡 헌는 관논디 성주님안티 여쭙울 말  
씀이 잇젠 햄습니다. 저 그냥 들어 두십  
서.”

“아, 왕 여쭙랜 해라.”

가 가지고는,

“뭘 얘기냐?”

“아, 성주님 요번에 책실에서 불이 나지 안했습니까?”

“아, 거 화폐 잇는 줄은 내가 안다.”

“다른 딴 집 그트며는 내 아무 말을 안  
헛겠습니대마는 그 책실이라 흘 것 그트면  
성주님의 조께가 뉘든, 즈께분이 뉘든 성주  
님헛고는 인척으로는 쉼 근흔 사름덜이 살  
아 가지고 문세도 잠곡 영헛는디 그 책실  
에 화폐 난 것은 이 동헌에 화폐 난 것보  
다 더 큰 일입니다. 새로 파랑파랑 자라나  
는 사름 집의 불이 나니 큰 폐단이, 거 이  
제 성주님이 이디와서 정성을 안헛기 따문  
입니다.”

“뭘 정성을 흘 말이나?”

우리 그을뿐만이 아니라 옛날 관, 성 안  
네는 다 당이 헛나씩 잇입주게. 수산진에도  
시방 그 ‘진안할망당’이 잇고, 이디도 시방  
성 안네 집 짓엿 해도 그게 집 아니고 본  
래 저 큰 낭 아래 당이 잇어났수다. 지금은  
헛 구신사 모사당 헛는지 헛 본풀이도 헛  
곡. 본래 저 당은 거시기가 잇엿 혼 게 아  
니라 관장 살레 오랏다그네 죽은 관장덜,  
죽은 관장덜 위헤그넹아, 그뎌 민간외서 출  
입도 안헛고, 다만 그 관장덜 죽으면 위헛  
는 당이라 노니까니 사방 그 정의 고을서  
큰 송스 해영 목으로 송스갈 때 그 원님네  
부인네만 슬째기 송스가그네 이겨 줌센 헛  
기 위헤영 텅기는 당이주. 본래 민간이 텅  
기는 당이 아니라.

“아, 스실 이제 저 당이 잇는데, 들어오  
며는 우선 그 당에 가서 베어야 뉘는 데  
관장께서는 그만 안 배우니 당신께서 노해  
서 그런 것입니다. 헛니, 지금이라도 출려  
서 정성을 헛십센.”

“아, 당이엔 헛 건 예편네덜이나 헛는 거  
지뉘 이디 헛 그을 관장이 헛는 일이나?”

고,

“아, 그러민 절 세 번 해영 흘 거민 거 뭐…, 뭐 뭐 출리느냐”

“염려 마십서, 소인이 출리겠습니다.”

“아, 게므로 제물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방안티가 굴을 테니까 거시기해서 흐도록 해라, 게민 내 절 세 번을 흐겠다.”

그 이제, 아방보고,

“저놈 아멩해도 오래 살고 거시기흐 모 냥이니 거 뭐 양반 체통에 당에 가서 절흐는 거 벨로 좋아흐진 안해도 저놈이 간곡히 부탁을 흐니까니 내 저놈 말을 들을 테인 즉은, 저놈 흐는 냥 제물을 출려라.”

“아, 경흐십서.”

출리난 이방도 지네 먹을 거난게 아, 이젠 뺑인태보고,

“뺏을 출릴 꺼냐?”

“뭐 츠릴 게 잇습니까게, 쓸 흐 말만 해영 밥 흐 도고리 흐고, 득 서너 므리 잡곡,-득 세 므린 뭐 지네 먹젠 그거주. -궤기도 댓 므리 굽곡 영흐민 웰 것입니다.”

이제는 출려노니까니, 이제는 뺑인태가,

“정성흐는 디는 으러 사름 오민 못 썩니다.”고,

“경흐고 아랫 사름덜 보민 체통도 잇고 흐니까니 다른 사름덜은 다 물리치십서.”

“경해라. 게민 너만 강 출려봐라, 너흐고 나흐고만 강 절흐자.”

경흐십서게.

뺑인태는 탁 내기해놓고, 이제는,

“자, 이제는 오닐 저물아 갈 때는 관장이 나안티 절을 흘 것이니까 -저 뒷성으로 지금 그 뒷담이 성 아니라수짜야?- 올라가서 나 절 받는 거 봐라.”

으놈덜은 성 우의 올라간 메죽메죽해연 ㄱ만이 보니깐 밥 해영 간 것도 고리채 올려 놓고,

“이제는 관장께서 절을 흐십서. 으라번

|  |  |
|--|--|
| <p>홀수록 좋습니다.”</p> <p>구박구박 절을 해 가난, 슬쩍기 낭 우터<br/>레 간 영 샅어. 절을 딱 받았어. 관장은 빗<br/>도 몰르고, 이젠,<br/>“다 낫냐?”<br/>“예, 낫습니다.”<br/>“이거 음식 자시십서.”<br/>“그 거 내 먹을 거이나, 너희덜 갖당 갈<br/>라 먹어라.”<br/>이젠 앓당 복작 먹어놓고,<br/>“관장안티 절 받아시니까니…….”<br/>경해연 그때 추그런 관장안티 절을 받아<br/>십주게.</p> |  |
|--|--|

### 5. 고성 홍효자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홍효자의 효행은 오늘날 문헌과 구전으로 동시에 전해질 정도로 유명하다. 고성의 홍효자는 제상에 올릴 고기를 낚을 때 낚시 대신 바늘을 사용하여 살생하지 않았다. 길에 죽은 듯한 오소리도 잡아 오지 않았고, 부모의 무덤을 시묘하면서 혼자 힘으로 ‘산담’을 마련했던 착한 효자다.</p>   | <p>그 분네도 일화가 많으난에 이제 좀 그렇게 한 분들은 그 일화가 많으난 그 동네마다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더 부치기도 허고 험실 테주.</p> <p>그, 이제 홍효자, 뭐 그 효자허면은 그냥 효도 잘 해서 나라에서 포창한 걸로 알지 마는 옛날 구식에서는 효자허고 열녀는 제일……. 그 이제 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은 뒤에도 표준이 되는 본받아야 될 분네라.</p> <p>그런 때문에 효자가 돼면은 열녀가 돼면은 열녀의 그 즈손, 계니까 다는 아니고 종손 쉽게 말해, 열녀의 종손, 그 효자의 종손은 대대로 국가에서 혜택을 누립네다. (전화 통화)</p> <p>이제 조선 끝날 때까지 종손은 병정도 면적해주고, 면제해주곡, 세금 면제해주곡</p> |
| <p>그 다음 인물로는 고성 홍효자가 있습니다. 홍효자는 「탐라기년」에도 나고, 많이 알려진 분네고…….</p> <p>그 「탐라기년」에는, 옛날에는 그, 춤, 뒤편 어렵고 하니깐 간편하게 그자 기록만 흔 것이고, 거기에 기록된 웨로는, 그 어른은 아주 그 성품이 어질어 가지고, 남하고 싸울 줄 모른 분이엇쟁 홉네다.</p> <p>경하고, 또 고기를 나까도, 제사 때에 쓰는 고기를 나까도 낚시로 가서 나끄질 아니하고, 바늘에 이점을 꿰어서 올라온 고기 베끼는…….</p> <p>바늘에다가 이점을 꿰어서, 고기가 잘 안 나까집주게, 물엇다가 바타 부러서.</p> <p>경해여도 아주 그자 그,<br/>‘하느님이 천명으로 넌 벌써 그자 죽을 때가 된 고기베끼는 안 잡는다.’ 해서 그렇</p> | <p>그 분네도 일화가 많으난에 이제 좀 그렇게 한 분들은 그 일화가 많으난 그 동네마다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더 부치기도 허고 험실 테주.</p> <p>그, 이제 홍효자, 뭐 그 효자허면은 그냥 효도 잘 해서 나라에서 포창한 걸로 알지 마는 옛날 구식에서는 효자허고 열녀는 제일……. 그 이제 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은 뒤에도 표준이 되는 본받아야 될 분네라.</p> <p>그런 때문에 효자가 돼면은 열녀가 돼면은 열녀의 그 즈손, 계니까 다는 아니고 종손 쉽게 말해, 열녀의 종손, 그 효자의 종손은 대대로 국가에서 혜택을 누립네다. (전화 통화)</p> <p>이제 조선 끝날 때까지 종손은 병정도 면적해주고, 면제해주곡, 세금 면제해주곡</p> |

게 하고,  
또 흥번은, 이제는 나무를 흥레 이제 드  
를 갖다 오다가 보니, 지다리엔 흥 것이,  
이제는 아, 거 질레에서 죽어서 이섯더라  
말입니다.

그 흥효자가 그 때에는 그 부모님 상을  
벗어서, -옛날에는 묘에다 묘막을 짓고 삼  
년 동안 시묘를 했는데- 시묘를 흥 다음에  
몸이 아주 약해져서마썸, 뭐 먹을 거라든  
지, 그런 거 관리 잘못 흥니까.

그래서 이제 탈상을 흥 다음에 나무를  
흥레 간 오다 보니까, 그 지다리가 길레서  
죽어서 등굴업서. 아,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뜨민 걸 뭐 봉강 왕 국을 꿩영 먹던지, 잡  
아 먹던지 흥 것인디, 이 양반은 자기 공  
안 든 거니까 안 잡양 먹는데 해영 그냥  
집의 완 동네 사름덜 보고,

“아, 요디 오단 보니까 지다리가 죽어성  
게.”

흥난,

“봉강 오랑 잡아먹을 거 아니파?”

흥난,

“애, 흥주마는 나냥으로 공 안든 거, 거  
뭐…….”

경흥난, 동네 사름덜은,

“거, 우리 강 봉가당 먹자.”

간 보니까, 그 지다리가 없어마썸, 도망  
가 부런. 거 죽은 것도 아니고.

경흥니, 그것이, 이젠 하늘이 그 효성에  
감동을 해 가지고, 그 묘막을 쳐 가지고 시  
묘 삼년을 흥니까, 그 몸이 약해지니까 걸  
좁, 흥효자를, 몸을 좁 건강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는, 이젠 그 지다리를 내려 보냈는  
디, 그 흥효자는 안 주연 가부니까, 이젠  
또 살려 보냈젠, 영들 이야기 흥네다.

그래서 아주 하늘이 감동웬 효자라 경흥  
주.

그 분네 일화는 만흥니다워.

또, 그 분네는, 시방, 그 흥효자 부친네

보통 거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 춤, 효자가 나면은 동네에  
서도 자랑으로 여기고 허는데 그 흥효자는  
이제 어. 요즘 그트면은 줌, 줌, 그 뭐 부모  
님 잘 성인 건 꼭 그트디 줌 요즘 사름들  
그트면 옹고집헌 하르방이엔 허주.

웨 그냐면은 원래 천성이 착해가지고는  
쉽게 말허면은 부모 잘못 돌아간 후에 또  
시묘살이허곡 잘 모시는 거 그 줌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허는 거니까 게니까  
우리 부모 돌아간 게 이렇게 슬프니까 비  
록 사름 아닌 김승도 그 생명을 죽여볼문  
그 즈손은 슬플 거 아니파?

그니까 부모 일에 대해 가지고는 요만춤  
도 생명을 아니 죽이는 것을 아주 이제는  
첫째 덕목으로 삼아가지고.

그니까 부모님 돌아간 산소를 요리 썼는  
디 그 옆에 담을 요렇게 허는데 것도 다  
동네사람들이 가서 해주는데 이 사람은 자  
기 혼자만 삼 년간 했어.

그거 웨 그러냐면은 그 돌 이렇게 하면  
은 돌 밑에 깨미집도 있곡, 요렇게 하는 경  
우가, 깨미집도 있곡, 굶벙이도 있곡, 어떤  
때는 지렁이도 있곡 하든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도 그냥 갖당 해분단 말이어.

요 사람은 그 돌 요리 뒤집어 놔 가지고  
깨미가 있으면 다 떨어져서 나간 다음에  
그 돌을 지어다가 그 산담을 하니까 혼자  
삼 년을 이제, 그리 허곡, 또 그 이제 제사  
때는 고기를 써야 돼는데 것도 생명 죽이  
는 거 아니파?

근디 요 양반은 그니까 고기도 제사에  
헐 고기는 요리 낚수로 흥질 안 허곡, 바늘  
에 입곡 해서 가서 고기 낚아서 게난,

“요건 수명 다 돼서 하느님이 죽으라고  
허는 놈, 바늘 물곡 죽는 놈…….”

경 해서 낚아다가 허고 그래서 춤 하늘  
이 감동할 정도로 모든 생명을 안 죽이는  
것을 거 춤, 첫째 덕목으로 살아서 했는데.

산소가 시방 성산, 새로 짓인 읍사무소 앞의 쪼끄만한 오름 우의 크게 쌍묘산이……. 그것이 그게 홍효자 어머니·아버지 산입니다.

바로 성산읍사무소 지은 바로 앞에 쪼끄만한 오름이 있습니다.

그 뒤에 큰 오름은 대수산봉이고, 그 앞의 건 소수산봉이고,

예, 예. 맨봉우리예 쌍묘흔 것이, 그 홍효자 어머니·아버님 산인디, 그 산담도 쟁쟁히 너릅주.

너른디, 그 남 아니 얻어서 그냥 삼년 동안 묘에 가서 살면서 당신만 돌 하나 지영가곡 지영가곡 해서 산담을 했는디, 게니까 돌에 개미 꺾는 거 부튼 건 상해서 죽으카 부텐 안흔곡, 다른 지렁이 꺾는 것도 돌 꿩쌍 보민 이십네다. 그런 것도 아니흔고 해서 아주 깨끗흔 돌로만 당신냥으로 봉가다가 산담도 해엇젠 헝고.

지금은, 이제 소낭 다 그차 부러 가지고 새로 심어서 지금은 해도, 우리 어린 때만 해도 큰 소나무덜이 만헝습니다. 그 앞의 소나무 멧 그루가 요쪽 나무 가쟁이헝고 요쪽 나무 가쟁이헝고 영 부텃젠 헝여마썸, 뜬 나뭇가지라도.

그것은 옛날에 뭐 중국효자에도 그런 것이 나났는디 「열녀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부텃는디, 웨정 때예 그 나무도 끊어 부룻젠헝고…….

그 분네안티 거시기흔 일화는 만힝네다.

한 번은 이제 들에 강 오당 보니깐 오소리가 길가에 꼭 죽은 것 꺾타. 드러누워 가지고.

해서 ‘주워서 올까?’ 하다가 흑시나, 보니까 숨이 폴록폴록 좀 살아있어. ‘아이고 이거 살아있는 것이구나.’

해서 와서 동네 사름한테 ,

“하이, 오당 보난 오소리가 춤 다 죽어강 잇엇는디 내 시방 오젠 허당 보난 죽지아네서 난 지네로 안 죽은 건 안 먹을 거난. 안 주워 왓젠.”

아, 동네 사름은 엿싸 좋덴 주워당 먹젠가보난 그 세에 돌아나부런.

그거 살아난. 게난 거 아마 하느님이 홍효자 시험해보젠 그 오소리 경 죽은 것추록 행 잡아가느냐, 안 잡아가느냐 시험해보젠 경흔 모양이라.

경 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 돌아가고 그 이제 숙종 시절이니까 숙종 대왕 돌아가니까 “아, 이 나랏님 돌아갓는디 나가 부모님안티만 효도해서 웨랴.”

부모님 돌아가서 산소에서 삼 년씩 지키면서 헝는데, 매달 초하루 보름 웨면은 그 고성에서 저쪽 세화쪽으로 가면 지금 거 다랑쉬오름이라고, 4·3 사건 때 많이…….(칭취불능) 뼈쪽 높은 오름이거든. 거기 가민 그 북쪽으로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임금님 산소는 북쪽에 있어.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향 피와 농곡, 북쪽 향해서 매월 초하루 보름 삼 년간 이제 곡헝어.

게니까 이제 다 자손들은 효자지마는 자기네 조상은 충효를 다 현 효자라고 지금도 좀 자랑허주. 그 자손들은. 다른 효자하고는 조금 다르고.

게니까 그 효자는. 지금도 그 종손네가 가지고 잇을 거여. 여기 뭐 목사로 왓던 어른이라든지. 글 잘 헝던 어른들이 글들을 많이 지어났어. 그 분네를 찬양하는 글을.



|  |  |
|--|--|
|  | 그 종손이 지금 뭐 아마 가지고 있을 거여. 어린 때도 보고, 복사도 해 두고 했는다. |
|--|--|

6. 개불 홍씨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 줄거리: 홍씨들은 왜 하필이면 홍씨 성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그 글자에 맞게 설명한 소화(笑話)다.  |   |
| <p>이제 그 홍씨덜 보고 보통 그 내무령 이야기호쟁 호민 ‘개불 홍씨, 개불 홍씨.’</p> <p>이제 그 옛날에 처녀 호나가 몸을 잘 가두지 못해 가지고 어땡 어땡 남자 세 개를, 아, 그만 가깝게 해연 임신이 돼여 벗다 말이우다.</p> <p>허허, 잇어신고라, 경해연 임신이 돼여 부니까, 아, 이제 요새 그찌 뭐 낙태법이 잇어 노니가 날 거 아니파? 나난, 생난리가 낫주마는, 낫는다, 이제는 아방을 좇일 수가 잇입주, 세 이가 그찌 거시길 해부니까.</p> <p>아, 경호니 그 처녀 아방이 생각을 호기를,</p> <p>‘경헛던 정헛던지 간에 딸의 행실은 퀘썸해도 우선 난 얘기는 퀘가 잇이니까 그것을 어땡 성이라도 지와 주어야 돼겟다.’</p> <p>해서 암만 궁냥궁냥해 봐도 성은 뭘로해 보코, 어땡 성은 딱를 수도 잇고.</p> <p>‘아, 어땡해영 좋고!’</p> <p>애, 이제는 어디 나가서 고명호 선생을 좇아가설라는 성을 지와 줘 볼젠. 거, 뭐, 나간 뭐 뒷막술 앞막술, 그디 서당장 호는 분네 다 좇아간 헛자 뽕족호 수단이, 이, 거, 뭐 잇언마썸. 잇인다. 소식을 들으니까 글로 호 삼백 리 나간 디 훌룡호 선생님이 글 그리첨젠 해여네 애, 이제는 이 선생을 호번 좇앙 간 보젠.</p> <p>아, 마침 좇안간 보니, 마침 그 선생이 어디 출타해변 잇어. 잇이니 아이덜만, 글</p> | <p>아, 개불 홍씨는, 건 이제 거 전설인다.</p> <p>아, 옛날에 그런 법은 잇지만은 어땡 하다가 그만 처녀가 남자 셋을 상대헛는다 임신이 돼벗어.</p> <p>하, 이제 경 호 허난. 이제 그 얘기를 낡는다 이제 그 처녀 아버지, 워 하르방 웰거주.</p> <p>하, 이제 성씨를 뭘엔 해야 돼겟는다 셋을 상대해부난 어느 놈을 성씨를 이제 훌수가 없어.</p> <p>하,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성씨를 뭘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소문 들으난 어디 먼 고을에 유명한 훈장이 이제 글 그르쳐서 아주 그 유식호텐 허니까 그 훈장이나 호 번 좇아강은애 이제, 저 이제,</p> <p>“이럴 때 성을 어떻게 부쳐야 됩니까?”</p> <p>물어보젠 아, 그 서당을 좇아간 보난 마침 훈장은 어디 므실 가비연 없곡 아이들 이 막 노는다, 아이들이 이제 원님놀이를 험서.</p> <p>원님놀이엔 호 거엔 호 건 뭐냐 호면은 예전에 가위 바위 보를 허든지 뭇을 허든지 해서 거기서 제일 호 놈을 뽑으면은 그 놈이 원님이 되면은 자기가 원님행세를 해 가지고, 밑에 놈들 다 이방도 시키고 형방도 시키곡 관노, (청취불능), 뭐 이걸 다 시켜 가지고, 이제 원님 행세를 허는다 그 놀이 끝날 때끼장은 대장이라.</p> <p>하, 경 해서 원님놀이를 이제 허는다 아,</p> |



을 몰라봐 가지고는, 어, 관장안티 와서 어깨를 똑똑 두드리고, 아, 이런 무뎠은 백성이 어디있냐?”고,  
 “당장 이 백성 잡아 끌어 놔라.”고,  
 아, 경허니 스령·도집스 웬 놈덜이 우르르 모여들언,  
 “이레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아, 난간 알러레 막 집어 끈다 말이여.  
 아, 경허니 어이가 없어서,  
 “야, 아이덜아 경허지 말라. 어른 아피경 버릇엇인 짓하는 게 아니여.”  
 아, 스포가,  
 “그놈 점점 갈수록 불경혼 소릴 많이 하는구나. 아, 어른안티 버릇엇는 소릴 많이 한다니 관장은 민지부문디 누구보고 나보다 어른이라고 흐느냐?”고,  
 “아까 금방 안 들었느냐?”고,  
 “비록 우리가 놀이는 놀이지마는 관장과 백성, 상하분별을 분명히 지금해서 흐는디, 어리석은 백성이 와 가지고는, 거 나이 멧설 더 먹었노라고 해서, 아니 어른이라고 네가 동헌에 가서 관장안티도 그렇게 흐겠느냐?고,  
 이거 뭐 하여 볼 수가 었어.  
 흘 수 었이, 이제는 잡아끌어 느리니 잇돌 아래 간 꿇어 앉았어. 수정이 하노니 흘수가 었입주게.  
 ㄱ만이 생각을 해 보니,  
 ‘요거 영리흔 놈이니 어디 흥번 요놈안티라도 흥번 거시길 해 봐야 쓰겠다.’  
 해서 그 하르방이,  
 “아, 그, 저가, 소인이 예. -아, 그, 그냥 선후도착을 해 가지고 말씀을 잘못해전 이놈을 용서를 좀 해 주시고, 저가 이젠 원정 들일이 흥 가지 잇습니다.”  
 “뭇 원정이나?”  
 “스실대로 여쭙기는 대단히 부끄럽습니 다만은. 민의 딸이 약하약하해 가지고 남자 셋을 접관을 해서 즈식을 흥나 낳았는디

“웨 흥씨라고 흥니까?”  
 그 흥이라고 허는 글자가 요게 이게 이제, 셋 아니요, (물수 변을 쓰며) 하나, 셋이란 말이요, 게서 요게 함께 할 공자라.  
 “물이 함께, 세 물이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흥씨라고 헤라.”  
 이제 경 허니까 그럴싸한 말 아니여.  
 “웨 흥씨라고 흥니까?”  
 “세 군데 물이 흥 데 합쳐져서 애가 낳으니까 흥씨라고 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성씨가 잇으면은 이제 본관도 잇어야 될 거 아니요.  
 “본관을 이제는 그 저기 어떻게 헤야 됩니까?”  
 “거 개불 흥씨라고 헤라.”  
 거 뭐 우리는 뭐, 개불알도 들인 거 ㄱ튼디, 개불알도 잡아서 보면은 셋이래.  
 경허니까 개불 흥씨라 헤라. 그건 이제 전설이주.  
 아니, 무슨 다른 흥씨야 개불 흥씨같은은 허주마는.  
 무신 몰르켜. 옛날엔 흥씨들 흥티 잇다가 그 얘기하명 놀리주게.  
 “너네 개불 흥씨 아니냐?”  
 이치록 해서 놀려. 옛날엔. 이쪽 이 제 넘어 가면은 삼달리.

성을 도저히 어떻게 부칠 수가 없어 가지고, 내 이젠 고명훈 선생님을 찾아다니다가 이 서원의 선생님이 훌륭하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성을 빌어 지으려 왔는데, 와서 그냥 선생님을 기다리는 차에 마침 이러한 자리를 만나 가지고 그 고명훈 스포를 만나시니 내 이 원정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드는 것이니, 이제 제사를 느류와서 성을 지어주십시오.”

정중히 하니까 이놈이 탁 품재면서는,

“아, 그러냐?”고,

“이방, 필연 가져 들이라.”고.

아, 이제는 이방이 간지 후제는, 이제는 종이영, 배루영, 떡이영 다 갖단, 이제는 바편.

“성을, 이제는 홍씨라고 해라, 당장에.”

아, 이제는 그 하르방이 잇다가,

“어째서 성을 홍씨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허, 거, 흠!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혼 것이 이렇게……, 거 지어 주민 줌줌해서 혼 일이지마는 네가 그렇게 원이 웬다면 설명을 하겠노라.”고,

“어째서 성을 홍씨로 혼느냐 혼며는 이 처녀를 말할 것 가트며는, 남자 셋을 상대로 해서 나니 어느 남즈의 거시긴 중을 몰라. 경하니, 세 곤데 물이 혼 곤데 합쳐져 가지고 즈식이 낮으니까 삼수(泔) 변의 혼 가지 공 해 가지고는, 세 물이 혼 가지로 합쳐졌다 해서 내가 홍씨로 지어 주는 거니까, 가서 지체 말고 그렇게 시행을 하라.”

고, 아, 들언 보니 그럴 듯하다 말이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서, 이제는 나와네 그 아이를, 이제는 홍씨로 지으니까, 이젠 그 홍씨가 그 때 부떠 시작이 되었젠.

경해서 홍씨덜 내물리젠 혼민, ‘개불 홍개, 개불 홍개’, 경하는 거주.

건 몰르쿠다.

## 7. 삭달제장과 삼등매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삭달제장은 양반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가 일쑤였다. 어디 외지에라도 다니다가 배가 고파 못 견디게 되면, 궂하는 집도 좋고 초상집도 좋고 아무 데나 들어간다. 궂관에 가서는 자기도 심방이라고 속여 궂 한 석을 멋들어지게 해 준 값으로 얻어먹고, 초상집에 가서는 망인의 친구라 하여 거짓 눈물까지 보이며 밥만 얻어먹어 나오곤 했다.</p> <p>망칙스러운 삭달제장의 궂를 눈치챈 사람은,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삼등매였다. 그는 ‘나도 언젠가는 삭달제장의 궂를 써먹어야겠다’고 기회가 오기만을 버르고 있었는데, 때는 당도했다. 어느 초상집에 들어가 절을 했다. 두리번거리는 상제에게, 망인이 살았을 적에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잘 정도로 다정한 사이라고 했는데 상제는 밥 대신 매를 내치켰다. 망인은 바로 상제의 모친이었던 것이다. 삭달제장은 초상집에 턱 들어서자마자 상복만 봐도 망인의 성을 분별하여 걸맞는 술책을 부릴 줄 알았지만, 삼등매는 그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봉변이었다.</p> |   |
| <p>그 사람 이야기는 만합니다. 지방 그 사람 즈순덜도 만해부니까.</p> <p>허허. 그 사람 어떻 했는고 흐며는 흐변은 어디, 이제는, 아, 그 사람하고 삼달리에 삭달제장이라고 흐는 사람. 강택인디.</p> <p>예. 삭달제장이라고 흐 분네가 잇었습니다. 제장이엿 흐민 향교에서 두 번째 노픈 분넵주게.</p> <p>예. 뭐 양반 행셀 홉주. 거기는 또 뭐 아까 말흐 오훈장 제자 강성익 씨, 그 강장령 후손이라고 해서 지금도 경흐주마는 춤 보통 출삭거리질 안홉주게, 우리 제주말로.</p> <p>경해서 이제 제주 향교에 와도 ‘삼화제예 우리 선조가 모셔 잇는디 존소리 말라’고 해서 큰소리로 땅땅치고 경흐는데, 경해서 이제 삼달리에서 제주 향교에 올 때는 물을 타고, 이제 그 물 구중을 짬형 읍주게.</p> <p>이제, 그 물하님을 짬혀서 오는디, 흐변은 돌아가다가 아, 선흘을 넘어가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평 기가 나고, 이제</p>   | <p>아, 저, 삼등매. 것도 실지 잇엇던 인물. 그건 좀 오랜 거 같아요. 지방 아마 3~5대 손썸 돼니까.</p> <p>그거 웨 그냐 그러냐면은 춤 예전엔 제사들을 많이 허니까 일 년에 따지고 보면 제사 없는 날이 없을 거란 말이여. 우리 이제 이 정의 흐 고을만 따져도 거의 다.</p> <p>요 양반은 아침밥 먹고 일은 허는디 저녁에는 일 년, 360일 돌아다니면서 제삿밥 먹고 살아.</p> <p>그냥 그니까 그냥 무슨 뭐, 그리 무신 뭐, 놈 보기 초라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우리가 본 건 아니고 어른들 말. 아주 반듯하게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그냥 여름에도 발에 가서 일헤여서 아주 저녁 때 돼면은 그자 그니까 이 양반은 멧월 멧칠날 어느 동네 누구네 집, 제산지 다 아는 거여.</p> <p>경 저녁은 전부 제사만 먹곡. 곱게 차려 입곡.</p> |

그 몰 이경 가는 아이도 베가 고프디,  
 “너 베 고프냐?”  
 “예, 베 고프우다.”  
 아, 보니까, 그 선홍 가름 안네 흔 집에  
 막 곳을…….  
 “야, 너 여기 앉아 시라.”  
 “미시거 흐젠마썸?”  
 “장남을 부릴 테며는 베 안 고프게 해영  
 부려사주. 나가 너 베 고프게 해영사 쉘  
 말이가?”  
 그 삭달제장이.  
 “계민, 앓양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제 가더니마는,  
 “거기 그 수심방이 어느 어른이파?” 흐  
 니,  
 “요 사름이 수심방이라.”고.  
 아, 경허니, 녁죽이 절허면서,  
 “하이고! 거, 저, 손님도 쉘송힙니다만,  
 나 곳 흔 석 해영 가게 해줍서”  
 아, 그 큰심방이카부덴…….  
 “지나가단 나 베 고프관, 밥만 먹영 가민,  
 나 멩쉘도 안 받으쿠다.” 흐난,  
 “아따 경 험서게.”  
 영흐는 디 넘어가명 뉘게, 경 험서게.  
 아, 거 곳흐는, 심방이 곳 끝나니까, ‘곳  
 을 흔 석 흐십쉘’ 흐니까, 하르방이 소리  
 좋고, 뉘 곳을 멩들어지게 잘흐니까, 진짜  
 심방이카부덴,  
 ‘아이고, 춤 정의 고클 큰 선생님을 우리  
 가 몰라젓수덴.’  
 ‘이레 앓입쉘.’  
 이젠 밥 잘해연 드리고, 술 드리고, 반찬  
 드리고, 담배 드리고 해여네, 이제 먹연,  
 “하, 흐를만 우리영 놀당 가십쉘.”  
 흐니까,  
 “아이고, 나 갈 길이 멀고, 마튼 일 하고  
 해 부니까, -마튼 일이민 흔 건 심방 일 마  
 튼 겹주게- 마튼 일 하고 해 부니까 흐저  
 가사 흐쿠다.” 흐니까,

응, 빈 손으로도 안 가곡, 초 한 자루라  
 도 꼭 사갓고 가곡, 요렇게 헤서 허는 분넨  
 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사도 잇곡 또 옛  
 날엔 대상, 소상, 다 잇거든. 뉘 대상, 소상  
 그런 데 가면은 음식도 많이 더 잘 대접허  
 곡 그러는디.  
 이제 이 양반은 그니까 아마 정의 고클  
 어느 집 족보는 지금 다 아는 것이여. 아,  
 그래서 가서 흐면은 나 이 돌아간 어른 흐  
 고는 뉘 웨가로 진웨가로 진진웨가로 멩  
 촌이고 허면은 즈식들은 모르니까  
 “아이고, 정말로 산 때에 춤 다정하게 지  
 내서 오셨는가 보다.”  
 행 특별히 또 대접도 더 잘 허곡, 잘 모  
 시곡, 잘 모시곡 헛는디 그 이제 옆에 이제  
 그 사람 친구가 흐나 잇었어.  
 아, 보니까 ‘요 사람 일 년 삼백 육십일  
 저녁 한 끼는 공짜로 얻어먹으니 나도 흔  
 번 춤 그렇게 해야갓다.’  
 지도 그렇게 헤볼 생각으로 이제는 그  
 이제 아마, 멩 군데 가서 얻어 먹엇을 거  
 요.  
 아, 근데 이제 흔 집에 소상집엘 갓어.  
 가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는 요즘은 가서  
 저 뉘이나 소상, 대상 집에 가도 절만 요렇  
 게 헤신디. 옛날에는 조문 간 사람도, 처음  
 가서 곡을 헤서 울어.  
 “아이고, 아이고.”  
 울어놓고 절 헤서 상주한테 절 헤서 인  
 사말 하고 요렇게. 하이, 가서 이제는 곡흐  
 면서,  
 “하이고, 이 친구야. 작년에도 만나서 건  
 강한 줄 알앗는디, 너 이제 아니 죽어서 지  
 나가다가 보니까 하도 슬퍼서 들어 왔다고,  
 부주도 못하고. 들어왔다고.”  
 막 행 슬피슬피 상주에게 너부지게 절허  
 면서,  
 “하, 이 돌아간 친구가 나하고 어린 때

아이고, 기냥 강 뿔네깸, 이걸랑 노갓돈  
헝곡, 요거 가당 베 고프건 잡습센 해연 득  
흔 마리 싸 놓고, 떡 헝곡 뽕고라케 물에  
시꺼 주니까, 이젠, 거기선 혼참 이권 나완  
물 이경 가명,

“이거 너 먹으라. 널 베 고프게 헝명 나  
가 데령 텅경 뉘느냐?”

양반이라고 곳을 해영, 경해서, 이 하르  
방이 혼번은, 또 이제는, 아, 이제 어딜 가  
다가 베 고프니까 놈의 집의 초상침에 가  
서, -요 사이는 뭐 절만해영 부주 드령 말  
주마는 옛날엔 곡을 흠네다. 아니. 부주 드  
리기 전에 가서 곡하고, 부주 드령 또 곡하  
고, 이제 상제 앞의 곡하고 해서 인사말 하  
고, 우리 어린 때기장도 경 했습시다게. 지  
금도 촌에 가며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  
름 돌아간 디 가서는 곡만 해서 절은 안흠  
니다.-

경해서 막 슬프게, 슬프게 곡하고 해서  
그 상제안티 이제는,

“하이고, 내가 망인하고 춤 그만저만흔  
처지가 아닌디, 아, 생각치 아니해서 술이  
나 ㄴ찌 헝젠 완 보니까, 아, 죽어서 이렇  
게 상제질을 하니, 하, 뭐 가진 거 없어서  
부주도 못하고 이렇게 섭섭힐 수가 없고  
그냥…….” 헝니까, 춤말리카프덴 그 아덜  
덜은 그냥,

하이고, 아버님 친구 뉘시뉘, 이레 오십  
센 청해서, 이젠 잘 대접을 하는 거라.

그것을 이젠 삼등매가 봤어.

음, 그것을 봐 가지고 이녁도 이제는 그  
뽕을 분다고 어디 대정 뭐 볼 일 잇언 갓  
다 오다가 베 고프 보니까, 어떤 집의 소상  
을 헝거든. 소상을 헝시니까 들어가서 이제  
는, ‘하이 하이 하이’ 해서 이제는, 또 이제  
는 상제안티다가,

“하, 내가 춤말로 이제 그 돌아간 어른하  
고는 그만저만흔 처지가 아니라서 우리가  
흔 이불 속에 즘을 자고, 춤 뭐 그만저만

그냥, 그냥 춤 친한 친군데 하이, 작년, 재  
작년에 건강했더니만은 금년 추위가지고  
는…….”

“그 얼마나 친흔 친굽네까?”

“하이, ㄴ튼 이불에서 잠자고 뭐 춤 친한  
친군데…….”

부인 돌아간 덴디 ㄴ튼 이불에서 잠자고,  
친한 친구 옆의…….

“이놈의 세끼 이런 사기꾼, 거짓말.”

이제 그냥 폭삭 얻어맞곡 못 얻어먹고  
돌아왔어.

그 삼등매는 예전에는 상주들 옷 보면은  
남자 상인가, 여자 상인가를 딱 압니다. 옷  
이 표가 나. 달리 뉘어. 그니까 여자 돌아  
간 데는 가서는,

“하이, 우리 진 웨가로 육촌 뉘 우리 누  
님인데 돌아갓덴.”

거짓말 붙여 쓰는디, 이 놈은 여자 돌아  
간 데 가가지고 ㄴ튼 이불 속에서 잠자고  
그랬다고 헤부니까.

아, 그, 그것도 그, 그, 그 예전에는 예,  
요즘 ㄴ트면 이제 저기 요즘 말로 허면은  
중, 노이, 우리 제주도는 장남이헝 허는디  
그 장남을 데령 살면은 주인이 먹고 입는  
것은 철저히헤 줘야 뉘니다. 그걸 아녀고  
일 부러서는 안 뉘어.

진 서양 사람들허고는 달라. 서양 사람들  
은 그자 노예면은 그냥 일만 부러먹주마는,  
우리나라는 웨 그러나 그러면은 그 노예  
신분이 낮거나 그런 사람도 양반의 손과  
발과 같은 사람이라, 사람이 손과 발이 병  
이 들면은 몸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헤야만이 그 양반  
주인이 편헤.

그니까 주인이 모든 데리고 사는 그러한  
장남을, 신분을 보호헤주곡, 맥여주곡, 살려  
주곡 허는 그 책임을 가져야 뉘는 것입니  
다.

근디 이제는 그 삭달, 그 분네는 춤 옛날

쳐지가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도 내가 몰라서, 이제야 와서 조문하게 됐니 대단히 미안하다.”고.

상제가 방장대 들런.

“이놈으 즈식, 너가 우리 어머니하고 혼이불 속에서 즈을 잤느냐?”고.

-상제 옷은 아버지가 돌아간 때는 이 밑에를 영 꼬부리고, 어머니가 돌아갈 때는 이것을 폐와서 썰로만 영영 감추와 붙주게 - 감추와 부니까, 그 삭달제장은 그것을 봐가지고 남자 돌아간 때니까 가서 탁하게 했는디, 삼등맨 그 뿐 봐서 그것은 몰르고 여자분 돌아간 디 가서 이불 속에서 즈 잘 정도로 친해놔노랜 해 부니까, 아, 게, 방장대로 얻어맞일 수베끼 엇입주게.

게서, 이젠, 그 분네는 경해서 이젠 혼대 얻어맞았젠 흡주게.

예, 그분입주게. 제삿집도 다니곡, 제사 얻어먹는 식으로 소상 조문도 해영 먹젠 헷다가 그냥 얻어맞아십주.

게, 제삿집의 강사 딱립네까게, 고맙탕 해주.

거, 어디 먼 디 갖단 소상칩의 간 여자분네 돌아간 디 가 가지고 혼 이불 속에 즈자노랜 해 부니까게…….

예.

김씨엔 흡네다, 김씨.

어수다. 삼등매는 난산리우다, 삭달제장은 삼달리고.

그 과거 본 강성익이라고 유명 혼 분네 후손이고.

그 양반이 제주 향교에 휘이 보레를 가는디 그 이제 춤 몰 끄는 하인 혼나 데리고 갖당 아니 근디 그냥 돈이 딱 떨어져 부렸어.

게서 휘이 보고 다음날은 돈이 떨어져가지고 밥도 못 사먹고, 조반을 굶어서 이제 오는 판이라.

하, 굶어서 이제 오는데 저기 와홀, 와산인가? 그 동네를 지나가 오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 곳을 체 놔가지고 막 하고 잇거든.

그니까 이제 그 삭달제장이 그 장남이라  
“니 요 몰 요디 강 출 좋은디 강 몰 맥염시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사 돼는디. 돈 떨어져부난 아니 몰 출도 못 맥영 베고 프난.”

하, 게난 그 장남은 그 출 강 맥이면서 보니까 이 어른이 곳허는 집으로 들어가. ‘저 뭇허래 들어가는고?’ ㄹ만히 보니까 턱허게 들어가더니마는

“아, 여기 수심방이 어느 어른이꽈?”

수심방은 우두머리.

“요 어른이 기우다.”

하, 절 너부지게 허면서,

“하이, 나도 좀 놈의 일을 좀 허는디…….”

헨 것은 무당을 허는디,

“아,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이디 막 곳을 햄선에, 하이, 내 감제부친 그냥 가지 못헨나도 곳 헨 석 해동 가쿠다.”

하 이젠,

“경 허십서.”

아, 이제 영허난 그, 이 양반이 곳을 하는데 곳이라고 혼 것이 지금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저기 뭐시냐? 그 이제 구신도 차례가 다 잇는 거여. 그냥 무작정허는 거 아니여. 서점에 번역 뵈어, 18사략이라고, 그 18사략

책, 옛날에는 스략 축언이라고예, 거기 보면은예. 무당들이 청하는 구신들이 다 써 잇어.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복희씨, 신농씨, 열 여섯 쪽 써 잇거든.

아, 이 양반이 그냥 천황씨, 지황씨 차례 차례 차례 쪽 허는 거여. 무식헌 무당들이 잇다가 착각해가지고 바파서도 할 수도 잇어도 그냥 이렇게 하거든. 천황씨, 지황씨 해도 차례 그냥 넘겨서 허는디 하, 이거 보통 양반이 아니여.

아,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고, 춤말로 하, 큰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가지고는 하, 이젠 이거 몰라졌습니 다.”

하고, 아이 음식 잘 대접허멍

“하이, 우리영 꺾치 메틀 곳 꺾치 해주고 가십서. 하이, 그렇게 혼 뉘차도 안 틀리게 흐는 원, 그런 선생을 본 일이 없는디 ……”

“아이고, 나도 이제 집에 가믄 이치록 막 굿해도랭 훗아오는 사름 많아부난 경 여러 날 꺾치힐 수도 없고 나 이제는 빨리 그냥 가야돼쿠텐.”

허난,

“하이, 그냥 가민 웹니겐.”

곳 허던 닭고기도 싸 주곡, 떡도 싸 주곡 가다근엥 점심 잡쌍갑센 이만이 싸주난 가 정오란 그 머심꺾라

“이거 느진 음식이여마는 니 흔적 먹영 베불르라. 나도 먹엇져.”

허난

“하이, 지금 상제님 거 뵈허는 일이파? 누게 보믄 어떻허젠. 아니 시방 그 곳을 헛 져 소문나믄 그거 어떻웬, 어떻허젠 영험수 과?”

“야, 이놈아, 나 니 들양 당기난 맥여야 지, 그거 안 맥영 텡기믄 나가 나 책임인 디”

거 흘 수 엇이



|  |   |
|--|---|
|  | <p>“어디 강 이 말만 곧지 말라이.”</p> <p>영 자기가 하천한 직업이라도 머심 먹영 살려야주. (전화 통화)</p> <p>옛날에는 다 경혜근영 남신디 곳인 말도 요즘 ㄱ치 그저 허는 건 촌놈이고, 놈 고쳐 줄 것도 년지시 고쳐주곡 해야주, 바로 요즘 ㄱ치 허른 촌놈, 양반 아니.</p> |
|--|---|

### 8. 오훈장과 그의 계모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오훈장은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계모 슬하에서 자라야만 했다. 그러나 계모는 어린 봉조를 키우기 위하여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오훈장은 자라서 학덕을 쌓아 훌륭한 선비가 되었지만,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벼슬길에 오를 수 없어, 늘 한탄하고 있었다.</p> <p>어느 해 정의향교에 훈장으로 초대받아 홍학기를 쓰면서 학덕이 충분하지만,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제주 선비들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은근히 임금께서도 읽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p> <p>그 후로, 오훈장 자신의 지위는 향교 훈장에 머물렀지만, 그의 제자들만은 여럿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훌륭케 키워준 계모의 덕 때문이다.</p>                        |  |
| <p>오조리 오훈장이라고, 보통 ‘오조리 오훈장’ 흐며는 지금 뭐, 세 설난 아이도 통합니다.</p> <p>경헌디, 그분네 어머니는, 사임당 모양으로 어머니가, 그분네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라도 아주 그 훌륭한 어머니라십주.</p> <p>그 오훈장이 이름이 오봉조라고, 세 봉째 흐고 복 조젠디, 그분네가 어려실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뒤에 계모로 들어오신 분네가, 그 계모가 아주 춤 어진 어른이라마썸.</p> <p>계모라도 그렇게 자식을 아주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는데, 그 자식 교육에 대단한 힘을 써서마썸, 그 분네가.</p> <p>계니까, 그 때는, 오조리는 해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물질을 흐는데, 옛날 그, 이제 그, 옥당, 큰양반 집에는 물질 안 해수다. 우리 제주도에 건증 중산촌에는 물</p> | <p>저 그, 훈장은 건 실지로 그 저, 탐라지에도 나곡, 아니, 글을 잘 지영 탐라지에도 자세한 내용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네, 그니까 탐라지에.</p> <p>예, 목사나 그런 관리가 아니고 그냥 평민이 지은 글이 계속 실려지기는 아마 그분네뿐일거요.</p> <p>그, 이제, 그니까 그 분네 그리 학식이 좋으니까, 그 목사가 일부러 저기 정의 향교에 서당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요즘 ㄱ트면 사립학교를 만들어 준 거주.</p> <p>그 분네가 거기에 내력을 쓰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p> <p>“문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p> <p>그건 바로 그냥 문벌 중시허젠 말은 안 허고,</p> <p>“제기를 만드는 데 그 중국 유명한 곤륜</p> |

질을 안하느니, 오조리도 거기는, 중산촌에 유림만 사는 딴 ‘양촌’이라 그리 하고, 해촌에 그냥 유림 안 사는 동네는 보통 ‘이촌’이옴도 하곡, ‘포촌’이옴도 하곡 하느니, 오조리는 그 반반 서터 살아마썸.

경헌디, 그 집도 본래는 양반이라 물질을 아니하느니, 역시 그, 아마 계모니까 조끔 아마 들어올 때 지체가 늦인 집이서 들어왔던 모양입네다. 그 어른은 물질을 하는데, 물질하는데 요 사이는 학교 해서 교육을 해주마는 옛날에는 보통 서당에 보내곡 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 시키젠 하며는 ‘독스장’이라고 해서 선생 한 분을 초청해영 딱 이녁 집 아덜만 마르치게 흡주게. 예.

독스장이라고 해 가지고는.

해서, 이젠 그 어머니가 춤 친아덜 아니라도 아주 그 교육에 열을 가자 가지고 이제 그 독스장을 청해서 공부를 시겨십주.

흐를은, 어멍은 바당에 가고 선생하고 오훈장, -훈장 안 댜 때에- 아덜은 집에서 공부를 하느니, -촌에 지금도 곡식 하민 여름에 마당에 널영 들립니다- 여름에 보리 마실 끝에, 이젠 보리 널어두고 어멍은, 이제는 바당에 물질하레 가 불고 해서 공부를 하느니, 소나기가 짜르르하게 오니까, 이제는, 그 선생하고 아들하고 보리를 담아십주게, 젓어 부니까. 담으니까, 또 어머니 바릇 갖다가 -오조린 바로 바다에 부터수다, 집덜이.- 것마라 ‘날레’옴 하느니, 날레 담으레 집덜레 돌아완 보니까 담앗거든 말이우다.

경해서 아들은 칭찬을 받아질 중 알았는디, 그 아주 기냥, 아주 그 어머니안티 뉘기 책망을 얻어들어십주.

계모안티. 아, 그 아덜은 날레 담양 착흔 말 들젠 혼디, 아, 이제 날레 담앗젠. 해석을 못해서 혼참 이제 헛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이,

“나가 경해도 아들이라도 교육시키자고

산에서 나는 옥만 가지고는 만들지는 않는다. 궁궐을 짓는데 꼭 태산에 잇는 소나무만 베어서 쓰지도 안 현다. 재목만 좋으면은 어느 꾸석빠기 꽤나 쓴다.”

그니까 문벌 보지 말고 우리 제주 촌 사람도 쓰라 그 말이여. 글 내용이.

그래서 쪽 그런 분넨데. 이제 그 분네가 어릴 때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쨌 어머니가 왔는데, 그 두 번쨌 어머니가 아주 이제 춤 그 덕성이 좋으셨던 분이래, 한 켜네. 또 당신이 와서 아이 둘을 낳았어. 적은어머니가.

낳았는데, 그 아마 밑으로 형제는 쪼끔 아마 머리가 씨원치를 못허고, 오훈장은 어린 때부터 아주 그 머리가 이제 똑똑해. 행이건 마르칠만 허다고.

이래서, 이제 허니까 이제 그 분네는 저기 오조린디 거기 바닷간데, 해녀도 허곡 혼디 이제 해녀하면서 가르치느니.

옛날에 즈식을 잘 마르치젠 허민 물론 보통은 서당에 보녕 가르치지마는 독서장라고 해서 선생 혼자 초청행 혼자만 마르쳐. 아무래도 여러 사람 가르치젠 허민 여기 신경쓰고 저기 신경쓰고 하니까, 해니까 그 이제는 해녀를 해서 또 뉘을 뉘 독서장을 모셔당 글을 이젠 마르쳐, 마르치느니.

흐 번은 이 마당에 보리타작해가지고 다 널어 놓곡, 그 어머니는 바다에 즈수질 허레 가 부난에 이제 비가 왔단 말이여. 그 보리 젓어부난 안 뉘니까 공부하당 내비두고 보릴 다 이젠 담아 뉘어.

행 이제 와근에 착허던 허카부덴 헨디 그 어머니가 이제 바룩허게 오랑 뉘에 팔 바짝 나가 독서장 안치명 공부시키당 보난 그 뉘 보리날레, 그드레 독서장 안 안치민 못베왕은에 그거 험젠 허난,

“아, 이 보리를 비맛앙 썩어불른 안 뉘난 게 그걸 먹영 살 거난 그걸 우선 담아살 거 아니파?”

독서장까지 왔저서 흐는디, 시간이엔 흐 것 은, 잠깐 그 쏘나기 오는 시간은 가불민 그 만이고, 보리는 또 여름 뱃디 몰류민 그만 인디, 그 보리를 아까와해 가지고 학문을 등한시해 가지고 이 다음에 크게 될 수가 없는디, 나는 크게 돼기를 바라 가지고 흐 는 거지 보리가 나 눈에 보이지 안 해서, 나는 그렇게 열의를 내 가지고서 흐는 중 인디, 그까짓 보리를 애껴 가지고 선생도 보리를 담고, 배우는 제자, 아덜도 담고 흐 니까 선생도 즈격 없고, 그렇게 흐며는 아 델도 즈격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오훈장이 상당히 그 때 예 분발을 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부지런 히 했습니다.

공부를 부지런히 했는디,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제주도를 변방이라고 해서 과거급 제도 현령베끼는 베슬을 안 줍니다. 우리 제주도 흐고 함경도는 변방이라고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도 현령베끼는 안 주고, 진 사에 급제를 해도 성균관에 입실을 안 시 겨줘서 하직베끼는 안 시겨 줍니다.

경해서, 오훈장이 공부를 해서 학식이 대 단이 가지고, 덕망이 잇고 이렇게 돼여서 이 다음에, 이제는 크게 대성을 해서 봐도, 공부를 해도 써먹을 디가 없는 거라. 물론 과거해서 영달흐자고 공부흐 것은 아니지 마는. 그러나 이 제주도에서 공부를 해 가 지고 뭐, 뭐, 뭐, 써먹을 디가 아무 디도 없 어.

츨, 이것이 한탄해서,

‘자, 이거 츨 사람이 이거 기왕 나도 이 런 섬에 나 가지고 이런 욕을 당흐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디, 그 때 마침 황최 언이라고 흐는 목사가 제주 목사로 와 가 지고, 이제는 -그 분네가 일을 많이 했습니 다.-

최언. 황최언이라고 흐는 분네가 와 가지 고, 이제는 정의향교에다가, 좁으니까 그

보리 돌리는 건 내일 돌리우민 될 거고, 그 이제 독서장헐 때 공부안 행 보리날레 헛젠 그냥 허난 그 오훈장이 츨 아이고, 이 젼 어머니 그 거시길 알아서. 이제 츨 공부 만 허렌 걸 나가 츨 이제 거, 츨 먹을 걸 우선 생각헛젓구나.

행 부지런히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 과거를 봤는디, 과거에는 떨 어지고, 그 예비시험에는 합격이 돼고, 경 해서 이제 과거 급제는 안 헛어.

그런데 이제 그리 문장이 좋으니까 소문 이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서당을 지어 췌는 디, 저 췌는디, 그렇게 해서 키운 때문에 그 오훈장이 어머니를 츨 나이가 많아도 극진히 츨 잘 모셨어. 그러다가 돌아갔어.

예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면은 그 이제 두 번째 온 어머니는 복을 쪼끔 낮게 입습 니다. 그 복 입는 기간이 차이가 있어. 의 복도 차이가 잇곡.

그레 그 오훈장 제자 중에는 과거를 세 사사람이 급제를 헛어. 오훈장은 급제를 못헛 지마는.

제자들이 급제를 헛어. 경 해서 그 훈장 어머니가 돌아갓젠 허니까 제자가 조문 올 거 아니요. 게니까 이제 고명학이라고 저 상흔디.

조문을 와서 그 상복입은 걸 보니까 낡 은 어머님허고 꼭가치 상복을 복을 입는다 말이여.

옛날 옛법엔 어그러질 일입니다. 쪼끔 낮 게 입어야 돼는디. 그레 이제 조문을 허고,

“아이, 선생님 ㄱ튼 어른이 실례를 헛습 니다.”

“뭘 실레냐?”

“상복이 이제 본생 어머님하고 같지 않 습니까?”

그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 아니라시민 나 저 사람 ㄱ튼 제자가 나한테 잇겟는가?

옳에다가 다시 서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분네를 훈장으로 초빙을 해십주. 초빙을 해서 하니까, 오훈장을. 학문이 노파지니까 훈장으로 가십주.

갖는데, 요사이는 뭐 대통령안티 우리가 펜지를 할 수 잇지마는 그 때는 보통 백성으로는 나라에 글 올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 훈장으로 가 가지고, 이제는 서당을 설립할 내력을 「정의향교 흥학기」라 해 가지고, 그 서당을, 이제는 황최언 목사가 서당을 지어서, 이제는 그 많은 학생들을 유화를 시키는 과정을 기록으로 써서 보통 이런 디디 부쳐 놓 주, 현판을 하는데.

그것을 오훈장 보고 ‘지으십시오’ 하니까, 그 때에 마침 잘 됐다 시퍼서…….

그래서 그 분네가 글을 뭐이라고 짓느냐 하며는,

곤륜산에 잇는 옥은 파다가 다까서 그릇을 만들며는 그 종묘에 -임금님털 사당에- 그릇으로 쓰고.

또 기픈 골짜기에 잇는 소나무는 베여다가 그 높을 까까 가지고, 이제는 대들보로 만들어 가지고 하며는 궁궐을 짓고.

왜 기픈 산이나 그런 곤륜산에 나무나 옥은 파다가 궁궐에 대들보도 맨들고, 제사 그릇도 맨들고 이렇게 쓰면서, 사름은 왜 이제 변방에 낫다고 해서 써 주질 안하고 꼭, 이제 서울에 잇는 권문세가의 아덜덜만 꼭 나라이서 써서는 변방에 난 사름은 버리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경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서도 못하는 그것을 한탄을 하는 글이고, 또 어떻게 보며는 이 글이 임금안티 들어가민 혹 고쳐지길 바라서, 써서 하니까, 그 황최언 그 목사가, 이제는 -옛날은 그 자기가 할 일을 다 장계를 올리지 안합니까?- ‘이리저리해서 서당을 올렸습시다’ 해서 그 기록을 ㄱ찌 첨부를 해서 보내니까, 그때 그 임금이,

복은 은혜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나 춤, 법으로 더 입으라면 더라도 입 주마는 그렇지 못허꼭, 난 또 나가, 난 어머니나 키워준 어머니나, ㄱ찌 복을 입어야지. 법으로 이제는 그 마련이 뻬지마는 그건 이제 보통 가정에서 하는 얘기고 나 같은 경우는 춤, 저 어머니가 아니라시면은 자네ㄱ튼 제자를 내가 키워낼 수가 없어. 그만한 예가 잇는디 복을 낫칭 입영 뉘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주. 한 씨. 이쪽에서는 그 이제는 그 춤 뭐 뭐, 여자분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어른.

그런 어른. 그런 어른이주. 요즘에는 이제 뭐, 뭐, 돈으로만 계산하는 시대니까 우리 제주도하면은 김만덕 할망 해주마는.

김만덕 할망을 우리는 뭐,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돈 내놓는 것사 누구든지 허는 일 이니까 아니, 안 할까?

뭐 것도 만덕 할망도 위대한 어른인데 그러나 나는 그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에도 돈에도 안 그려준다고 하길래 그거는 좀 마땅치를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정신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사 한 거야. 잇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꽈?

아니, 그니까, 서울 가가지고 임금님이

“너 소원이 뭐냐” 할 때,

“우리 제주도 백성들 이것 좀 살려 주십서…….”

“나 금강산 구경시켜 주십서.”

그거 무슨 그거 오훈장 어머니 한 씨만 생각으로는 좀 그 분네만 못하다고. 좀 그 집안에서 들으면 좀 좋지 않게 생각허것지 마는.

오훈장은 오조리, 어머니도 오조리, 것도 오조리. 산소도 잇고 다.

“하, 이거 참 잘못된 일이다. 거 누구라도 생각될 일 아니냐? 꼭 ㄴ쁜 나라에 꼭 ㄴ쁜 백성인데, 꼭 ㄴ찌 과거를 해도 제주 하고 함경도는 변방이라고 해서……, 안 돼 겠다. 이거 법을 고쳐라.”

해 가지고 이제는…….

그 뒤에부터는 우리 제주도에 는 장령 ㄴ지는 배슬을 주었습니다. 계서, 그 분네 제자 중에서 강장령, 강성익이라고 삼달리서 난 분이다. 고장령, 지금 홍노 분네, 고명학. 부장령, 부종훈이라고 거기도 홍노 분네. 그 분네 제자 중에서 세 분네가 과거 급제를 하고, 그 분네는 과거도 안하고, 배슬도 안하고 했주마는, 이젠, 다 이젠 장령 이 돼십주.

그래서 그 분네, 그 학문도 노프지마는, 그 어머니가 시간을 애끼는 ㄴ음이 뭐 대단한 어른입주.

경해서, 그 우리 여기 지방에서는 아주 ‘오훈장’ ㅎ며는 ‘글’하고, ‘오훈장 어머니’ ㅎ며는 아주 현량 ㅎ기로는 제일, 여자지중에서는 으뜸으로, 그렇게 칩니다.

## 9. 자운당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신평리를 가로지르는 냇가에 좌정한 신평리의 유래담이다. 토산리 본향당의 처녀 신(神)은 빈번한 왜구들의 약탈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신평리 본향당 신(神)인 개로육서또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다.</p>                        |   |
| <p>처녀 신(神)은 가마를 타고 신평리로 오는 길에 갈증이 나자 가마를 세워놓고 말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셨다. 이 사실을 알아챈 개로육서또는 체통없는 계집이라고 힐난하며 내쫓아 버리자 처녀 신은 냇가로 가서 따로 좌정하여 마소 등을 돌보는 수호신이 되었다.</p> |   |
| <p>우리 동네 자운당이 이수다. 자운당이 있는데, 그 내 한가운데 이십주. 내 한가운데 잇는디, 이젠 그 토산당이 우리 동네에 씨집을 오는디, 씨집을 오는디, 유월들인모양</p>  | <p>아, 거는 그냥 무속에서 하는 당인데. 이젠은 내가 저, 저, 우리 동네 내예 가운데 이섯는디 그 다 정비뉘부난 부서져부런에 지금은 어신디.</p> |

이라마씀.

가멜 탄 오는디, 물이 먹고 시픈디 말이 우다.

토산당이. 아, 물이 먹고 시픈디 가멜 타고 물을 도랜 흘 수 없고 해서 춤안 오는디, 이제는,

시집을 오는디,

토산리에서 신평리로 오는디,

우리 동네 당에 씨집을 오니까게, 와십주게.

토산당이야마씀?

거, 이제 자꾸 왜베가 들엉, 놈의 나라 마을에청 왜베가 자꾸 쳐들어와 가니까 그것을 도저히 막아 감당할 수가 없고, 왜베가 쳐들어오면 그 토산당은 처녀인 때문에 자꾸 겁탈호젠 호곡 호니까, 이제는 씨집을 가야 뤼켄 호디, 그때, 이제는 양서육서개 로육서또가 심이 세고, 군줄이 많고 위품 종곡 호덴 호니까, 이제는 개로육서를 청해서 토산 놈의 나라 왜베를 막안. 이제는 왕공 가풀 길이 엇이난

‘난 소첩으로라도 들어강 살쿠덴’ 하고 했어.

경호건 경호랜 호난, 이제는 붉은 택일해서, 이제는 예장 받고 해서, 이제는 가멜 타고 신평리로 가십주.

가는데, 아, 이제는 물을 먹고 시픈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체면상 물 도랜도 못 호곡 호디, 게도 막 목이 물란 호는디, 마침 쏘나기가 짜르르르하게 오니깐, 길바닥에 물이 빈들빈들 고엿는디, 물이 딱 지나가면 발자국이 딱 안납니까? 이제 물이 발자국에 흥건이 고이니까 물 먹고 시픈 김에 얼른 내려 가지고 율윗 밧디 보리 딱 찢라서, 걸로 해연 쪽 빨아먹언, 물을 먹어부니까, 이제는, 그 개로육서는 봐 가지고,

“거 예웬네가 체통엇이 물 발자국에 걸린 물을 그렇게 물 먹고 시퍼서 하인덜 보는 앞의서 물을 먹었다.”

이제 자운당은, 그니까 우리도 동네마다 그 제주도에 무속으로 허는 본향이 잇는디.

우리 동네 그 본향은 귀신이 셋이여. 셋인데 왜 셋이나, 원래는 둘인데…….

우리 요쪽에 오면 토산당이라고 당귀신이 있잖에. 유명한 당 귀신이 처녀귀신인데 그 귀신이 우리 동네 당에 이제, 거, 저기, 뭐야, 우리 동네 당에 부인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와서 여기는 이제 세 당이 뤼다고 허는데.

그 이제, 그니까, 토산에서 이리로 올 때 예, 올 때예, 이제 오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무리 목마르고 해도 저 뤼시기냐, 이제 체통잇는 사름들은 물 끓앗던 물은 안 먹거든.

이제 안 먹는디 하도 목 마르니까 물 끓앗던 물을 마셔버렸어. 게니까 그것이 이제 구신 세계에서는 췌가 뤼어. (전화 통화)

경 허난에 그 이젠 여기 본향 하르방이 고약하다고 거기서 이제는 얻어먹으렌 해서 거기가 자운당이 뤼서 거기서도 여기도 먹고, 여기도 집이 잇는디 거기도 또 같이 모시고 해서 두 군데서 먹는 거주.

모시고. 귀신은 그러니까 또 그리 인연 잇는 데는 당이 뤼는 모양.

경 해부니까 거기는 이제 철없이 먹엇부렀다고. 어린 아이 아픈 사름들은 거기 가고.

|  |  |
|--|--|
| <p>고 해서,<br/> “이제 널라그네 물 먹고 싶지 못해영 흐<br/> 니까 물 퍼먹을 딜로 내창에나 안자그네<br/> 물 퍼 먹으랜” 해 가지고, 그 내 가운데 앉<br/> 혀 부니까, 거기가 자운당이 됐엇젠.<br/> 예, 경해연 지금도 무당이 가서 뗏을 흐<br/> 거나 경은 안 흐고, 뭐 이제 췌 그든 거<br/> 일러 불거나 몰흐고 관계 신 거 흘 때는,<br/> 췌 잃어 병 좇으레 갈 때나, 몰 잃어 병 좇<br/> 으레 갈 때는 그 당에 밥해영 가그네…….<br/> 영 텅겨가민 잘 좇아진댄 해서 이제덜도<br/> 텅깁네다.</p> |  |
|--|--|

### 10. 들음돌 내던져 버린 할머니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들음돌’이란 등그렁고 큰 바윗돌인데, 지난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br/> 에 늘 놓아두면서 젊은이들이 힘 내기로 들어 힘을 기르던 돌이다.<br/> 옛날 신평리 청년들이 모여 서서 들음돌 들기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은 애써<br/> 보았으나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 앞을 지나던 강씨 집안 할머니가 그 돌을 들어다 멀리<br/> 내던져 버렸다는 이야기이다.</p>   |  |
| <p>우리 증조모님도 콩 흐 섬은 불림질해영<br/> 거똥이 들러났젠 경 이야기흐고…….<br/> 우리 동네 들름돌이 흐나 이수다. 동네마<br/> 다 다 잇는디, 다 잇는디, 강달원이 모친,<br/> 그 할망은 몰라도 강달원썬 시방 일본에<br/> 살암수다.<br/> 제일 막끝에까지 힘 썬 분네는 그 모친<br/> 인디, 우리 동네 들음돌은 부듯이 들릅네다<br/> 게, 우린 못 들르고.<br/> 강달원 모친. 강달원이 어멍이 힘이 췌어<br/> 났는디, 우리 동네 들름돌은 우리 그든 건<br/> 못 들르고 아주 힘 췌 아이덜은 간혹 부듯<br/> 이 들러 올릅니다, 부듯이.<br/> 이렇게 흐는디, 지금 그 들름돌이 우리<br/> 동네 제일 한복판 이사무소 앞의 이섯던<br/> 것인디, 지금은 맨 구석 ‘장제못’이엔 흐</p> | <p>아, 것도 실지로 잇엇던 사름인디.<br/> 거 지금 손자가 혹시 아마 일본에 살앗<br/> 을 거요. 뭐 요즘 경 안 허는디, 중간에 흐<br/> 번 왔다 갔어. 이 동네 사름인디.<br/> 예전에는 동네마다 들음돌이라고 젊은이<br/> 들 힘 거, 이제 겨루기허는 돌이 잇거든.<br/> 우리 동네 돌이 그것이 아주 커요.<br/> 어, 이제 컨데, 그 할머니는 성씨가 뭐인<br/> 줄 모르주마는 그 집은 이제 강침인디 저<br/> 말동넨디.<br/> 아, 흐 번은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그 돌<br/> 을 들러서 힘자랑을 허는데 들기는 겨우<br/> 들러도 우곳 들르지 못헤. 우테까지장.<br/> 경 행 막 이렇게 하는디 이 할망은 물<br/> 질영 오당 그거 뵙,<br/> “그거 뵙까지거 그거 돌 하나 못 들렁</p> |

|  |   |
|--|---|
| <p>밭, 놈의 밭 대왓 구석에 들어간 잇어마썸.<br/>       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나가 잘 들른다, 내가 잘 들른다.’ 부듯부듯 들르니까, 그 할망이 물 질연 오다가,<br/>       “헤이, 즈식덜은 하고, 스나이 놈의 새끼덜이 그걸 못 들러 가지고는 이레 주라 보저.”<br/>       흐멍, 물 진 차 그 돌을 들러서 -거리가 상당흡주. 혼 이백 메타(m) 돼는디- 거기 강 대왓더레 드리쳐 벗젠마썸.<br/>       경해서 시방 끄집어내지도 안 하고, 요사이는 그 들름돌 들르는 뭐 거시기가 엇이니까 거기 그냥 내 부렸습니다.<br/>       경해서, 그 힘이 실화로 경 썸 모양이라 마썸.</p> | <p>경 험시니?”<br/>       물 허벽 진 차 그 돌을 우쑈 들렁 그 옆집 담 안트레 혹 앓앙 들렁 데껴부난 청년들이 기가 찬에 동네에서 장정이라노렌 자랑하는 청년들에게 못허는디 그 여자 할망이 물 질연오단 들렁 우쑈 그것도 그냥 보통 들른 것이 아니고 들런 그 옆집 담 안트레 혹 들러 데껴부난에 짐 짊어진 차로.<br/>       게난 뉘, 예전에는 그리 좀 특별하게 힘센 할망도 많고, 뉘, 뉘, 힘 썸 또 뉘 남자도 많곡, 경 헛던 모양이라.<br/>       또 그 옆집의 그 할망은 거긴 김칩인다, 거기 할망도 힘 셋젠 현디, 그 할망 만이는 못 썸어도.<br/>       콩을 불림질헤근엔 혼 번에 혼 섬씩 들렁날란. 하르방은 혼 댓말뵈의 못 들르는디, 하르방보단 더 힘 썸에.<br/>       게난 하르방은 그거 무거왕 못 들르난 불림질허는디 그 저기 난간에 앓안에 옛날엔게, 공부허는 선비들이 어렵주게. 일허곡 공부헿 베슬허곡 헤야 뉘난 혼쓸 시간이 잇이난 그디 잇인 책 에영 뵈시난 콩 혼 섬 등 멩텅이 들렁 왕 등어리드레 톡 올려 놔부난 하르방이 납작 엎더전에.<br/>       (웃음 소리) 헤헤헤헤.<br/>       우리집에는 힘센 할머니 엇언. 강 씨 할망, 강칩잇 할망.<br/>       ㄱ싸 콩 혼 섬 들른 할망은 김칩잇 할망이곡 현디, 그 때 옛날에는 특별하게 그리 힘 썸 할망도 잇고.</p> |
|--|---|

### 11.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힘이 썸 할머니와 힘은 약하지만 기지가 뛰어난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br/>         노부부는 걸핏하면 싸웠는데 그 때마다 할아버지가 질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뛰어난 기지로 창피스러운 위기에서 잘 벗어났다. 화가 난 할아버지를 잡</p> |          |

고 지붕 위로 내던져 버리면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에게 호박 타레 지붕 위에 왔노라고 변명하는 등. 할아버지의 기지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일정 때 술 단속 나온 일경도 그의 기지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우리 동네 또 ‘오백이터할망’이엔 혼 분네가, 그 분네는 오래엇는디, 그 할망도 춤 힘이 썰서,

오백이터. 것도 당합니다, 당호.

오백이터 할망도 힘이 썰어서, 그 할망은 ㄱ짜 굴은 우리 증조모님 모양으로 콩도 혼 섬, 그런 건 거딱엇이 들르멍 혼디, 하르방호고 싸움호민 하르방이 언제나 지어, 할망이 힘이 썰어노니까.

혼번은 정제에서 싸완, 막 맞부턴 싸와네 하르방이 할망안티 얻어맞일 판이라. 맞일 판인디, 또 그 하르방이 기지가 잇주. 맞는디 동네 사름이 어떻해연 딱 들어갓다 말이우다.

창피스러울 거 아니파? 상통일 탁탁 털멍 나오멍 죽게 맞아그네 뜨린주룩,

“저런 녀은 저렇게 해야 버릇을 ㄱ리치지?”

경해서 모면을 호고, 또 혼번은 그냥 어떻해연 마당에서 썩다네 그만 하르방을 지붕 우터레 뺑호게 앗안 던져 부니까, 허허, 동네 사름덜이 쳐다본다 말이우다. 쳐다보니까 호박 타레 올라간 것 ㄱ치 해연,

“이거 큰 호박 타카, 족은 호박 타카?”

이렇게 해영 경 창피는 모면호곡 해도, 그 할망이 아주 경 힘이 썰고, 그 하르방이 경 기지가 잇어 가지고 그 하르방이 왜정 초까지 살아네 구장 노릇도 해낫는디.

그 하르방이. (칭취불능)

왜정이 딱 뒀니까 금주령이 내린 모양이라, 술을 못호게.

술을 해 놓아서 냄새가 마당까지도 막 나는데 술 조살 왓젠 호니까,

‘하, 이거 어디 강 대왓더래라도 곱져야 쓰켄.’

해연 그 술통을 겨우겨우 들런 대왓더래

아, 건 하르방은 이제 힘은 썰진 안 호고, 이제 그 지레도 춤 좋곡, 힘은 안 썰고 현디.

그 하르방도 상당이 이 우리 제주도말론 이견을 잘 내어. 그런 건 잘 허는 하르방인 데.

힘은 할망만이 못하난 맨날 할망한티 지주. 진디 오백이터 하르방은게 양반칩 하르방 베끄티 나오문,

“힘”

혜근앵 춤, 막 우리 동네에서는 뭐, 뭐, 춤 뭐, 아주 춤말로, 그 속똥 말로 대장 노릇허는 하르방이난에 베끄티 나오면 뭐 막 큰 소리 탕탕 치고 허는디.

한 번은 그 할망이영 집의서 싸완에 할망이 그 하르방 집 우트레 확 앗앙 탁 데껴부난에 계난 옆의 넘어가는 사름들은 그 할망이영 썩는 거 데껴부는 걸 이제 보난 하르방은 지붕 우에 올라가보난 창피스러울 거 아니라? 경허난에

“이거 큰 호박 타카? 족은 호박 타카?”

허멍 지붕 위에 할망 데경 올라와돈에 그 호박 타레 올라 간치룩 동네 사름들 봐부난에

“이거 큰 호박을 타카? 족은 호박을 타카?”

경 헨에 그 이녁 춤 그 이서 머리 썩에 창피 면헛젠.

그 하르방은 일본 웨정 때 ㄱ정 산 하르방인디 웨정 때 ㄱ정 살고 저, 그 조선 시대는 어, 웨정 시대에 지금 시대에는 이장이 영 허주마는 그 땐 갱민장이영 헛는디. 그 막을 이장이 갱민장도 호고 헛는디.

웨정이 처음 뒀가지고 술을 금헨 해 먹지 못호게 해신디, 경해도 이제 그 때는 요즘 ㄱ치 픈는 술이 엇어부난에 다 자기네

웁기젠 허는다, 그만 술 조사를 일본놈덜이 딱 들어갔다 말이우다.

경허니까 하르방이,

“하, 거 술 조사 왓젠 해연 난 미리 조사 오기 전에 강 미리 즈복해여그네 벌금 받아가랏 해 불젠 술을 내 놓단 보난, 불써 들어오라 부림수다마는, 잘 와수다. 이 술 동이 뿡 어서 받아가 봅서. 나 원 그 술해논 거 술아 불도 못허고 시방 나냥으로 즈수해영 곁으레 가젠 허난…….”

일본 사름이,

“뉘엔 곁암시니?”

허니까, 그찌 온 통역이, 영정 해염젠 허니까, 어이엇언 ‘허, 허’ 웃이멍,

“다시랑 허지 말민 벌금 안 받아가켤.”

해서 벌금 안 받아가켤 흡주게.

집의 제사도 허젠 허믄 쪼끔 해 놓곡, 술을 해냥 먹는다.

술을 해냥 그 술 해노민 혼 일주일 지나 근엥 혼 혼 이십 일, 스무날ㄱ장은 그 때가 막 술 췌는 기간이라부난 념세가 제일 날 때주.

그 때 다 이제 술이 익어가기 시작허믄 념세가 덜 나는데. 아 그 술은 바글바글 췌 념세가 나는데, 술 조사 완에 땡겼땡 허난.

“이걸 어디 강 곱져사지.”

안 뉘켤.

“뉘 디 강 곱져야지 술 념세 낭 안 뉘켤”

헨. 곱지레 마당에 앓안 그냥 그냥 술향은 못 들르주게. 향아리 밀으로 베를 영 냥 들러야 그렇지 앓으믄 술향 깨지기 때문에 아, 경 헹 들렁 돌리가 나오당 보난, 그 할 망 옷 들렁 나오당 보난, 술 조사하는 사람들은 오꼳 올레로 들어올 거 아니라.

경 허난 이제 그 하르방은

“아, 이거 술 조사 오랏젠 헨 아지방 술 몰랑 해 낫당, 이거 아정 강 술 잘못헹 와수덴. 스정허젠 헨에 아정 나가젠 허노렌 허난 마침 들어완. 이거 술 조사헤시믄 벌금 물 거건 벌금 몹센.”

먼저 얘기헤부난에, 경헤부난에, 정말로 경 헤신지 만지 징직허덴 헨에, 그 일본 술 조사하는 순검이 저 뭐냐,

“스원 오십 전.”

아마 구 원을 벌금을 물 건디, 스원 오십 전만 벌금을 메건에 반만 메겨췌에 먼헹젠.

그 하르방은 뭐 동네에서 그 어른 그 예전에 것ㄱ라 이서 잘 쓴덴 허주. 기지가 기발헌 거 보고 이서 잘 쓴땡 허주.

예전에는 그 뭐 관리들이나 상당히 요즘 모양으로 그렇게 막 뭐 직설적으로 뉘을 허거나 향의를 허거나 경 안 허고 그리 췌 경 이설 써근엥 췌 바로 표현은 안 해도 췌이 뜨끔허게 허주게.

그 하르방은 동네허고 멀리 춤 관청허고 댜, 이시민 그 하르방한테 가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근앵 다 이제는 해줘.

훈 번은 저기 호근이, 저 서귀, 거기 거 그 뒤에 고근산이라는 산이 잇는디, 어떤 때는 대정에 속허고 어떤 때는 정의에 속 허고, 고근이 바로 동네 뒷산인디. 대정에서는 자꾸 그 산을 가져가젠 했어.

겨난에 대정에서가 훈 번은 목사가 바파 지난에 우황을 많이 모안에 목사한테 선물로 드리고,

“아 거, 거기 우리도 대정 지역을, 대정 지역으로 해도 우리 가서 농사도 못 지고, 소도 못 지고, 아 그 동네 사름은 그냥 사용할 건디, 우리 멩의만 우리 대정으로 해 줘시면은.”

웨 그냐면은 그 대정쪽에는 산이 많이 없어부니까 게니까 아마 그 목사는 들어췌던 모양이라.

이제 호근이서는 그걸 알았어. 허, 이젠, 가서 또 뭇을 항의해가지고 찾아와야 뉘겝는데 거기서 그 이제 요즘 그트면은 진정서 쓰고 이렇게 하다가, 신흥리 그 하르방 좀 그런 이설 잘 한텐 하니까 그걸 가서 좀 힘 빌자고, 그튼 김 씨 일가끼리 멀어도 찾아왔어.

하, 이리 저리해서 하니까

“그 뉘엔 진정서를 쓰민 고근산을 돌려도렌 해야 험직 허우파?”

허멍 허난에

“글쎄 말이여.”

허멍 허단. 진정서를 쓰는디 그 내용은 다음에 써. 쥘 먼저, 그렇다고 해서 관리보고 우황 뉘물 받았젠 바로 얘기허면은 그 좀 뉘허니까 그러나 우황 뉘물 받은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잇노라고.

경 해서 이제 저기나 안 들어주면은 요즘 말로 그트면 서울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쥍정이앵 허주.

원통헌 일 있으면은 ‘임금님 바깥 웨출할 때 객정 객 쳐가지고 걱정이라도 허겠다.’ 요런 뜻을 비쳐야 목사가 뜨끔해가지고 돌려줄 거 아니냐.

고근산 돌려도렌 헌 진정서를 쓰는데, 제일 첫머리에

“우리가 듣기로는 제주도 우황이 아주 약효가 좋아가지고 그 우황은 이제 사람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라고 들었는디, 요즘에는 그 우황을 가지고 놉웃 동네 오름도 가져가부는 데 쓴단 말을 들어서 이거 참 재미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을 고근산은 원래 우리 산인데 대정으로 요리 요리 요리해서 헛으니까는 넝물 먹엇단 말은 안 해도, 목사가 딱 그걸 보면은, ‘아이고, 이거, 요 사름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안 헤짚다가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특히나 조선 시대에는 그 관리들 넝물받은 건 큰 췌여. 임금헌티 강 객정이나 허면은 지 파면 웰 거 아니라. 경허난에 따시 돌려짚주.

그 어른이 그리 이서가 참 빠른 어른.

그 어른, 그 어른 손자는 나가 아난, 내 흥 아마 그 손자도 키도 크고, 유식허고, 옛날 어른들 막 호령행 어린애들 뿔도 허고 이렇게 해도 그 어른은 그리 내 지금 생각으론 그 어른은 그리도 안 허곡.

내 지금 생각으로 그 아들은 어린 아이들 요거 요치록 허렌 헨 아주 친절허게, 요즘 분네들 ㄹ치 ㄹ르치고 좀 하르방이 아주 자상했어. 쪼금 막 똑똑한 아이들 오민 상당히 아껴주고, 하르방 힘은 엇곡, 그 대신에 머리 돌아가는 이서는 빨라근에 이션 잘 써.

## 12. 난산리 김씨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뛰어난 기지로 귀찮은 폐습을 없앤 난산리 어느 김 씨의 이야기이다. 난산리에서는 정월에 ‘국제’라고 하는 부락제를 지내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제상에 올렸던 음식의 일부는 아주 멀리 있는 고을 원님에게 보냈다. 그 일은 어김없이 알자(謁者)에게 떠맡겨지는데 귀찮은 일이었다. 제가 끝나자 김 씨는 술과 고기를 잔뜩 들고 동헌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모조리 먹어치운 후, 혈떡이며 원님에게 달려갔다. 원님 앞에 엎드린 김 씨는 ‘매란 놈이 달려들어 원님에게 드릴 고기를 물고 도망쳤으니, 포졸들을 풀어서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하옥시켜 주십사’고 호소했다. 원님은 꺾꺾 웃으며 김 씨의 의중을 알아차리고는 다시는 어떤 음식도 갖고 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p>   |   |
| <p>난산리에 또 흔 분이 유명흔 분이 이십주. 그 이름은 잊어 붙어수다, 거 김썸디.</p> <p>난산리는 그 옛날 면소재지라수다. 판 동네에서는 보통 포제를 흐는디, 난산리에서는 국제를 흡네다. 거긴 소를 잡양 흡주게. 판 던 돼질 잡양 해도.</p> <p>경흐고 국제라 부니까는 그 나라 마튼 사직덜이 제사를 흐기 때문에 그젤 끓나며는 고기를 줌 흐고, 술 흔 썩 해서, 반이라고 해서 정의 현감안티다가 반을 보냅니다게. 보통 정월 초에 흐는디, 그제 춤디 추운디 그 난산리서 성읍7장 오쟁 흐며는 춤 거 불편흔 일이, 이만저만 실픈 일입주게. 영이라도 어딿 영이라서 매년에 그것을 갖다 바찌는디, 춤 그거 불평이 만해여도 깨딱 소리, 옛날 법이라 이애길 해집네까? 못흐는디, 그 이제 김씨 성 7진 분네가, - 것도 이제 그 알자 마타던 사름이 흐는 모양이라마썸.-</p> <p>‘이 법을 없애야 쓰겠다.’고. 흔 해에는 즈원해서 자기가 알자를 마타서마썸.</p> <p>예. 알자는 그 제사할 때에 현관을 안내해서 다니는 분됩니다. 비습니다.</p> <p>그래서 이제는 제사 딱 끓나니까 술 흔 썩흐고, 고기 멧 점흐고 해서 이제는,</p> <p>“이거 이제는 관가안티, 정의 슷도안티 갖다가 바찌두고 오라.”</p> <p>“예, 저 가겠습니다.”</p> | <p>그 이제 난산리가 조선 시대 요즘 7트면은 면 소재집니다. 지금도 이제 그 면헛마루 동산이라고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휘이히고 허는 동산이 잇는디.</p> <p>그래서 그 면소재지에는, 그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요즘 그 동제옌 한 포제를 이제 귀신 하나만 모셔서 하는 동네가 잇고, 둘 모셔서 하는 동네가 잇고.</p> <p>헌데 난산리는 귀신이 흔 열 으섯이 웨어. 소 잡고 험니다.</p> <p>이제 웨그냐 그러면은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손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할타먹는 그런 귀신도 마을에서 흔 번씩 포제 때 해주기 때문에 소도 잡곡 허는디, 그러니까 거기는 포제라가지고 국제라고 헤.</p> <p>나라에서 불쌍헌 귀신, 귀신 중에서도 이제 제사 못 반양 먹는 불쌍헌 귀신을 제사를 해줘야 웨는데 나라 대신 하니까 국제라고 허는데, 그래서 나라 대신허는 제사이기 때문에 포제 정초에 끝나민 그 포제헛던, 국제헛던 술 이제 흔 썩허곡, 거기 고기 쪼끔허곡 행 이 정의 현감한티 이제 이걸 갖다 드럿주게. 으레이.</p> <p>그 나라에서 허는 제사니까 이제 그 관리도 나라 베슬허는 관리도 먹어야 웬다.</p> <p>이렇게 헌데 그, 춤, 뒤, 술 한 썩 옛날 어려운 때도 고기 흔 점하고 그거 먹어불</p> |

아침에 주니까 그거 가전 오다네, -난산 리서 성읍리 새에 이제 ‘원님앗는동산’이엔 혼 디가 잇습니다. 옛날 그 원님덜 순력 들 때 수산서 정의 가다가 중간에 쉬는 자립 주. 거기가 햇빛이 뚝뚝해서, 남향져서 존 답니다.-

거기 와서 고기에 술에 빵그랭이 먹언 베패기 갈라지게 혼좁 실큰 자고, 낮 비속 해가나네 이젠 거기서부터 막 듣는 거라마 씬. 할랄헛멍 거기서부터 들려네 정의고을 그 관가에, 이제는 동헌ㄱ장 가십주.

가서 무턱대고 들어가젠 혼니까, 이제는 수문장, 문직이가 섰다가,

“이놈, 건방지게 어드레 들어오젠 혼느냐?”

고 혼니까,

“아, 내가 정의 원님안티 급흔 송스가 잇 으니까 날 들여보내 달라.”고.

“급흔 송스라니 뭘 송스냐?”

“아, 좌우지간 급흔 송스니까니 날 들여 보내 달라.”고.

-그 옛날에는 선비나 중인이나 그 의복 으로 표가 납주. 선비는 갓을 쓰고, 중인은 폐립을 쓰고 혼니까. -갓 썼으니까 양반 ㄱ 따 베고, 이제는,

“아, 뭘 급흔 송스가 잇어서……. 들어오 니라.” 해서.

이제, 그 이방이 이제는,

“스또님. 어떤 백성이 급흔 송스가 잇다 헛읍니다.”

아, 스토, 원님, 군수도 이제는(청취불능) 동헌 대청에 정좌를 하고 혼니까, 마당에 가서 풀려서,

“스실이 급흔 송스라 혼 것은 뭇이나 혼 며는, 우리 동네에 국제를 넘긴 다음에 스토님께 제주하고 반을 갖다다 바짜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매천이라고 혼는 놈이 버릇도 없이 그냥, 고기를, 와서 그냥 빼연 놀아가길레 그놈을 잡젠 혼단 보니까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초에 추운 때에 밤의 이제 혼 시쯤에 그 제사해근엔 다음 날 또 강 뿔 허젠 허민 일찍 해산행 갈 띠 이거 담당한 사름은 난산리서 그 성읍민속 존 그 이제 정의 동헌ㄱ장 그걸 갖당 바짜 야주게.

혼 사람 그 김씨가 혼 번은 베패기 뻐는 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벨로 ‘이 뭐 군 수가 뭐, 그 술 혼 평 먹으나 마나 그것도 아닌데, 이거 공연히 우리 가져오는 그 이제 수고로움만 더 해서 이젠 좀 없애볼문 뉘 거 아닌가.’

헤주마는 그건 이제 옛날에 허던 전례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옛날 분네들

“그런 거 없앵시다.”

허진 못허고 경 행 이제 궤를 내었어.

그거 가정오단에 그냥 그 술 먹영, 건드 령 혼 집에, 그 때 정초에는 추우난에 또똥 한 담메 메앗앙 헤 올라가난 쿠롱쿠롱 혼 점 잔에 이제 혼 이제 스 시쯤 튀가난 그 댘 막 부지런히 들안 이제 성읍리 정의고 을 동헌, 이제, 이제 그 베패디 강 그 때 그 관청 대문 그 앞을 지금도 공목 동산이 엔 허주만은 이제 공문이엔 헤.

공문에 강 스령ㄱ라

“나가 이디 이 원님헌티 나가 이제 저기 원정 드릴 일 잇영 와서니까는”

“뭘 원정이냐?”

“아이, 그건 내가 원님 만남 얘기를 헛 테니까 그 이젠 연통헤 달렌.”

연통헤 달렌 말은 그리 이제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헤서 알려달라 그 말이여.

게니까 원님도 것도 백성들 진정은 때는 그냥 왕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 관복 입고 나와가지곡, 인사 치레 헤서 받아야주게. 그레야주. 백성허는데.

경허니까 이제 부랴부랴 관복 출리곡, 동 현에 납시엔 이제는

술뱅도 어디서 그만 깨어져 부리고 하니, 그 버릇없이 스포님께 바짔 고기 물어간 매천이를 당장 잡아다가 벌을 쥐 주십시오.- 매천이엔 흔 건 지금 매계- 그놈을, 이제 당장 포졸을 풀어 가지고 그놈을 잡아다가 벌을 쥐 주십시오.”

허 허. 그 정의 원이 들어 보니,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니냐, 뻔하게 아는 거시긴디.

하, 정의 원이 들어 보니,

“하, 요거, 거, 저, 알겠따.”고,

“내 아니 먹어도 먹은 셈 흘 테고, 내년부터는 나안티 그 반 가져 오는 법 하지 말라.”고,

“가서 거, 일러서 다시부떠는 가져 오지 말라.”고,

“흐나, 너 춤 기지가 그만흐민 췌상흐다. 그만흐민 사름 썬 먹겠따.”고.

계서, 못웬 법 흐나를 고쳐십주.

“어평헌 원정이냐?” 허니까

“아, 내가 금년에 나는 난산리 사는 백성 인디, 금년 포제 제관이 돼어서 포제 끝나니까 어른들이, 원님한테 바찌는 고기 흔 점허고, 술 한 췌을 가정 가렌 헨. 가전 오 는디 아니, 거 매천이엔 현 놈이, 그 놈을 확 그놈을 물영 돌아냥.”

매천이엔 현 건 저기 독수리라. 그 땀 독 수리. 우리 제주도말.

“아, 그걸, 그 고길 좇젠 가단 보난 술 병은 어디 데껴변 저 좇지 못허곡, 어디 꿰 기도 좇지 못허곡, 술병도 좇지 못허곡 허니까 그 스령들을 풀어근앵 그 원님한테 바찌는 꿰기 물어가분 그 매천이를 잡아주 십젠 내 지금 원정들렌 왔습니다.”

허는디 원님이 들영 보난 암만 거 독수 리가, 매천이가 그 잘, 힘도 췌고 허주마는 사람 걸 가져갈 리도 없곡, 보난 요놈이 연 극이여,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고만 생각해보난에

‘요거 매년 추위에 가정오젠 허믄 이젠 고생스러우난에 요걸 줌 이 전례를 없애달 렌 헨 요놈이 췌부리는구나.’

“근지 안헤도 나가 판결은 너 간 다음에 너네 동네 판결을 경민장한테로…….”

그 땀 그 판결본을 제사영 헤여.

“제사는 내가 느 간 다음에 너넛 동네 경민장한테 보낼 테니까 널랑 어서 돌아 가.”

돌아강 보난, 경 행 돌아오난 그 정의 원 님이 이제 경민장한테 요즘 그트면 공문으 로,

“다시랑 그 포제 넘어나더라도 원님한테 바찌는 고기랑 보내지 말아라. 고긴 이거 백성들 수고로움만 험젠” 행.

경 행 말이주게.

옛날 분네들은 경 뒤 깨놓고 그냥 막 이 것저것 허지 말자고 대놓고 그리 어거지로 안 헤. 관리가 어떻게 대답허지 못허게 췌



|  |   |
|--|---|
|  | <p>똥 묶어 놔야 돼.<br/>         난산리 김 씨.<br/>         이름은 몰르고, 그냥 김 씨.</p> |
|--|---|

### 13. 김판사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팔십일 세까지 아홉 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었으나 모두 낙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조 숙종 때 중문리 태생인 김명헌이다.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탄한 어느 어사가 격외로라도 그를 과거에 합격 시켜주십사는 내용이 담긴 장계를 임금께 올리자 이에 임금도 응했다. 그런데 과거 급제의 창방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지(教旨)를 관 위에 올려 놓는 순간, 죽은 영혼도 크게 감동했던지 관에서 소리가 뚝뚝 울렸다 한다.</p>  |   |
| <p>김 판서도 과거에 급제를 못해서 아홉 번을 과거를 봐 떨어져서마썸.<br/>         과거를 봐 아홉 번 떨어졌는디, 아흔 뱃살 나네 마즈막으로 과거엘 응시해십주게, 그 당시에.<br/>         그때 시관이 보니 백발이 허영흔 하르방이 완 과거를 보는 걸 보니 춤 아마 좀 가상흔게 보아십주. 과거는 봐 보니까 그 하르방은 떨어져마썸.<br/>         떨어져서, 아 ‘저치룩흔 하르방이 떨어지니 안 똥다’ 생각을 했는디, 과거를 파흔 후제는 그 과거 보레 간 학생덜 문딱 흐고 그 시관덜흐고 해서 술 흐 잔씩을 나눕니다.<br/>         나누면서 이제는 새로 과거는 아니고 그냥 여흥으로 글을 흐 수씩을 짓는디, 그 하르방이 뉘엔 글을 짓느냐 흐며는.<br/>         시년은 구구요, -지금 나이는 ‘구구’ 흐니까 팔십 일 세- 지금 나이는 팔십 일 세요.<br/>         낙방은 삼삼이라. -낙제 맞인 건 ‘삼삼은 구’ 흐니까 아홉 번 떨어졌다.<br/>         경 글을 지니까 흐 시관이 봐서,<br/>         “이거 춤말이나?”</p> | <p>아, 참판. 참판. 김명헌.<br/>         실지로 거는 영조 때에 그 분넨디. 그 기록에도 어디 도사, 제주도 역사에도 거 나올 거요. 어디 나올 거요.<br/>         원래는 저기 여기 정의고, 호근이 분넨데, 저 대정 중문에 가서 이제 훈장 노릇을 오래 했어.<br/>         헛는데 그 제자는 과거예 급제를 허는데, 요 어른은 여러 번 과거를 봐도 떨어전.<br/>         경 행 이제 팔 십 혼 살에 또 이제 과거가 열리난에 이제 그 때도 또 응시를 헛주. 응시를 이젠 헤난 떨어졌어, 떨어졌어. 제자는 뉘어도.<br/>         아, 경 헌디 또 이제 그 때예 그 온 어사가 아마 심낙술 거요. 심낙순데. 아 그 춤, 꼭 무슨, 뉘, 베슬허젠 과거허는 것도 아니고, 저 쟁쟁 소원이 뉘어서 팔 십 혼 살에 그 과거 시험장에 나온 거 보민 춤 그 뜻이 가상헌디, 쪼끔만 허거든 어떻게 쫓 점수가 미달 뉘도, 합격을 헛다고 해주려고 해도 그 이, 한문 글은 그 문장이 한 구절만 틀려도, 웨그냐면은 그 때는 거의 공개 채점이라 가지고,<br/>         “이런 것도 점수를 줍니까?”</p> |

하니까,  
 “예, 민이 그렇게 했습니다.”고  
 “이거 과거를 아홉 번 봐서 떨어지고, 이  
 거 마지막으로 봤습니다마는 나이도 팔십  
 이 넘고 하니 다시는 과장에 오기는 틀렸  
 습니다.”  
 하니, 춤 그 보기가, 그 나이에 우선 그  
 학문하젠 하는, 그 과거하젠 하는 의지가  
 대단한 거 아니꽈?  
 이젠 그 어사가 임금님안티 장궐 올려  
 가지고는,  
 ‘스실 이렇게 한 백성이 잇는디 격웨로라  
 도 이거 일궐을 시켜 줘야지 춤으로 표창  
 할 만한 백성입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과거 합격 통지  
 서를 보내십주게.  
 -옛날엔 과거하민 베슬도 줘니다게, 빈  
 베슬이주마는.-  
 아, 경해연 보니까 그 합격 통지서가 오  
 기 전의 그 하르방은 죽어변마썸.  
 옛날은 그 과거 시험지 아정 서울 올라  
 강 또 내려오젠 하민 것도 멧 개월 걸릴  
 거 아니꽈게. 죽어변 영장은 안하고 성복은  
 한다, 그 과거 통지서가 와서, 춤 그 목에  
 서 제주 목사가 교지 가지고 해서 간 보니,  
 성복은 해연 관 뚜껍은 더궐는디, 그 이제  
 는 춤, 경해연 가가난 소문은 즈연이 날 궐  
 주게.  
 하, 경해연 하니까니 관에서 소리가 똥똥  
 낫젠 흡주, 그 죽은 후제도 영혼이 감동사  
 해신지 어떻사 해신지.  
 으, 관속에서 소리가 똥똥하게시리 경나  
 서.  
 경 죽어벧젠 임금님안티 장궐을 올리니  
 까는 죽어분 후제라도 참관 직함을 돌아간  
 후에 느류와 주십주.  
 대단한 분입주게. 팔십 한 설궐장 그거

허면은 흘 말이 없어.  
 그니까 구제를 못 해줘서 이제 그대로  
 낙, 떨어궐는디, 그니까 이제 과거 시험 끝  
 나고 나면은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나 그  
 때 어사나 이제 서울에서는 또 임금하고  
 임금이 다 술 한 잔씩 하사허주게.  
 겐디 여기는 임금 대신 어사가 허니까  
 어사하고 술 한 잔을 허면서 옛날에는 으  
 레 그냥 술 먹을 때는 서로 또 돌려가면서  
 이제 글 한 수씩을 지니까, 요 이젠 김명헌  
 그 분네는 낙방을 해도 그리 참가를 헨.  
 이제 글을 짓는디, 이제는 그 한자로,  
 “시년은 구구요, 지금 나이는 구구. 구구  
 는 팔십 일, 팔십 일, 내 지금 나이는 팔십  
 일 년이고, 낙방은 삼삼이고.”  
 과거 떨어진 것은 삼삼, 삼삼은 구 아홉  
 번, 그니까 아홉 번 과거 봐서 아홉 번 떨  
 어지고, 지금 풀 십 한 살 때궐지 아홉 번  
 떨어궐다.  
 그것 들으니까 어사가 한참 어떻게 구원  
 을 해궐으면 좋은디 못 해서 그 이제 서울  
 가서 임금님안티 보고를 허면서,  
 “사실 춤, 풀 십 한 살 난 백성이 아,  
 그 춤 건강해가지고 과거 보러를 왔는데,  
 아 좀 거, 저, 낙방을 시궐습니다.” 헨  
 아, 거 임금님도  
 “어지간허곤 급궐 시궐주지 팔십 한 살  
 에 야, 그 춤 뜻이 대단히 그 춤 아주 강한  
 분이다. 그 젊은 사름들안티 춤 야, 모범도  
 돼궐다. 그리 팔 십 한 살때궐지 계속 꾸준  
 히 공부하는 사람이 어궐나.”  
 “아이, 그런디 글이 실궐, 궐에 맞지 아  
 네가지고 점수 못 줄 것이 잇어가지고 다  
 른 사름들 다 보고 허는디 글 줄 수가 없  
 었습니다.”  
 헨니까 임금님 저기 떨어궐지마는 그니  
 궐, 이 방궐라고 허는데 조선 국궐 방궐이  
 라고 과거 그 궐 멧단이 잇거든.  
 그니까 이제 거기 궐, 그 바궐테다가 예

되나 안 되나 해 보젠 경 노력하는 건 어려운 일입주 뭐.

외로 한 사람 시켜주곡, 이제 그 과거 허면은 흥패라고 이제, 그 요즘 ㄱ트면 머리에 들고, 막 길거리 뭐 돌아다니고 허는 거 있거든. 이제 그것도 이제는 보네취라고 해서 하니까 보네취 그리 했어.

이제는 보네취는다. 정말인지 만지, 그거 과거 빵 그 양반 얼마 없어서 돌아가부렀는다 해서 그거 온 때는 돌아가가지고 겨우 입관헌 땀디, 이젠 그것이 흥패가 이제 제주도에 오면 바로관리들이 게 돌 탕 강 전할 거 아니요.

이리저리 해서 전헌 돌아간 때 와부니까. 관이 뚱뚱헌 소리가 낫다고, 돌아간 때 그리 가 와보니까. 그런 뭐 그랫을 거라고. 그렇게 허곡.

그리 이제 그 베슬이 참판인디 참판이면 요즘 ㄱ트면은 차관 서열입니다. 게니 우리 제주도에서 과거에 급제해도 차관까지 간 사름은 없는다,

‘어, 이거 어째서 그 춤, 합격은 헤긴 헛 더라도 그건 임금님 명령으로 정식 합격도 아니고 헌디 그 베슬이 참판이여. 그 비문에도 헛을까?’

이리 생각을 헛는다. 우연찮은 기회에 최근에 그 비문을 가서 읽어 보니까 비문에 써졌어. 그 분의 제자 중에 변경봉이라고 한 분네가 합격을 해서 갖는다, 그때가 그 요즘 ㄱ트면은 청와대 비서실이요. 그 이제 변경봉이가 그 시종관 승지여. 승진디 자기 선생님 얘기를 승지들은 그 임금님허고 당번이 땀면은 누가 가서 얘기하는 거 다 적는 거 아니여?

적는 거 보니까 자기네 선생님 얘기란 말이여. 아, 그니까 이제 임금님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합격 시켜주곡, 이제 베슬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실직이 아닌 중직이라고 명예로만 베슬을 주라고 해서 베슬을 주는다 그 참판보다 낮은 베슬을 줬어.

그니까 그 변경봉이가

“아니, 저기 임금님께서 베슬을 주실 테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과거에 급제를 안 해도 임금님이 급제로 인정을 해주고 나이가 많아서 베슬을 못 주기 때문에 주는 베슬이니깐 건 으레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팔십 현 살이 돼면은 공짜로 통정대부라고 베슬을 줘. 나이가 노인우대 정책으로, 해서 그 노인 살 동안은 그 큰 손자는 병적 면제, 또 그 집은 세금 면제, 그래서 이제 그 노인 공양하라고 그리 해 주니까 이 어른이 벌써 팔십 현 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아녀도 아재 통정대부는 받을 나이가 됐단 말이여.

게니께,

“그거 둘 감안해서 줘야될 거 아닙니까?”

허니까 임금은 흔 번 말해노민 그걸 못 고찌는 거여. 건 국가가 법이고. 통정대부 팔 십 현 살 돼면은 베슬 주는 건 법이고, 임금님 명령으로 또 헛기 때문에 주렌 헛던 건 두 등급이든 한 등급은 더 줘야 될 거 아니요. 두 등급은 줄 수 없고, 이제는 한 등급을 더 주니까는 참판이 뵈 것이라.

비석에 그 내용이 최근에 내 간 보니깐 비석에 써 졌어. 이상하다. ‘어째서 높은 벼슬을 짓는가?’ 헛더니만 비석에 간 보난 써 졌어.

내 하원에 뭘 일 잇어서 간 얘기를 허는데 김참판 얘기를 하니깐 그 분네 산소가 여기 하원 왕자묘 잇는디 그 근방이라.

“그 좀 굴쳐주렌 강 보젠.”

그 분네도 광산 김씨가

“아, 거 막 비문이 희미헨 안 보이는데 강 봐주민 좋겟다.”

헿 강 보니까 그리 그 내용이 써졌어.

훈장도 팽생헛주. 팽생. 제자들도 많이 길르곡. 그 분이 김참판.

#### 14. 영산이골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난산리 경에는 ‘영산이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의 영산이는 옛날 어느 목자의 이름에서 연유된 것이다.</p> <p>옛날 영산이는 오조리 어느 강 씨 댁에서 마소를 돌보는 종으로 살고 있었다. 강 씨 주인은 선조를 묻힐 명당자리를 찾기 위하여 지관을 청해다가 백여 일을 헤매어도 적당한 밋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명당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명당자리를 찾은 데는 영산이의 공이 컸다. 바로 영산이가 가리켜 준 밋자리인 것이다. 얼마 없어 영산이는 그 집에서 일생을 마쳤다.</p> <p>주인집에서는 영산이를 바로 선조의 묘 옆으로 묻어 줬는데, 그 후로 세인들은 그곳을 두고 영산이가 묻혀 있고, 또 영산이라는 한 목자에 의하여 찾은 명묘가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영산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p>   |  |
| <p>건 ‘영산이골’마쭈.<br/>그 목자 일름입주.<br/>골마쭈. 영산이골이엔 흐는디, 난산리 뒤예 통오름 뒤예우다. 거 강칩 산인디, 아주 춤 산이 명산입주. 누게가 봐도 명산이고, 즈순덜토 변창해서 잘 돼고. ㄱ싸 골은 강정의도 그 산엿 즈순입주.<br/>경흐디, 본래는 오조리에 가 그 강씨가 살앗는디, 강씨 이름은 뤼산디 몰라도 그 부친이 죽어서 출빈을 해 놓고, 지관을 청해네 산털 보젠 흐니 느시 산털 보지 못해 연 석 들 열흘을 매날 산털 보레 땡기는다, 아, 영산이엔 흐 므시 ㄱ꾸는 장남이 하나 이섯는디, 흐루 아적은, “아이고, 상전님. 경 석 들씩 땡겨그네 어땡 거시기 흡니까? 나 므시 ㄱ꾸레 땡기단 그자 사름 묻 업직흐 디, 뜻뜻흐 디 흐번 봐 놔시메 그걸 흐번 강 보십서.”<br/>아, 주인은.<br/>“에그, 즈식. 버릇엇인 소리 경 어른덜안티 흐지 안흐다. 너가 뭘 알아 가지고 그 산털 봐 놓고랜 흐느냐?”<br/>그 지관이,<br/>“아이고, 저 공자님도 어리석은 사름을 선생으로 치곡, 애기업개 말도 귀넘어 듣지 말랜 해시나네, 아멩해도 드룻터레 가는 짐</p> | <p>영산이골은 건 이제 지명인디.<br/>거기 이제 강씨, 그 옷대 이제 산소가 잇는디. 그 산이 아주 멩산이라.<br/>제주도에서도 멩산이고, 이제 그 근방에서 멩산인디, 그 영산이엔 현 건 사람 몰보는 이제 그 머슴 이름이고, 장남, 우리 제주도 말로 장남 이름인디. 요 난산리 겨텐데.<br/>그 영산이가 강칩의 이제 췌 보는 장남인디. 게니까 몰, 소, 그걸 매날 보난 매날 들판에만 강 갱 돌아땡길 거 아니라.<br/>흐 번은 그 주인이 돌아갓는디 산틀을 느시 못 보는 거여. 지관을 청해단 매날 돌아땡겿자 산틀을 못 잡안.<br/>옛날엔 뤼 흐 달, 두 달, 그리 지관 모셔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터를 보젠 집안에서는 하이, 걱정을 허는다.<br/>그 영산이는 무식허거든.<br/>“아, 그, 나 저 췌 격그레 간 디, 어디 어디, 하, 그디 또땡헿 강 앓이믄 그자 겨울에도 또땡헿근에 쉬곡 현디, 그디 도슨 데믄 좋은 산터 아니파?”<br/>“겨울에도 강 앓아근엔 경 또땡허덴 허민 흐 번 강 ㄱ르쳐보게.” 현에.<br/>지관 들고 헿 간 보난 지관이 아주 잠지탁 치명,</p> |

에 그리치랭 해영 강 보주게.”

경흐건 경 흠센 해연, 흐거들랑 너 봐 논 산털 그리치랭 해연, 아, 졸졸 간 그리치는 걸 보난, 그 난미 우의 통오름 뒤예, 그 때는 ‘영산이골’이 아니고, 시방은 ‘영산이골’이엔 흐주마는. 거길 간,

“이디우다.”

하, 정시가 ㄱ만이 보더니마는 잠질 탁 치명,

“아이고, 영흐 땅을 보지 못해영 경 오래 영……. 이거 아주 대산이우덴.”

“이거 이루제 멩산 텔거우덴.”

“중수덴.”

아, 경흐니 주인이 오죽 지뻐흐연 춤. 그 장남안티도 칭찬도 잘 흐고, 착흐덴도 흐고, 고맙덴도 흐고 흐연 흐다가, 거기 산 씨네 즈순이 잘 돼였는디, 그 뒤예 영산이엔 흐 장남은 즈식도 엇고, 아무도 엇고 해연 죽어 부리니까니, 주인에서 그 팡을 치와젧는디, 경 아니해시민 아무 디나 강 박든 디 강 물을 꺼주마는, -오조리서 난미 우의가 상당히 머우다. 댓 참 웹주게. 댓 참 돼는디.-

“아이고, 그거 영산이 때문에 할아버님 산소도 좋은 디 모셔시니까니 기왕이거들랑에 하르바님 즈끗디 가그네 물어 쥐그네 이루제라도, 경해도 묘제홀 때라도 물이라도 ㄱ찌 걸여놓게.”

해여네, 그 영산이도 그 산으로 흐 백 보썸 아래 가네 물어십주, 조고만흐게.

시방도 묘제홀 땐 그 영산이 산안티도 그 제사를 해 줍네다.

경해 부니까, 영산이 본 골이엔 해영 거기 땅 이름을 ‘영산이골, 영상이골’ 흐니, 시방 그 통칭돼 베티주.

“춤 이거 아주 좋은 자리엔 이거 춤 아주 귀신이 도왔젠.”

게난 이제 그디 장사를 지네난. 지네난에 게난 사람마다 춤 명산이엔 허곡,

이제는 경 허난 그 영산이가 늙영 죽은 난에,

“요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하르방 좋은 디 모셔젧젠”

혜서 이제는 그 저긧디 물어가지고 지금 까지도 그, 그, 그디 모신 그 하르방 제사 할 때는 영산이도 제사허곡, 최근에는 비석 ㄱ장 행 세왓주. 자손들이.

좋은 자리 멩당 모셔가지고 자손들 번창 하고 헛다고 그거 고맙게 생각해서.

요 가까와. 영산이골.

경허난에 거기가 영산이가 ㄱ르쳐분 골 짜기엔 헤가지고 거길 영산이골. 지금도 영산이골. 지금도 영산이골.

주인 산소보다는 아마 한 백 메다는 미 텔 거요.

## 15. 원당할망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신평리 강 씨 일가를 수호하는 조상신을 ‘원당할망’이라고 일컫는데, ‘원당’은 지금의 제주시 삼양동의 속명으로, 곧 삼양동에서 이 마을로 시집온 할머니라는 말이다.</p> <p>원당 할머니는 원래 미천한 무녀의 딸로 태어나 고향을 썩 잘했다. 춤도 잘 출 뿐 아니라, 목소리도 좋았다. 원당 할머니는 자신의 춤과 노래에 반해 버린 신평리 강 씨 할아버지를 따라 소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강 씨 할아버지는 양반 가문 체면 때문에 소실에게 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원당 할머니는 그만 안달뱅이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강 씨 일가의 어린애들마다 피부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고향 하니 원당 할머니의 원혼 때문이라는 것이다.</p> <p>그 후로, 원당 할머니는 이 마을 강 씨 일가의 부계와 모계로 이어지면서 봉제 받는 조상신이 되었다</p>  |  |
| <p>원당할망은, 원당할망은 거, 이제 우리 동네 거시긴디 것도 이제 강칩의 구신인디…….</p> <p>아니, 그 강씨는 삼달리서 완 살암수다. 어수다. 다 췌안 강은 췌안 강씨라도…….</p> <p>거 삼달리서 살다가, 옛날은 지체가 좀 늦아마썸. 늦인 하인은 아니고 중인썸 뒤여가지고, 선비 측에는 들지를 못하디 그 조상이 목수질을 잘했던 모양이라마썸.</p> <p>정의 향교 고치젠 해연 새로 풀 곱아 메왔는디, 하, 그 원님이 오란 반,</p> <p>“허, 저 풀 더 괴양 까끌건디 좀 두루 까까져댄.”</p> <p>흐난,</p> <p>“거 올라강 그냥 까까불겿습니다.”</p> <p>“아이고, 그 노픈 디 올라강 그 낭 우의상 그걸 까까지느냐, 큰일날 소리 하지 말라.”</p> <p>“어수다. 그거 올라강 까까 불주 뭐.”</p> <p>아, 삭하게 올라간 뭐 귀자귀로 그 포 우의, 세운 집 포 우의 올라간 소리헛명 그 풀 기똥차게 잘 까간, 요셋말로.</p> <p>하. 잘 까끈디 췌 한간에 공자님을 모시</p> | <p>게니까 그 구신을 지금도 원당할망이엿혀는디.</p> <p>그 이 동네만 이 동네도 강칩이만 잇는 귀신이라. 온지가 그리 오래 안 뒤. 지금 제일 현손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 아, 요번에 죽엇구나게. 게난 이제 5대손차, 6대손차 뒤는디.</p> <p>이제 그 제주에서 그, 그, 강씨가 이제 정의에 이방이 뒤어가지고 요리로 오는데, 거 이제 원당 거기를 지나는데, 어떤 집에 이제 무당이 고향을 허는데, 아주 젊은 무당이, 저 얼굴이 아마 이제 미인이엇던 모양이라.</p> <p>게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이제는 데리고 와서 이녁 스실로 삼앗주. 첩으로 삼앗주.</p> <p>아, 그 땀게, 그 무당은 천민이고게, 이방 허든 뭐 지금도 도청 국장허민게 인사 나올 거 아니라게.</p> <p>겨난 아니올 수도 없고 아마 왕 사난에, 경 하난게, 이젠게. 여긴 오난에 그 무당을 못헛 거주게. 하르방이 이방인디게 무당을 못허난에.</p> <p>부치러운 것이 아니고 본인은 헛고 싶은</p> |

는디, 그 공자님 모실 우터레 발을 버터 사  
젠 흐난에, 그 펜작더레 발을 영 버티나네  
원님이 아래 산 배리단 공자님 모실 자리  
터레 발 붙람젠.

“저 발!”

흐난, 발도 그 자리에 ㄴ만이 놔 뒀 소리  
흐멍 그 폴 민작하게 까간 흐난 원님이,

“하, 거 춤 제주가 아까와서……. 양반이  
라시민 너 베슬이라도 흐 자리 나라에 친  
해영 시킬 건디 경은 못흐고 내가 경흐지  
말앙 삼달리 살지 말앙 신평리 양촌더레  
오랑 살며는 이루제 잘 거시길 해 주켄”  
하고.

경해연 흐니까, 이사해연 설러네 신평릴  
와십주게. 오란, 신평리 오란 사나네, 이제  
는 춤 이방을 시켜서마썸.

이방을 시켄 이방 노릇을 흐는디, 원님이  
갈령 가고 새 원님이 올 건디 그 이방고라,

‘가서 신연해영 오랜’

‘원님을 맞아 오랜’

해연 원님을 신연흐레 목안을 들어오라  
네 흐룻밤 자고 새 원이 들어오나네, 이제  
새 원 들어와서 목사안티 거배흐나네 모셔  
네 가는디, 아, 그 새 원님을 신연해연 가  
당 원당므슬을 가다네,

‘여기 앗앙 숨 들영 갑주’

해여네, 그디 앗앙 중참을 먹는디 보니,  
아, 그 옆잇 집의 곳을 흐는디 어떤 심방  
쳐녀가, 처녀 심방이 곳을 흐는디 춤 얼굴  
도 곱고, 처대 좋고, 화정 좋고, 소리도 뭐  
스뭇 옥쟁반에 구슬 구르듯 더러러 더러러  
춤말로 잘해연, 그만 이 하르방이 처녀 심  
방안티 오긋 반해 부렸어.

아, 이제 거짓말로 원님안티,

“다리도 오래 걸어오난 아프시고 저 스  
떡께서 이거 제주 들어오랑 첫날이고 흐니  
제주 산천도 구경홀 겸 읍서 저녁의 오닐  
이디서 유해영 갑주”

흐난, 아, 그 슝도,

디 하르방이 무당을 허지 말렌 무당허민  
무당 첩 데령 살암젠 허니까.

켄디 그 할망은 무당이라노난에 곳을 안  
헤노난에 무당 감제 부청 살질 못헿. 곳하  
고 싶어근에. 못견당.

막 살지 못헿 자꾸 헿 머리 아프고 뒀  
아프고, 영 헿 허난.

이제 여기는 음력으로 3월 보름 물기에  
는 물이 제일 잘 나가는 때문에 문밖 바당  
에 뒀 고동도 강 잡으레 가주.

겡 3월 보름 물기에 집에 이시믄 도둑놈  
이엿 ㄴ라. 바르잡으레 안 강 집에 잇젠  
헿.

그 날은 전부 바등 나가 부난에 그 날은  
이제 그 할망은 이제 저 문 중간에 이제는  
저기 뵈이냐, 집에 불 부쩍에 자살헿 죽어  
부렸어. 곳 못허게 헤부난에.

경하면서 산 때부떠도 날랑 죽거든 저  
하르방허곡 ㄴ치 상에 밥헿 제사하지 말렌.

“게믄 제사 안 함네까?” 허난,

“저 제사 때마다 정지에 영 밥 흐 사발  
거령노민 나가 얻어먹지 나가 이제 신분이  
무당이라부난 저 하르방 양반하고 ㄴ치 앗  
앙 밥 먹을 처지가 못 뵈난.”

경 허난 이제 그 할망이 경 헿 이제 죽  
어부난에, 이젠 그 뒀 즈손들이 제사는 안  
허고, 제사 때마다 그 부억에다가 정지에다  
밥을 원당할망이고 ㄴ시 걸른다게. 것이 원  
당할망이고.

강침의 딸이 딴 데 시집 가믄 그 구신이  
부떠 가. 게믄 그 집에서도 그 원당할망을  
모셔야 뵈여. 게서 많이 번져간 많이 딴 집  
에도 많이 번져지고, 요렇게 이제 허고 허  
난에.

그 할망은 구신이라도 사람 죽은 구신이  
난에, 요 가까운 데 산소도 잇어. 원당할망  
산소가.

켄디 봉분이 두 개라. 그 즈손들 말론 흐  
나는 그 할망 시체를 모신 봉분이고, 흐나

“아, 거, 뭐 이방이 경허거들랑 경허라.”  
고.

그날 츠낙은 원님 잘 모셔두고, 아, 이제  
는 수심방을 불렀다 말이여. 아, 경허니 곳  
허는 집의선 원님 행차 넘어가던 그날 츠  
낙은 난디엇이 그 므슬에 목지, 수심방을  
‘오라, 가라’ 불르지, 허난 무신 큰일이나시  
카프덴 겁이난 던덜 해연.

수심방을 돌아 오니까니,

“거 오닐 낮에 보아하니, 그 곳허는 처녀  
가 춤 재주가 있어 보이는데, 그 처녀가 뉘  
기냐?”

고 하니,

“예, 소인의 딸입니다.”

이방이. 뭐 심방덜사 어느 게 이방인지  
원님인지 압니까?

“거 소인네 -소인이 아니고 춤- 쉐네 딸  
입네다.”

옛날엔 말근는 법도 다 들랑 하천흔 사  
름은 ‘쌨네’ 허곡, 중인은 ‘소인’ 허곡, 양반  
덜이 ‘민이’해영 영허곡,

민, 백성민 쌨.

“아, 거 쌨네 딸입네다.”

“거 너희 딸이거던 거 경 놓아서 곳을  
홀 것이 아니고, 우리 원님을 따라가설랑,  
이제 정의고을 들어가서 우리 원님만 잘  
모시며는, 경허다가 제수가 좋아서 우리 원  
님 눈에 들며는 거 머리로 얹어 줄 것이고  
또 경허다가 즈식이라도 허나 나며는 비록  
소실이지마는 게도 ‘원님 부인’ 말들을 게  
아니냐?”고,

“경해서 평생을 호강할 것이지 곳을 거  
시기 없이 경허지 말아서 너희 딸을 그냥  
우리를 조차서 정의고을엘 보내여라.”

아, 이거 어딴 영이라 거역할 수가 잇서.  
거역을 할 수가 었언 수심방이 쪽으론 어  
평사 해실런지……,

“예, 그저 분부대로 허겠습니다.”

“허거든 내일 아침의 거, 저, 거시기 멩

는 그 곳허는 이제 쟁이영, 그 뒤, 곳허는  
그거 묻은 쌨라부난 마지 못 물어부난 경  
행 거 따로 묻은 봉분이영 해서 원당할망  
봉분을, 원당할망 봉분이 둘이라. 같은 당  
안에.

아니. 거, 거, 거기는 어떠냐 그러면 특별  
히 현 때 가지는 안 허곡, 이제 그 할망,  
그 원당할망 모신 데는 할튼 요렇게 짚으  
로, 요리 툭고롬허게 싸 가지고 덮어논 표  
시가 있어. 모신 집에는.

이제 경 현디 어떤 집에서는 거기 집에  
서 모시다가 딴 데로 이사가면은 매년 현  
번씩을 바꿔. 짚을 딴 짚으로 또 덮으곡.

요렇게 허는디 몰라서 어떻허당 그걸 건  
드려볼던지 그 근방에 나무를 잘라 볼던지  
현 핑계영 해가지고 이제는 그 원당 할망  
부텃왓젠 거기 강은에 빌어야 낮곡.

요즘에는 강침에서 그 집에서는 계속 모  
시주.

이 동네도 강씨만, 강씨 중에도 그 강씨  
만. 여러 강씨가 잇는디 쉐안 강씨 쓰는 강  
씨라.

원래 그 하르방 고향은 덕천인디 체주시  
그 덕천인디, 그 일가 일부는 덕천에 살아  
서 여기 대사 때도 오고 오레지 았은 할망.

그 구신. 귀신훈지가 오레지 안 현 귀신.

뒤 거두와 두고 곁해서 보내여라.”

“경 흐깁니다.”

아, 어딴 영이라 뒷날 아침의 보내나네,  
그걸 이젠 곱져 아저네 원님을 신연해 연  
가네 원님 모셔두고 집일 들랑 들어가젠  
하니까, 아, 요새난 거주 옛날에서 심방을  
암만 소실로라도 들이민 큰 창뵈주 게. 하,  
깨어 놓랑 들어갈 수가 엇어네 도포 썩와  
네, 도복 벗은 썩와네 곱전 들랑 가네 올레  
에다 쫓꼴락흔 막살이 하나 짓어네 그디  
살게 해연 살았는디, 아, 이 할망이 심방이  
라노니 감짚 풀어사 살 건디 뭐 그디 강  
가두와 놓랑 살랜 흐난 감제 버천 살지 못  
해연, 매날 놈 안 보는 구들에선 문 중가  
놓랑 춤추곡 헛자 썩을 풀리지 못해영 막  
애가 브뵈 뵈이 뵈연 살 수가 없다 말이우  
다, 보내 도랜 해도 보내 주지도 아니혹.

아, 이젠 할망이 하도 원통해서 이런 놈  
으 세상을 살랑 뵈흐리엔 삼월 보름 물지  
엔 동네 사름덜이 문딱 물 잘 싸난 반찬하  
레 바릇 느려가 부난 그만 안으로 문 걸어  
중간 안으로 불 질런 자살해연 죽어 벼십  
주, 그 할망이.

자살해연 죽어 부니, 경흐니, 이제는 잘  
영장하고 헛는디 뒷해부뵈 아이덜이 아프  
는디 게나제나 허물만 나는 거라, 그 할망  
이 불에 칸 죽어 부니까니. 불에 칸 형치로  
아이덜이 온 몸에 허물만 낭 하니, 이런 저  
런 디 간 문점도 하고 하니까니,

“집의 원통하게 죽은 조상이 잇어네 조  
상의 조뵈로 경햐수뵈.”

“아이고, 조상의 조뵈민 어떻 해시민 좋  
구과?”

사남을 흐십썩, 영 정 죽은 할망이 잇젠  
하니.

‘아이고, 경흐건 그 할망네시 사남곳을  
해영……. 곳을 하니까니, 심방이,

‘난 원통하게시리 놈 보지 못홀 심방으로  
해영그네 양반 하르방 얼영 오라그네 흐

식상 살지 못해영 죽언 원통하니까니 비껴  
루와서 난 그 하르방하고 ㄹ픈 상에서 올  
랑 밥 먹을 즈격도 엇이니까니 식계도 흥  
지 말양 식겅날마다 날랑 놉 안 보는 고평  
으로나, 정지로나, 날 대접해 주영 따로 식  
계도 흥지 말곡, ㄱ홀 때나 좋은 북·장귀  
로 해그네 날 놀러그네 산 때 못 폰 간장  
이라도 풀려 주민 흥곡, 경 아니흥민 안 뉘  
켤.’

“경흥민 경흥겅습니다.”

그 때부편 식계도 아니흥고 식계 때마다  
고광이나 정지에나 그 할망네시 따로 걸어  
놓고, ㄱ흥며는 ‘원당할망 군웅으로 특별히  
해여서 잘 놀려 드리곡 흥는디, 이 할망이  
어평사 딸덜신디만 잘 부터가는지 자우지  
간흥고 그 집의 딸덜 씨집가민 그 집의 부  
떠 강 얻어먹곡, 이제 흥 칠, 팔 대가 뉘여  
도 그 할망은 베깅디 밧칠성으로 모상 흥  
민, 어평 몰랑 넘어가당 꿈 바짜분 집의도  
부떠 가그네 허물 낭 ㄱ흥민, 원당할망 부  
떠 왕 경헛젠 흥민, 그 집의도 모셔야 뉘  
곡.

경해연, 이젠 점점 점점 퍼져가십주게.

경흥니 구신 죽어그네 산 이신 법은 엇  
주마는 그 할망만은 산도 잇고, 즈순도 잇  
영 별초도 흥곡 해도 그 할망은 따로  
경…….

‘원당할망’ 흥민 이젠 막 큰 구신이 뉘여  
벼십주.

그 강침이나, 그 강침이 연고 이신 사름  
덜 뉘, 다 그 원당할망을 경 알양 모십네  
다.

사둔을 헛던지.

허물나도 관계엇인 집에서는 아니 갑네  
다. 아니 가고, 그 할망 모신 디 강 낭을  
끓어벼도 핑개해영 부떠오곡 경흥 할망입  
주.

## 16. 솔할망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솔할망’은 표선면 하천리 강 씨 일가에서 모셔지는 조상신의 내력담이다. 옛날 강 씨 일가의 한 할머니가 바다에 갔다가 큰 솔을 하나 주워왔다. 그날 밤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자신은 솔에 붙어 온 귀신인데 자신을 광 구석으로 가서 잘 모셔주기만 하면 강 씨 집안을 당장 부자가 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꿈의 계시대로 그 솔을 광으로 옮겨 잘 모시기 시작했다.</p> <p>어느 해 그 할머니의 아들이 쌀 장사차 육지 진안 고을에 갔었는데, 그 고을 불량배들이 찾아 와 내기 장기를 두자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장기판은 벌어졌으나 질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고을 청년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언뜻 잠이 들었는데 ‘솔할망’이 꿈에 나타나서 묘책을 알려 주고 사라져 버렸다. 진안 청년들이 다시 또 찾아오자, 이내 장기판은 또 벌어졌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안에 육백여 섬의 쌀을 땀다. 두 배 가득 쌀을 싣고 제주에 온 강 씨는 이내 부자가 되었고, 또 쌀을 많이 진상하여 벼슬까지 얻었다. 그 후로, ‘솔할망’은 이 집안의 조상신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로부터 봉제 받고 있다.</p> | <p>요 밑에 하천민데.<br/>거기도 강씨요, 거기도 강씨데, 이제 그 예전에는 아마 거기 강씨는 쪼끔 좀 저기 그 장사를 허니까 신분이 좀 낮았던 모양이라. 장사가 옛날 늦거든.<br/>그 이제, 그 이제 여기서 활 만드는 대나 담배, 담배대 만드는 대, 시경가서 육지 가서 이제 쓸도 상오곡.<br/>이젠 요렇게 헌데 거기 강 쓸 상 그 해도 여기오는 그 브름을 만나야 빨리 올 수가 있는데, 브름을 못 만나면 어떤 땐, 뒤십오 일도 살곡, 혼 달도 살곡 이제 영 헛어.<br/>심심허민 이제 장귀도 허곡, 이제 투전도 허곡 허는데, 뭐 장귀는 그냥 두주마는 투전이엔 헌 건 옛날 요즘 ㄱ트민 저 화토나 ㄱ튼 거라. 돈 내기 허곡 허는 거.<br/>경 이제 행 심심허민 장귀 두곡 투전허곡 헌디, 아 기냥 헌 때는 돈을 그니까 돈을 헛끔만 걸영 헛 때는 따지는데, 아, 좀 헤영 걸영 헛 때는 흠씩 일러볼곡, 만날 일러비연 이젠 제수가 엇언. 제수가 엇언에.<br/>하, 이제 게니까 이제 어떻 헤시냐면은</p> |
| <p>솔할망은 하천미 강정의네 구신인디.<br/>일름은 몰르쿠다. 그 정의 군수 살아나난 ‘강정의, 강정의’.<br/>으. 강정의. 경흐나네, 강정의도 본래 무식해여네 글은 모른 사름이우다. 돈 주언, 돈 하영 벼슬언 사난 헛주, 미신 그 과거해여네 제라헌 정의 벼슬은 아니고.<br/>그 강정의 하르방 때예, 할망 때예. 할망 때예 물질헛렐 바당엘 간 보난, 큰 가메만헌 솟이 바당에 잇어네,<br/>‘하이고, 이거 보물 붕가졌구나’<br/>해연, -요새는 솟이 널어졌주마는 옛날에 솟이 귀헛기를 춤 귀헛난- 아, 그 솟을 지언 오란 정지에 앓전 물을 놓안 밥해여 떡쟁 해연 암만 습앗자 윈 궤질 안헛연 두일퀘 열 나흘을 남불 때영 불을 습아도 물이 궤질 안헛난, ‘이거 윈 솟이라도 쓰지 못홀 솟이로구나’ 해연, 에 이젤랑 고평더레 들려 놔불젠, 고평에 들려 난 미신 곡석도 놓곡, 무시거 그냥 경정헛는다, 흐루는 꿈에,<br/>‘나가 그 솟에부터 온 솟할망인디 -어떤 할망이 꿈에 나완- 날 경 고평 구석에 테</p>  | <p>하, 이제 게니까 이제 어떻 헤시냐면은</p>  |

경 내불지 말아그네 고팡에서 제일 큰 항  
즈꿋디 앓당 날 모셔그네 매번 식계 때마  
다 나나시 혼 상 잘 출렁 아져 오민 나 먹  
어그네 너네 즈순을 아주 그냥 날로 들로  
부제뒤게 해 주켤.’

아, 그자 즈수로 바릇 칸 빙가 온 물건이  
고 혼난,

‘이건 이제 구신이 부턴 왔구나’ 해여네  
그날부터 어가라 그 솟을 앓단, 고팡 큰 항  
즈꿋디 앓단 모셔네 식계 때마다 혼 상씩  
출렁 솟안티 올리난, 아, 경혼난 뒤 부제가  
점점 뒤여가는다, 어떻해연 쥬 큰 부젠 뒤  
신고 혼민,

육지, 그 할망 아덜이 나가 가지고 -강정  
의 아방이 뒤 거주- 송년이 들언 육지 무  
곡흐레, 육지 쓸장시흐레 가네, 칠산바당으  
로 해네 어디 진안인가, 진안고을인가 들어  
간 쓸을 사네 배에 시켤, 아니, 브름을 만  
나지 못해연 뺨 띄와 놓지 못해연 그디 주  
막에 머전 이시니까니, 그 동네 부랑쟁이덜  
산디 오란 장기만 두젠 혼명 자꾸 돈을 따  
먹어간다 말이여, 내기장기 두젠 혼명. 두  
민 지역, 두민 지역.

따시 편은 장기 두레 와도 장기 안 두켤.  
나 돈 엇댄 해도, 아니 막 위협으로 안 두  
민 막 뜰림직이 경혼니 흘 수 엇이 장기는  
두명도 이젠 원 돈 주어빌 장기만 두연.

‘하, 재기 이 뺨 띄와 놓앙 제줄 가 비야  
뒤 건디 춤 안 뒤로구나!’

해연, 이젠 장기 두당 가변 낮의 즈을 비  
스스하게 들엇는다, 꿈에 어떤 할망이 싹스게  
나완,

“하이고, 장기 두레 오건 걱정흐지 말앙,  
따시는 경흐지 말앙 다음 편 장기 들 때라  
그네 놀개 흰 푼리가 장기관 위에 툃툃흐  
게 앓거들랑 앓는 더레만 장기를 툃툃하게  
두머는 장길 이길 테니까니 따시랑 오거들  
라그네 큰 내길 해여그네 장길 두랜.”

아마 그게 솟할망일 뒤주게.

“하이, 우리 조상들은 어디 옛날에 뒤 못  
뒤민 조상 탓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어디  
뒤 산을 잘못 써부난에 나가 이치룩 이제  
자꾸 손해만 이제는, 이제는 뺨신가?”

이제는 허명, 영 이제는 그 분통 터진 소  
리를 자꾸 이제는 경허는다 이제 저기 뒤  
이나, 그 이제, 혼룻밤 이제 꿈에는 이제는  
자기네 그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너 돈 일른 것은 그 조상 때문이 아니  
고, 너 이제는 그 다른 이제 너가 모실 귀  
신을 안 모셔부난에 경허는 거옢.”

암만 생각해도 뒤 나가 모실 귀신이 뒤  
조상뺨끼는 모실 귀신이, 이제는 귀신이 어  
신디 이제는 요렇게 해서…….

이제 그만 생각해 보난 얘기가 두 가진  
데, 나 지금기억나는 건.

그만이 생각해 보난 예전에 이제는 우연  
찮게 바당에 고기 낚으레 갔다가 그 배가  
넘어가당 파산 뒤어가지고 솟이 굴러온 것  
을 이제는 주워다가 옛날에는 쥬가 귀하니  
까 그걸 그냥 썼어. 그니까 이제는 공짜뺨  
기로,

하, 게니까, ‘예전에부터 이제 바당에 꺼  
뒤 좃엉 오면은 바당 귀신이 부평온뒤 잘  
이젠 허는데, 게민 그 이제 그 솟에 부떠온  
귀신이 잇어가지고 날 이렇게 막으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해서 이제 하, ‘그, 솔할망을 잘  
모시젠 허믄 솟 귀신을 잘 모시젠 허믄 이  
젠 어떻 행 모시코?’

이제 허는다 꿈에 솔할망이 나타나가지  
고 이제,

“나가 이제 솔할망인디 이제 나를 잘 모  
셔주면 너 이제 돈 많이 뒤을 해주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너네 조상 때문이 아니고  
조상 꿈 본 대로 이제 나가 얻어먹지 못하  
니까 그렇게 허노라고.”

하, 경 이제 허니까 아, 그 솔할망은 이  
제,

아, 경해연, 이젠 깨어난 보난 꿈이라. 얼마 잊어난 또 장기 두젠. 뭐 아니 두민 또 이제 어떻 행패나 부릴런지 흥난 꿈에 본 거시기도 잊고 해연,

“두젠.”

장길 첫판을 툅툅 두난 아닌게 아니라 늘개 흰 프리가 툅툅 그자 장기 방마다 강 앞이는 거라. 그래만 툅툅 두난 장길 이겨져.

‘하하, 요거 꿈이 헛꿈이 아니로고나.’

해연 흰 판은 이겨 놓고, 다음 판에 강 또 두젠, 그 사름덜이.

“에, 이거 자꾸 장긴 멧날 메칠 부터놔 두어도 이거 즈미가 잊이니까 기왕 경 장기를 으라 번 들 거 잊이 우리가, 나도 저 배에 시꺼 논 저 쓸을 다 걸 테니까니 당 신네도 어서 그만 흰 쓸만 가그네 이레 갖 당 걸며는 흥번에 두영 설러볼지. 매날 나 즘 자젠 흐는디 오랑 ‘장기 두게, 장기 두게’. 나 귀찬흐니까니 나 경 선선흰 장긴 난 안 둔다.”고.

아, 요놈덜은 자꾸 해연 장긴 이겨도지고, 못이기민 심어 놓앙 따려볼 생각도 해실 겁주게.

“경흐자”고,

“너네 배예 쓸 멧 섬 시켰느냐?”

“백 예순 섬 시켰다.”고.

“아, 계민 나도 어느 곳간에 삼 백 예순 섬 이시니까니…….”

-옛날엔 ‘어음’이엔 흥데다. 글로 딱 썬 놔 가지고, 옛날도 어음이엔 흰 모양입데다.-

아, 그걸 이젠 탁 두어서는 장길 그자 그 프리 앞는 더레만 탁 탁 탁 두난, 아, 장기가 그만 털랭이 이기는 거라.

아, 이기니까, 이젠 그 쓸 삼백 예순 섬을 내노랜. 예순 섬은 어서 시꺼 온 값 흥 것이고, 삼백 섬은 어서 이레 앓다당 대봉 흥랜.

“나 이제 격지에 왕 잊고, 어떻 흥 모십니까?” 허난,

“이번에 돌아가거든 이제는 소튼 내가 부업에서 쓰는 때문에 제사 때, 멧질 때마다 부업에다가 나누시 흥 상을 잘 채려놔야 나가 먹곡, 부자돼게 해주젠.”

경, 그 솟할망도 아까 원당할망 모양으로 그 강씨들만.

그 귀신은 딸이 시집가도 부떠가지 않고, 원당할망은 계속 부떠가고.

아, 요놈덜이 체얌은 너겹 줌산디 경흐켄  
흐멍 쓸 예순 섬을 탁앗단 데며 놓고, 아,  
삼백 섬, 예순 섬이 아니고 예순 섬은 시꺼  
은 값해연 쥐 불고.

“계민 너네 배예 쓸흐고 이번의 따 논  
쓸 삼백 섬흐고 해영 따시 그만이 곁 테니  
까니 또흐번 두자.”고.

“아, 거, 뭐 대장부가 삼시, 세 판이야 아  
니해 주냐.”

곤 해서,

“두겿다.”고.

아니, 이번 두니까 또 이긴다 말이여. 또  
이기니 그 배에 시곤 쓸 삼백 섬 따 논 것  
에, 이번인 그것에 곱배길 해서 또 삼백 섬  
따 봐, 또 배엿 곁 따 봐 흐니 멧 천 섬이  
뒤여 가지고는 흐니, 이제는 거기서 배 하  
날 사 가지고 배에 시켄 흐니, 요놈덜은,

“그것만이 또 앓당 델 테니까니 또 장기  
두겐.”

“경흐자.”고.

경흐자고 해 봐 된도 쏘곶으론,

‘브름이 낭 벨 재기 띄왕 가버시민 요놈  
의 쓸은 먹을 겐디 브름이 나지 아니해설  
랑 이거 이디 시민 이제는 자꾸 흐당 보민  
어느 때 저도 흐번 질 건디 뭐 이거 춤 아  
니 웰로고나.’

흐디, 아니나 그날 츠낙은 그냥 그자 제  
주터레 오는 브름이 난 그냥 설설설설하게  
멧지와당 실브름이 잘잘…….

에따, 배 탁 띄와 놓안 와 부난 그놈덜은  
뭐 선창에 산 눈만 멀룩멀룩해여네, 경해여  
네 그 엄청난 쓸 두 벨 시켄 오란 부제가  
춤 갑작시리 돼십주.

뒤 가지곤 흐니까지, 그 때는 조선 말세  
예 경복궁 짓젠 해연 나라의 돈 어려운 때  
난 뭐 돈만 앓당 바찌민 수령도 시키곡, 방  
백도 시키곡 흐 때난 쓸 천 섬 앓단 바천  
정의 군수 버슬언 텡기지, 또 쓸 천 섬 앓  
단 바천 멧월만호 버슬언 텡기지, 또 대정

|   |  |
|---|--|
| <p>원 벼슬언 텡기지. 쫄 천섬씩 바천 정의원, 대정원, 멩월만호. 쫄 바천 경 벼슬하고, 부제되고.</p> <p>이젠 경해연 하니까 그 뒤호로는 하천미 강정의 칩이선 ‘숫할망’을 큰 아주 조상으로 시방도 잘 모성 제서 때엔 경 고평에 해당 올리곡, 그 숫은 이신디 만디 몰라도 이제 그 즈순덜도 잘 지금도 삼주.</p> <p>굿홀 댐 뉘 것사 곶으나마나 뉘 ‘일월조상으로 숫할마님 해그네 굿 혼 석 따로 혼곡, 군웅놀 때도 특별히 그 군웅네신 또 더 놀곡,</p> <p>거 숫할망군웅이엔 해그네.</p> |  |
|---|--|

17. 곱은소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성산읍 신평리와 표선면 성읍리 사이에는 ‘곱은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그 연못에서는 밤마다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서 빨래하다 원통하게 죽어 간 처녀귀신의 조화라 믿어 그곳을 금기시해 왔다. 어느 해 총각도 부장수가 곱은소 옆을 지나다 처녀귀신에게 목덜미를 잡혀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빨래소리가 멎고 말았다.</p>   |   |
| <p>그 곱은소가 워낙 물이 맑습니다. 사람도 안 다니곡 혼난 맑긴 맑는 거주마는 물이 막 파랗고, 깨끗하고 흐데, 거기 이제 전설은,</p> <p>도비상귀가 옛날에 다니단 보니까, 도비상귀가 그 읍의 지나단 보니까, 그 물 한가운데에 그, 수박기라고 낫사발 꼭지 엮인 거, 낫그릇이 이제는 물에 동동 떴어. 경해서 그것을 잡으레 가니까 밑에 구신이 잇다가 그냥 잡아들겨 가지고 그 도비상귀를 잡아 물러레 들어가 부렸젠.</p> <p>경해서 들어갔는디, 그 전에, 옛날에 아주 그 처녀귀신이 이신 모양입데다.</p> <p>그 처녀귀신은 생전에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하고 사는디, 그 시뫼이 나빠 가지고</p> | <p>지금도 곱은소가 잇나.</p> <p>곱은소는 이제 여기서 “소” 하면은 근처에 잇는 막 깊은 물을 다 “소”라고 하는데 그 이제 상당이 물이 맑고 물이 꾸부러져 부니까 물이 꾸부러졌다고 곱은소라고 헌덴 허곡, 또 이제 어떤 분네는 옛날에 이제.</p> <p>근디, 그 곱은소가 아주 물이 막습니다. 지금도 그래.</p> <p>예전에 이제 가물면은 우리 동네 사름은 물론이고, 그쪽 삼달리, 성읍, 가시리까지 거기 물을 먹고 살아서 물이 크고 아주 막고 헌데, 그 옆에 이제 큰 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촌 여러 동네 물을 먹는 때문에 상당이 물을 소중한게 동네 사름들이 아주</p> |

빨래를 해 오랜 시켜도 꼭 물이 깨끗하니  
가 그 물에 가서, 이제는 빨래 해 오랜, 더  
러운 물에 빨래하지 말랭 하니가, -케나 멈  
주게, 과히 멀진 안헤여도- 경해서 거길 빨  
래하레 자꾸 가는다, 추운 겨울에도 빨래하  
레 매날 가랜 하니가, 아, 그 처녀가, 이제  
는,

‘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뵈하라.’ 해  
네, 거기 빠전 죽어 부러 가지고, 그 원혼  
이, 이제는 웨여 가지고는 -우리가 옥안 보  
니까 그것이 물오리 소린디, 밤에는 빨래하  
는 소리가 탁탁 납네다게. 나는데, 지금 마  
만이 보니까 물오리 소리라마썸.-

우리 어린 때는, 그것이 처녀구신 나오라  
가지고 빨래를 하는다, 시집도 못가서 죽은  
때문에 귀신이 웨연 잇다가 마침 그 도비  
상구 총각, 얼굴 고운 총각이 지나가니까  
니, 이젠 그 낯사발 띄와 가지고, 도비상군  
욕심내서 그것을 좇이레 가니까니, 처녀구  
신은 도비상구를 잡아 물속으로 들어가 부  
렸젠 하여마썸.

과히 곱은소가 큰물은 아닌디, 시체를 찾  
지 못헛당 경 글읍네다.

그 잘 그 요즘 말로 허면은 관리도 잘 허  
고 하는다.

경 해서 이제 헌디, 어떤 분네는 구부러  
져부난 곱은소가 아니고, 옛날부터 물도 유  
벨나게 맑지만은 그 물이 이제 요즘 마트  
면은 수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에서  
이제는 향기가 나는 때문에 곱은소라고 헌  
다고 요렇게 하는데.

그리 그 물이 그리 맑은디 옛날에 이제  
어떤 도비상귀가 거기를 이제 지나갔어.

도비상귀엔 허문 요즘 마트면 짐지고 다  
니는 잡화상이라. 아, 조선 시대에 보부상  
을 우리 제주도말론 도비상귀엔 허여.

아, 지나가당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물  
이 아주 맑은, 목 마르난 이제 이젠 그  
물을 마시는데 뚜껑에 잇는 낯그릇을 물  
우에 낯그릇은 원래 췌니까 가라앉이는 것  
인데 동동 이제 떴어.

아, 그니까 그것은 향기나고 신령스러우  
니까, 뜨는 거니까 그냥 물만 마셔 와 버시  
면 좋을 건디 요 도비상귀는 것에 그냥 그  
이제 그 욕심이 나가지고는, 욕심이 나가지  
고, 그걸 가정 왕 풀면 돈 췌 거 아니라게.

아, 갱 물도 깊지 안 허고 허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간디 거기서 보부상이 그 이제  
그 그릇도 못 가져오고 이제는 죽어부니까,  
경헤부니까.

그 때부터는 부정해서 그 물에 향기는  
안 나고, 헤도 지금도 물은 아주.

게난 구신이 잇어부니까 도비상귀가 들  
어간 잡아가분 거주.

그거는 그 귀신이 어떻허텐은 안 허고.

아니. 그 말도 안 헤여.

가정가보젠 욕심 내니까, 물 귀신이 잡아  
강 향기가 안 나고, 원래는 향기 난텐 헛  
곱은소라고 헛.

## 18. 용왕아들 삼형제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옛날 제주도에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다. 그때, 남해용궁의 아들 삼형제는 국법을 어긴 죄로 이 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으나, 가난한 제주섬 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 줄 수가 없었다. 세월은 흘러 용왕 아들 삼 형제는 귀양살이를 끝내고 용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용왕은 귀양살이했던 아들에게 몰인정하게 대했던 제주섬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제주섬을 삼 년 동안이나 물속에 잠겨 버리게 조화를 부렸다. 그랬었기 때문에 제주섬은 아직까지도 온통 자갈과 가시덤불로 덮히게 되었고, 그때 채 물에 잠기지 못했었던 뗏봉우리들에는 그 당시 상황에 알맞게 이름을 붙여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p>   |   |
| <p>옛날 제주도가 천지 두 번 개벽해수다, 시방 사름덜 살기 전의. 옛날 개벽 흔 때.</p> <p>야. 그만 그 남해용궁 아덜이 세 성제가 잇었는디 이놈으 아덜덜이 나쁜 짓을 헛젠 하니까니, 널랑 제주도로 귀양 가랜 해연 세 놈을 귀양보넛단 말이우다. 아, 귀양을 보넛는디, 이젠 아방 므음이난게 보내여 놔 도게 그 아덜에 대한 므음이라 그 용왕이 펜안치 못해여.</p> <p>보내연 흔 삼 년 잇다가설란 그 거북이 스제보고다,</p> <p>“너 제주도에 올라가거들란 그 아덜 세 성제 보넛는디 죽지나 안해영 살암시냐 안 햄시냐 봐 보랜, 일 년에 흔번씩 삼 년에 흔번씩 보내쿠메.”</p> <p>그때 제주 백성이 그걸 잘 맥여그네 그 걸 흐썰 선심을 써시며는 경 이 제주도가 물도 나곡, 땅이 박흐질 안해영 지름진 땅 을 주영 잘 살 건디, 잘 그냥 안 맥여 분 모냥이라마썸. 용왕님 아덜덜을. 그 용왕 아덜덜이난 사름 형태도 아닐게고 다 얼굴, 득가리가 케기도 닳고, 무시거 닳곡, 풀랑 지도 무시거 닳곡 흐난 흔엇이 사름으로 추굽도 아니해연 잘 아니해주어 노니까, 그 이젠 거북이가 나오란 보니까니 춤 사는 게 행펜이 아니라, 보기에 불쌍흐고.</p> <p>돌아가서,</p> <p>“가서 보니까니 춤 아무리 귀양간 췌인</p> | <p>게니께 여기 지명이 요 앞의 산은 달산 봉. 저긴 본지오름. 어, 이제 요렇게 이제 허는데.</p> <p>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이제 용왕 아들이 아홉인가, 여덟인가 헌디 세 놈이 이제 제주도로 귀향을 보넛어.</p> <p>이제 보네노난에 귀향 온 놈이 여기 와 근에 좀 고분고분행 살아시민 헐 건디 이제는 왕 아들이노렌 행 거만 피우고 영 헤고 허니까, 제주도 백성들은게, 벨로 잘 위 하지를 이제는 안 했어.</p> <p>경 헐 이젠 귀향 췌에 이제는 돌아가젠 이제는, 이제는 허는디.</p> <p>이제 아, 춤 귀향췌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용왕에 간에 어떤 사름은 그디 정승헌티 곁앗져. 어떤 사름은 지네 어멍헌테,</p> <p>“아, 거기 가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잘 위 해주지 안 헐에 고생을 많이 허고 헐난 케 썸허텐 행 제주도랑 이제랑, 이제랑 저 물 에 등가불렌.”</p> <p>등가불렌허는 물 아래 꼭 놀렁 등가불렌 말이주.</p> <p>경 허난 등그난 섬이 밑으로 내려가난 이디 사름들은 이제 물이 부끄민, 부끄다는 말은 물이 부글부글 섬 위로 올라완에 물 이 부글부글, 여기 사름들은 올라오는디 용 왕에서는 물을, 섬을 등가베신디 여기서 보</p> |

이라도 춤 눈으로 볼 배가 엇고 하니 귀양을 이제랑 풀어주십서.”

아맹해도 그 요왕에다 국법이 섰던고라,  
“아무리 내 즈식이지만 국법인디 풀어줄 수가 잇느냐?”

고. 아, 경해연 생각, 생각하다가,  
“즈식엿 므음이라 귀양을 풀어주겠는디, 게도 귀양 강 사는디 혹시나 은혜로운 사름이나, 잘 대접해 준 사름안티라그네 돈든이 은헬 가프곡 경 아니흔 사름이랑 별도 주곡 잘 다스려그네 오라.”

아, 이젠 거북이가 오란 귀양오란 사는디 텅기멍 조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원 문딱 대접을 잘못해연 하나이나 췌안흔게 살게 혼 사름이 없어. -그 중에 박훈장네 조상인고라 박씨 성을 가진 사름 하나만 저 거시기 뭐 마빨리도 숲양 먹다그네 하나 주어그네- 그 사름베끼 살게 혼 사름이 없어. 아, 경해연 남해용궁에 들어간 요왕안티,

“원, 간 보니 다 하나이나 도와준 사름이 어서서 그디 벨로 경 거시기 흘 땅이 못뵈우덴.”

하니

“아, 경흐민 퀘썸하다.”고,

“그놈으 땅을 다 돌밭, 가시덤불 맹글아그네 백성을 못살게 맨들아부려야지 나쁜 놈덜 해 가지고... 뵈느냐?”

고,

“나쁜 놈덜. 물 부끄게 해 가지고는 그 섬 물 즈물이 불라.”

고. 이젠 물 즈물아 불라 하니,

“아, 혼 사름 박씨 성 가진 사름이 뭐 다른 거 대접흔 건 아니고 마 빨리 숲아 먹당 두어 개 얻어먹은 예가 잇는디, 그 사름은 은헬 가파야 뵈겠는디...?”

“결랑 강 그 사름 하나만 살려 주곡 그 섬을 물 즈물아 불라.”

고,

난 물이 부글부글 올라완 이디 천지가 제주도 섬천지가 이제는 다 물 바다가 뵈부난애.

저 달산봉, 저기는 그 봉오리 꼬트머리 물에 다 잠겨가지고 우리가 따먹는 길에 나는 그 딸기 그것만춤 남아부난 건 이제 달산봉이고.

본지오름은 여기 본지라고 허는 녁쿨풀이 있어. 겨우 꼬텡이가 녁쿨만이 마랑 겨우 남아부난 그 이제는 본지오름이 뵈고.

그래서 이 지방의 지명이 물 부꺼분 때에 생겨난 지명이라.

딸기, 딸기 봉우리가 딸기 만춤베끼 안 남아부니까. 그 저 달산봉.

응응. 거만헌치해부난.

“물 즈물앗당 삼 년만 잇당 따시 땅으로 맨들얏 내 노민 그 나쁜 것 덜은 씨가 큰 짝 질 거니까니...”

아, 이제는 나오라서는 이 사름 하나만 살려주젠 하니, 아이고 이제는 어드레 돌아나랭을 해야 뵈 건디, 돌아나랭을 해야 뵈 건디, 아, 거 뭐 어느 천지랑 물 즈물아 불민 다 제주섬은 뭐 다 물바당이 뵈불 건디 뭐... 이제는 술째기 그 사름보고, -그게 표선이 박씨라. 계난 저 ‘매오름’이 시방까지 저영 뵈짜흔지 아니해낫젠 홉데다. 똥골랑헛덴 홉데다, 봉우리가.

“아무 날 아무 시에라그네 흘 일이 잇구 대나 저 봉우리예 올라가그네 앓아라.”

곤. 물 즈물아 불 거옌 흐민 오만 백성이 다 돌아나쟁 흘 거니까 안뵈 겹주게. 그러니 거 씨원이 곤지 못흐고 아, 경해서,  
“앓아라.”

고.

“아, 무신 때문인지 자꾸자꾸 들언...”  
아, 이 사름이 곤는 냥 아니해염직만 해여. ‘애, 이제는 못 씨겿다’고. 거북이가 요술을 부쳐 가지고 요 사름을 매로 환생을 시켜 십주. 매로 환생을 시켜서,

“딱 이 오름에 강 시방 이제 그 매오름 모양으로 앓아설란은 요디 아갓다가 바당 물이 요까지 다 올라오며는 -물론 퀘기덜도 물에 막 훔 거 아니짜게?- 절대 욕심을 부렁 그 퀘기 잡아먹젠을 말아야지 잡아먹젠 흐며는 너가 사름이 못 뵈 데니까니 잡아먹젠을 말아. 흐 멧 시간 동안만 퀘길 잡아먹지 말얏 춤으며는 너가 좋은 세상을 볼 거니까니 경흐랜.

하니, 아, 그 매천이가 경흐켄 고갠 끄딱 끄딱해 놓고 매로 환생을 해 노니까, 허허, 허허 환생을 해 노니까 이제는 경을 못헛던 모양이라마썸.

경흐난 거북이는 남해용궁에서 귀양온 아덜 셋 들안 들어간 물 당장 부꾸완 이

제주섬을 다 물바당을 맨들지 안해수파?  
아니, 맨들젠 하니까니 그만 그 매천인 퀘  
길 봐지건 먹지 말랜을 해엿건마는 앞의  
풍글랑풍글랑ㅎ명 맛 즌 퀘기 휘어 땡기난  
그걸 안 잡아먹지 못해연 잡아먹어 보카  
해여네 잡아먹젠 시방 요영 잡아먹젠 시방  
물러레 요영ㅎ 판이주.

아, 그 거북인 그 물에서 귀양온 아덜덜  
덜앙 가단 보니까니, 퀘길 잡아먹젠 험다  
말이여. 아, 잡아먹으민 요왕에선 별주는  
퀘기난 저게 잡아 먹으민 죽을 겐디,

“안돼갓다. 저놈 먹지 못ㅎ게 해여야 돼  
갓다.”

딱 그만 움직거리지 못ㅎ게 그만 매천일  
딱 능뚜런 해십주게. 경ㅎ니 시방 ‘메오름’  
이 표선의 저작더레 요영, 요영... 그거 시  
방 먹젠 ㅎ는 거. 경해연 이제 그 ‘매오름’  
앗아 부니까 그게 매오름. 경해연 물 부끄  
난 요 하천이 ‘탈산봉’은 탈 봉오지만이 나  
와 부난 탈산봉. 요디 ‘본지오름’은 본지 빨  
리만이 헛젠 해연 본지 빨리만이 나오난  
본지오름. 저웬작 ‘통오름’은 통대만이 나와  
부난 통오름. 저 호근이 각시바원 가메기만  
이 나와부난 가메기오름. ‘칙오름’은 저 끄  
빨리만이 멜록멜록 봐져 부난 칙오름.

### 19. 제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 1983년 자료   | 2011년 자료 |
|--|----------|
| <p>* 줄거리: 옛날 제주도에 어떤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 멀리 고기잡이 갔다가 태풍을 만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 시신마저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고, 아들만 겨우 살아나왔다.</p> <p>그 아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서울로 장삿길에 나섰다. 그러나 모든 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아 서울에서 동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다행하게도 청나라를 왕래하는 진상선의 선원이 되었다.</p> <p>어느 날에는 청나라 궁실로 팔려가는 처녀들을 싣고 가다가 한 처녀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처녀는 궁실로 들어간 후,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던 중 왕자를 낳고 말았다. 그 왕자는 바로 제주 사람이 낳은 아기였다. 그 왕자는 자라서 청나라 황제가 되었는데,</p> |          |

그것은 바로 고기잡이 갔다가 바다에서 죽은 할아버지가 바다 속 명당자리에 안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도 사름이 옛날은 막 기운도 쉼고, 의인이 하영 난 모양입니다. 청나라 황제도 본래 제주도 사름이엔 흠데다, 본래는.

그 청나라 황제도 돼기 전의 그싸 곶은 말썸으로 우리 제주도는 켈기나 잡아먹음 베낀 미시거 흘 게 이수파게. 애비, 아덜이 켈기 잡으레 갓단 그만 아방이 광난이 걸러네 이젠 푹들푹들 죽어가난 배에서 약이 잇우파? 아무것도 엇입주. 이거 벨 젓언 오다봐도 죽을 형편이 돼지 안해수파?

죽을 형편이 돼난 게도 아덜은 아방은 살려보젠 부지런이 부지런이 네 젓언…… 브름은 거세계 불언 스뭇 역풍으로 굿덜 당잔 험난 애가 썬 뚝이 찰찰해가난 아방이 죽어가명도.

“아이구 아맹해도 난 죽을 것이고, 너 나 살리잔 험당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둘이 다 죽을 게난 날랑 이 물러레 재기 빠지와 달라.” 곧 해연,

“곧 이제 태풍이 불 듯 험난 날랑 이제 곧 곧거레 돌아나라.”

고. 아, 이젠 경해여도 아방을 물러레 빠지울 순 없고 게나제나 어떻 해그네 죽고 살고 굿만 등겨보젠 하니, 하, 브름은 탁 돼싸지고 느시 배질을 해도 올라오지 못해 연 하니, 그냥 버짜흔 거주게.

경험디 아방은 다 죽어가는 거라. 아, 브름이 불언 놀이 탕탕 일어나는디, 그 놀 일어난 바당이 어떻험 바당인고 하니, 우리 제주도 땅덩어리가 백두산으로 해연 삭험 게시리 구월산으로 금강산으로 지리산으로 저 추자도로 해연 맥이 요영 들어오랑 막 알녁 바당에 간 딱 믈쳐서 용 대가리가 시방 알녁 바당에 간 믈천 이십주.

믈천 이신디, 이제는 똑 그 용 대가리 우의가 배가 온 때 그만 브름이 불어네 배가

아, 그 통천자라고.

이제 뵈이엔 허면은 그 사람 죽으면 이제 터를 봐근에 그 이제 잘 묻는다, 경험디 이제 스실은 그 이제 터를 본땡 허는 건 건 즈손들이 정성으로 쪼끔이나 좋은디 모셔네쨌 허주.

착한 일 험 사람한테는 하느님이 좋은 터 가젤 멘들고, 나쁜 일 험 사름에게는 터를 안 줘. 게난 암만 돈 많이 쨌 줘지 데려당 헤뵈자 그건 쥼 거 아니라.

젠디, 이젠 춤, 이제 거, 춤, 가난은 헤도 이제 헤난 착한 사람이 이제는 저기 뵈이냐 이제 있어신디 아, 이제는 지네, 이제는, 저기 뵈, 거,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갓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간에, 이제 그 이제는 장사를 이제는 어디 헤야쥼 건데 어디 기왕이면 좋은 데 봐 가지고 이제는 장사를 헤시면은 요력험디 좋은 덜 느시 이제는 못 받.

멧 번 쥼질 데령와도 게난 삼 년이 돼도 그 터를 못 받, 장례를 못 받. 오년이 돼도 터를 못 받, 장례를 못 받에.

동네 사람처럼 덜 험 디라도 이젠 글 오년이 돼난 시체도 다 썩어불고 팡만 남을 거 아니라.

요 사름은 이제 주로 베를 타근에 고기를 잡아먹언에 이젠 살앗주게.

게난 할튼 열 사람이 봐도 좋덴 험 때깁 장 봐근엔 자기는 부모 장사를 지네보젠 험에.

경 헤신디 이제 부모 빼만 남으난 잘 이제는 싸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이제는 그 바당엘 이제는 모성 강은에 옛날엔 부모 강 장사 지네믈 삼 년간은 그 옆의 강 시묘하는 사람도 시난, 영장을 못헤부니까 자기가 장례를 못 치르고 허니까 장례를 지낼 때깁지는 모성 허켄 험 강 그 이

함불락 해볼지 아니옵니까. 경허난 이 아덜은 아프지 안허난 살아나고, 아방은 광난이 걸린 보듯보듯 다 죽어갈 때난 헤어나지 못해연 빠전 죽으난 물에 글라아질 거 아니파?

거 원 돼젠 허니까 그 용맥 물 쏘굽에 그 양팬에 그디 간 톱 글라았아서마썸.

경허니 수중 영장이난 대명당에 영장호썸이 돼여십주.

경해연 이 아덜은 죽으민 죽으라고, 뱀 잃어지고 배 널판쪽에 탄 제우제우 살안 육지로 돌아오란 허니, 따신 켜기 나짱 밥 벌이홀 생각이 엇어마썸, 아방도 이어 불고, 그 고생허 생각을 허난.

애, 이젠 못씨켄, 이제라그네 물이나 허 바리 사그네 장시나 해영 살아보젠 장시는 허젠 해봐야 이 제주도 죽은 섬에 모관광 대정 강 미신 거 시경 와 봤자 벌이도 벨로 남진 안허고…….

‘애이, 씨발’ 이제라그네 홀 수 엇이 서울 장실 허번 해 보젠 허두 므리 샷단 거 풀안 서울 차비허고, 아, 간디 뭐 촌놈이 말도 통허지 못하고 이디 강 즈와 저디 강 즈와 동녕바치가 돼십주.

동녕바치가 돼연 매날 밥 얻어 먹으레 텅겅는다, 허를은 큰 대문 든 집의 밥 얻어 먹으레 간.

“밥이나 허썰 주십서.”

사름 신체는 건강했던 모양이라. 주인 대감이 영 보더니마는,

“너 어디서 온 백성이냐?”

“나, 제주서 왔습니다.”

“야, 제주서 오라시민 너 배질홀 줄을 아느냐?”고.

“예, 배질홀 줄 알앙 내 본래 켜기 잡아 먹는 업까지 했습니다마는, -스실대로 글아 십주게.- 켜기 잡으레 갓단 아방도 잃으고 배 넘어전 나도 큰 고생을 허난 따시 배탈 생각이 없습시다원.”

제는 므음은 착헌디.

경 헌디 이제는 그 이제는 허 번은 바룩 허니 이제 태풍이 일언에 베가 뿌서전에 이젠 이녁도 죽게 돼고, 그 죽게 돼난 그 부모 이제 그 빼골도 이젠 속 물 속드레 글라져불거 아니라.

요 사름은 어땡, 어땡 해엄 천에 이젠 살아났는다 부모 유골 일러부러주. 게난 요 사름이 쟁쟁 한이여.

경 헌디 그 므음이 착해노난 하느님이 그 바당 밑에도 물만 잇주. 그 땅의 기운은 그대로, 우리가 산맥 잇듯 땅에도 다 잇는다 그 이제는 바다 밑에 용이 달려가는 그 형국인 이제 그 땅이 잇는다, 그 시체가 그 톱 그 위에 강 떨어정 걸려진 거요.

거난 그냥 땅 그트민 임금 텔 땅 용 드가리 위에 지금 그 빼가 이제 딱 간 거요.

경 허난 이젠 그 춤 아주 제일 멩당에 강 이제는, 그 이제는 저기 뵈이나 춤 묻어진 썸인데 묻진 아네도 수장이 돼도.

요 사람이 이제 겨우, 겨우 바끄디 나왕 굴러간게. 이제는 육지, 아, 육지가 아니고 중국까지 그 이제는 해엄천, 육지에 나온다 중국 땅의 어디 섬이라.

경 행 울로 절로 살아남 갖는다 그 아들 대에 지금 그 이제는 청나라 통천자가 그 사람 아들인 거주. 원레가.

판 사름 나라는 다 그 춤, 지방 호족이나 요런 사람이 다 그레도 왕이 뵈는다 청나라 누루아치는 그 저, 어땡 만주 세상 어땡 세상 어땡 양반 아닌 거가 완 그것 가 그 사람 즈손이엿.

아니, 그 산 원기로 그 아들이 나니까 똑 똑행 청나라 통천자가 뵈젠.

그 아방을 바당 속에 빼 아정 다니당 묻어부난 빼가 땅 속에 잇는 용, 달려가는 용 드가리 옆에 잇어부니까. 그 원기로.

“너 배 탈 생각은 없지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방 -옛날은 처녀 진상을 햇썸 마썸.- 처녀 진상을 흐는디, 그 배를 중국 깡장 가야 돼겠는디, 그 배질홀 사름이 옛 언 지방 못가는디, 너가 배질해나서 그디 흐번만 갖다 오며는 정승, 판서가 부럽지 안흐게 나가 대우를 해 줄 것이니 흐번 해 보라.” 곧,

“기왕 동녕질해 먹는 거보다는 낫지 안흐냐?”

그만이 생각해 보니, ‘배질 흐번 해영 죽고 살고 정승, 판서보단 낮은 대우 받낸 흐니까니, 내 이제는 흐번 해 봐그네 죽어지건 말주.’ 진상 보내는 처녀 시끄고 해연 배질을 해연 갖는디, 아, 가는디 그만 오꽃…… 흐르에 가질 것파, 이디서 중국이 난? 메틀사 걸렸는지. 박훈장 말썸 아니라도 우망우망흐 처녀덜 시경 가난 밤의 생각이 난 아멩해도 흐썰 자파리해 분 거라 마썸. 경해연 자파리해여난 말앗는디, 처녀덜 잘 시경 간 바뀐 펜안이 돌아오랏는디 이디 오란 대우를 잘해주고 해연 사는디, 아니 처녀덜은 하영 진상을 해영간디, 어떻 자파리해 분 궁녀로 뽑안 들어갓다네 왕빈 아니라도 이제는 왕의 사랑을 받안 이제는 아덜을 난. 아덜 나난 왕자 아니파? 아덜 나서 말이우다. 그 아덜이 그 왕의 아덜이 아니고, 배에서 가명 자파리해 부난 배엇는지 그리 쥔 모양이라마썸.

아, 경해연 애긴 나난 중국 황실에선 왕자 낫젠 지꺼전 잘 키우고 헛는디, 어떻게 그 집이 용 드가리에 간 산을 써노난 용이 올라간 왕 쥔 자립주, 그계.

경해연 왕은 아덜 하나도 엇고 흐니까니 그 처녀가 난 아덜이 왕, 탁 돼연.

경해연 중국 천자가 본래 그 제주도 사름.

<ABSTRACT>

The study of linguistic variation  
according to the passing of real time in Jeju dialect

Kwon Mi-So

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which was at linguistic variation according to the passing of real time in Jeju dialect.

In order to look of an individual's variation, it was taken the same way of investigation, point, environment and informant through field survey.

The study was limited to recorded 19 tales of Oh Mun-Bok's(2011) and 『Collection of tales in Jeju』(1)(1985).

The survey was conducted literature and field research. Oral data collected in order to compare the data of 1983 word phrases, in the financial and statistical results examined using a variation pattern.

In chapter 2, the data was compared tales of 1983 with 2011 which was divided into Phoneme, Tagmeme, Vocaburary.

Divided by the vowel-consonant phonemes that were mutated to view aspects. As a result, the informer in the ignition ‘· > ㅏ’, ‘· > ㅑ’, ‘· > ㅓ’ appearance was changing into. ‘ㅓ’ is changed by 30 years collection of real time as you move into ‘ㅕ’. The remaining consonants in the language of the reporter ㅓ-palatalization phenomenon and, ㅕ-palatalization aspects of the phenomenon of mutation was confirmed.

In tagmeme, looked at aspects of the postposition and ending mutation.

Basic vocabulary and the 11 items grouped by parts of speech body, relatives, astronomy, geography, food, clothing, shelter, space, time, animals, plants, and the quantity, pronouns, etc., verbs, adjectives, words extracted and quantified the frequency of emergence of each 1983 data is to be used in comparison with the 2011 data showed a variation pattern.

As a result phoneme, tagmeme, vocabulary, largely increased its forces in the dialect type, whereas Mandarin-type forces weakened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emergence of stronger manifestation found.

In chapter 3, Why is the language variation patterns that appeared on those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to watch for broken.

The submitter was exposed to standard language environment in translation and writing original chinese character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Magazine Editors president. It also established two places of residence and frequent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was the language. As a result, the language of the informant led to the standard language-oriented.

Informant at the time of the 1983 survey age of 46 and real time at a distance surveyed in 2011 73 years old. Because of his increased age, oral speech Inside informant would remain a lot of tongue-inch differently than expected to say a common phenomenon in sociolinguistics and was quite the opposite phenomena. Type in the dialects of the language as well as informer is not completely lost. Has maintained the appearance of the medieval languages too much in the types were found. However, looking at factors internal informers were exposed to standard language by standard language while living in an environment with a positive attitude about the without to have to cancel was placed on the social situation can be inferred. Therefore as an informer of the fire is gone from the standard language dialects, many types that location type is thought to have been taken. Over the course of 30 years to another informant's memory, language variation was due to a problem was the conclusion also.

Where the study is limited because only a experimental study. Enhance their future need to challenge gaps are left.